「2024년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공동연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2025. 2

2024 - KHU - 01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 임진택(경희대학교)
공동연구자 : 조민경(경희대학교)
권영신(성균관대학교)
김단영(성균관대학교)
박정선(연세대학교)
이다정(연세대학교)
차정민(중앙대학교)
신재희(중앙대학교)

이 보고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연구결과 요약

요 약

본 연구는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 전형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 대입정책의 변화와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국 고등학교 교사,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및 입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입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 그룹인 교사와 교육청,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도 2차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와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자문회의(FGI)를 통해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2028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40% 수준으로 확대, 수능위주전형은 30%와 논술위주전형 15% 수준으로 축소 또는 유지, 학생부 교과 20%와 실기/실적위주전형은 유지가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낮아진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전형에 학생부를 추가 활용하는데 대해 교사는 창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부 영역을 추가하는데 긍정적이나, 입학사정관은 긍정반응이 낮았다. 수능전형에 학생부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를 선호하며, 출결과 석차 구간등급표를 활용하는 정량평가, 교과이수 현황 등 방식을 제시하였다. 서류 정성평가를 교과전형과 수능전형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반응이 높으나, 학종 방식 서류평가보다는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대한 정성평가(교과종합평가)를 선호한다. 면접평가에 대해서는 교사가 긍정반응이 높은데 비해 입학사정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시모집에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데 동의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을 대입에 활용하는데 모두 동의하였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해 교과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출결상황에 대한 입시 반영 요구가많았고 찬성하였다. 고교 서·논술형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전형과 연계하는데 부정반응이 높았다.

▶ 학생부교과전형: (기존) 교과성적 + 수능최저학력기준 →
(변경) 교과성적 + 출결 및 교과(종합)평가 + 수능최저학력기준
▶ 학생부종합전형: (기존) 서류평가+ 면접평가 →
(변경)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수능최저학력기준
▶ 논술전형: (기존) 논술+ 수능최저학력기준 →
(변경) 논술 + 출결 및 교과성적 +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능전형: (기존) 수능 →
(변경) 수능 + (1안) 학생부 출결 및 교과성적,
(2안) 학생부 출결 및 교과 이수 과목(학점)
(3안) 학생부 교과(종합)평가

연구 결과, 현재 대학 입시는 전형자료의 간소화와 입시체계의 다양화로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8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 체계에 따라 개별 평가요소의 대입

변별력은 약화되어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형자료를 병행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첫째, 낮아진 변별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시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대학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낮아진 변별력으로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수능등급을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신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학생부 실명제 도입이 학교가 처한 교육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기록할 때 학생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부풀리기, 과도한 탐구활동 기재, AI 프로그램(챗GPT) 활용 세특 기재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양식 변경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수능과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이다. 2028 융합형·통합형 수능은 '공통 수능'을 지향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2028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능시험에서 제외된 부분을 평가하는 보충적 관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이 필요하다. 다만, 대학의 행정 운영 부담과 학생의 입시 준비 부담을 고려하여 학생부를 최소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모집단위별(인문/자연계열) 모집군별(정시 가/나/다군) 특성을 반영해 인문계는 수능만으로 선발하고 자연계는 수능과 학생부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정시 다군은 수능만으로 선발하고 정시 가/나군은 수능과 학생부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정시모집에서 수능 외 다른 평가요소를 추가 활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의 전형 반영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등의 학교 밖 지원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대학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대학의 계열별·모집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을 제시하거나 계열별 교과 선택과목 최소 이수학점(과목수)을 지정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시 수요와 모집인원의 불일치 문제이다. 수시는 지원자가 많고 정시는 지원자가 적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 대학 내에서도 전형유형 간 차이가 크다. 대학 입시 수요자를 고려하여 모집전형 모집인원 자율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정시 수능전형의 모집인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단계로 수도권 대학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능 30%로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수능전형의 적정 규모를 30% 내외로 보았다. 2단계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는 완전 자율화 방안이다. 수시와 정시 모두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병행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시와 정시의 통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시가 교육을 앞서가는 일은 없어야 하며, 대입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2028 입시는 단순하게! 교육은 다양하게!'가 그 방향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4개 대학이 실제 2028 학년도 대입전형 설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 차

Ⅰ. 머리말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가. 문헌조사·분석 ····· 2
나. 설문조사·분석 ····· 2
다. 델파이조사 ····· 4
라. 전문가심층면접(FGI)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입시 환경 분석 ····· 6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 6
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주요 변경사항 ····· 12
2.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입시환경 변화 ····· 17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 17
나. 내신 5등급제 도입, 성취도 병기 ····· 19
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모집 현황 ····· 21

Ⅲ. 실태조사 ····· 24
1. 설문조사·분석 ····· 24
가. 설문조사 개요 ····· 24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9
2. 델파이조사 ····· 84
가. 델파이조사 개요 ····· 84
나.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 86

3. 전문가심층면접(FGI) ·····122
가. 전문가심층면접(FGI) 개요 ·····122
나. 전문가심층면접(FGI) 주제별 논의 사항 ·····124
다. 전문가심층면접(FGI) 정책 제언 및 개선 방안 ·····140

Ⅳ. 결론 및 제언 ·····144
1. 결론 ·····144
가.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적정 규모 ·····144
나. 변화된 내신 및 수능 체계에서의 변별력 확보 ·····148
다.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전형의 서류/면접 등 정성평가 추가 활용 156
라.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 163
마. 출결상황 평가요소 추가 활용 ·····170
바.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172
사.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대비한 대입 서·논술형 평가 추가 활용 174
2. 제언 ·····177
가. 전형자료와 입시체계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177
나. 수능과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179
다. 입시 수요와 모집인원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181

참 고 문 헌 ····· 184

표 목 차

〈표 Ⅱ-1〉 일반고와 특목고의 학점 배당 기준(산업수요 맞춤형고 제외) ·····9
〈표 Ⅱ-2〉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재구조화 ·····10
〈표 Ⅱ-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보통교과 편제표(계열 교과 제외) ·····11
〈표 Ⅱ-4〉 수학, 과학 보통교과 ·····12
〈표 Ⅱ-5〉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 교과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의 비교 ··13
〈표 Ⅱ-6〉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의 비교 ··14
〈표 Ⅱ-7〉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확정안(요약) ·····18
〈표 Ⅱ-8〉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대입전형자료 ·····20
〈표 Ⅱ-9〉 전체 대학 총 모집인원 ·····21
〈표 Ⅱ-10〉 모집시기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22
〈표 Ⅱ-11〉 권역별 모집시기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22
〈표 Ⅱ-12〉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 ·····23
〈표 Ⅲ-1〉 표본으로 선택된 고등학교 현황 ·····24
〈표 Ⅲ-2〉 설문 응답 현황: 고등학교 ·····25
〈표 Ⅲ-3〉 설문 응답 현황: 대학 ·····26
〈표 Ⅲ-4〉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집단 재분류: 고등학교 ·····27
〈표 Ⅲ-5〉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집단 재분류: 대학 ·····28
〈표 Ⅲ-6〉 교과성적 정량화 시 과목별 반영 비중 ·····31
〈표 Ⅲ-7〉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인식: 고등학교 ·····32
〈표 Ⅲ-8〉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인식: 대학 ·····33
〈표 Ⅲ-9 〉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인식: 고교 대 대학 ·34
〈표 Ⅲ-10〉 교과전형에 도입 가능한 전형요소 ·····35
〈표 Ⅲ-11〉 교과성적 동점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35
〈표 Ⅲ-12〉 교과성적 동점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대학 ·····36
〈표 Ⅲ-13〉 교과성적 정량화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인식: 고교 대 대학 ···37
〈표 Ⅲ-14〉 출결상황 정량화 반영에 대한 인식 ·····38
〈표 Ⅲ-15〉 교과전형에 도입 가능한 서류평가 방식 ·····38
〈표 Ⅲ-16〉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39
〈표 Ⅲ-17〉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39

〈표 Ⅲ-18〉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40
〈표 Ⅲ-19〉 교과전형에 도입 가능한 면접평가 방식 ·····40
〈표 Ⅲ-20〉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41
〈표 Ⅲ-21〉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41
〈표 Ⅲ-22〉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42
〈표 Ⅲ-23〉 교과전형 운영 방식 ·····42
〈표 Ⅲ-24〉 교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43
〈표 Ⅲ-25〉 교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대학 ·····44
〈표 Ⅲ-26〉 교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44
〈표 Ⅲ-27〉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인식 ·····46
〈표 Ⅲ-28〉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적용에 대한 인식 ·····47
〈표 Ⅲ-29〉 평가요소 적합성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48
〈표 Ⅲ-30〉 평가요소 적합성에 대한 인식: 대학 ·····49
〈표 Ⅲ-31〉 평가요소별 반영 비중 ·····49
〈표 Ⅲ-32〉 학업역량 평가 시 과목별 반영 비중 ·····50
〈표 Ⅲ-33〉 권장과목 이수 여부 반영에 대한 인식 ·····51
〈표 Ⅲ-34〉 학생부종합전형에 적용 가능한 면접평가 방식 ·····52
〈표 Ⅲ-35〉 학종의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52
〈표 Ⅲ-36〉 학종의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53
〈표 Ⅲ-37〉 학종의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53
〈표 Ⅲ-38〉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인식 ·····55
〈표 Ⅲ-39〉 교과성적 반영에 대한 인식 ·····56
〈표 Ⅲ-40〉 출결성적 반영에 대한 인식 ·····57
〈표 Ⅲ-41〉 논술전형의 일반 인식에 대한 질문 ·····57
〈표 Ⅲ-42〉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 고등학교 ·····58
〈표 Ⅲ-43〉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 대학 ·····58
〈표 Ⅲ-44〉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 고교 대 대학 ·····59
〈표 Ⅲ-45〉 교과성적 반영에 대한 인식 ·····61
〈표 Ⅲ-46〉 모집단위에 따라 다른 수능 영역 반영에 대한 인식 ·····62
〈표 Ⅲ-47〉 인문사회계열의 영역별 수능 반영 비중 ·····62
〈표 Ⅲ-48〉 자연계열의 영역별 수능 반영 비중 ·····63
〈표 Ⅲ-49〉 수능 성적지표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64

〈표 Ⅲ-50〉 수능 성적지표에 대한 인식: 대학 ·····65
〈표 Ⅲ-51〉 수능의 성적지표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66
〈표 Ⅲ-52〉 학생부 활용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67
〈표 Ⅲ-53〉 학생부 활용에 대한 인식: 대학 ·····68
〈표 Ⅲ-54〉 학생부 활용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69
〈표 Ⅲ-55〉 수능전형에 도입 가능한 전형요소 ·····70
〈표 Ⅲ-56〉 추가 전형요소 도입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70
〈표 Ⅲ-57〉 추가 전형요소 도입에 대한 인식: 대학 ·····71
〈표 Ⅲ-58〉 추가 전형요소 도입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대 대학 ·····72
〈표 Ⅲ-59〉 수능전형에 도입 가능한 서류평가 방식 ·····72
〈표 Ⅲ-60〉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72
〈표 Ⅲ-61〉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73
〈표 Ⅲ-62〉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73
〈표 Ⅲ-63〉 수능전형에 도입 가능한 면접평가 방식 ·····74
〈표 Ⅲ-64〉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74
〈표 Ⅲ-65〉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75
〈표 Ⅲ-66〉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76
〈표 Ⅲ-67〉 수능위주전형 운영 방식 조사 문항 ·····76
〈표 Ⅲ-68〉 수능위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76
〈표 Ⅲ-69〉 수능위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대학 ·····77
〈표 Ⅲ-70〉 수능위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78
〈표 Ⅲ-71〉 전형 규모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79
〈표 Ⅲ-72〉 전형 규모에 대한 인식: 대학 ·····80
〈표 Ⅲ-73〉 전형 규모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80
〈표 Ⅲ-74〉 대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 문항 ·····81
〈표 Ⅲ-75〉 대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81
〈표 Ⅲ-76〉 대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대학 ·····82
〈표 Ⅲ-77〉 대입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82
〈표 Ⅲ-78〉 수시와 정시 분리 모집에 대한 인식 ·····83
〈표 Ⅲ-79〉 델파이조사 응답 현황 ·····84
〈표 Ⅲ-80〉 델파이조사(1차) 질문 문항 ·····85
〈표 Ⅲ-81〉 델파이조사(2차) 질문 문항 ·····86

〈표 Ⅲ-82〉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예상 문제점 ·····87
〈표 Ⅲ-83〉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예상 문제점 판단 근거 ···88
〈표 Ⅲ-84〉 수능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예상 문제점 판단 근거 ·····89
〈표 Ⅲ-85〉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제안 ·····90
〈표 Ⅲ-86〉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적절성 ·····91
〈표 Ⅲ-87〉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판단 근거 ·····92
〈표 Ⅲ-88〉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제안 ·····94
〈표 Ⅲ-89〉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적절성 ·····94
〈표 Ⅲ-90〉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판단 근거 ·····95
〈표 Ⅲ-91〉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기타 전형방법 제안 ·····96
〈표 Ⅲ-92〉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예상 문제점 ·····97
〈표 Ⅲ-93〉 수능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예상 문제점 ·····98
〈표 Ⅲ-94〉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정량평가 방안 제안 ·····98
〈표 Ⅲ-95〉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예상 문제점 판단 ···99
〈표 Ⅲ-96〉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판단 근거 ·····99
〈표 Ⅲ-97〉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적절성 ·····100
〈표 Ⅲ-98〉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판단 근거 ·····101
〈표 Ⅲ-99〉 2028학년도 전형 방법 제안(수능최저학력기준 및 기타 전형요소) ·····102
〈표 Ⅲ-100〉 고교 내신 체계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른 논술전형 예상 문제점 ·····102
〈표 Ⅲ-101〉 2028학년도 논술전형 전형 방안의 적절성 ·····103
〈표 Ⅲ-102〉 2028학년도 논술전형 전형 방안 판단 근거 ·····104
〈표 Ⅲ-103〉 2028학년도 실기/실적전형 전형방법의 적절성 ·····105
〈표 Ⅲ-104〉 전형 방법 제안 ·····106
〈표 Ⅲ-105〉 대입전형 체계 변화에 따른 수능전형 예상 문제점 ·····107
〈표 Ⅲ-106〉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적절성 ·····107
〈표 Ⅲ-107〉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판단 근거 ·····109
〈표 Ⅲ-108〉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적절성 ·····110
〈표 Ⅲ-109〉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적절성 판단 근거 111
〈표 Ⅲ-110〉 2028학년도 수능 체계 변화가 고교 및 대입전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절성113
〈표 Ⅲ-111〉 2028학년도 수능 체계 변화가 고교 및 대입전형에 미치는 영향 판단 근거 114
〈표 Ⅲ-112〉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따른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방향 적절성 ·····115

〈표 Ⅲ-113〉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따른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방향 판단 근거 ·····116
〈표 Ⅲ-114〉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대입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견의 적절성 ·····117
〈표 Ⅲ-115〉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대입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견의 적절성 판단 근거 ·····119
〈표 Ⅲ-116〉 전문가 자문회의 차수별 질문 및 제공자료 ·····123
〈표 Ⅳ-1〉 모집인원 현황 및 적정 모집인원에 대한 인식 ·····146
〈표 Ⅳ-2〉 2028학년도 적정 모집인원 규모에 대한 인식 ·····147
〈표 Ⅳ-3〉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151
〈표 Ⅳ-4〉 수능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활용 ·····154
〈표 Ⅳ-5〉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 서류평가 추가 활용에 대한 인식 ·····160
〈표 Ⅳ-6〉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 면접평가 추가 활용에 대한 인식 ·····162
〈표 Ⅳ-7〉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 ·····169
〈표 Ⅳ-8〉 출결상황 정량화 반영에 대한 인식 ·····171
〈표 Ⅳ-9〉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인식 ·····172
〈표 Ⅳ-10〉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인식 175
〈표 Ⅳ-11〉 2028학년도 전형유형별 대입전형 변경(안) ·····178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분석체계 ·····5
[그림 Ⅱ-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및 추진단계 ·····7
[그림 Ⅳ-1] 2026학년도 전국 대학 모집인원 현황 ·····145
[그림 Ⅳ-2] 2028학년도 모집인원 적정 규모(설문조사) ·····146
[그림 Ⅳ-3] 모집인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147
[그림 Ⅳ-4] 2025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체계 개편 ·····148
[그림 Ⅳ-5]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운영 어려움(델파이조사) ·····149
[그림 Ⅳ-6]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설문조사) ·····151
[그림 Ⅳ-7]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 정량평가 반영 적절성(델파이조사) ·····152

[그림 Ⅳ-8] 수능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활용 적합도(설문조사) ·····154
[그림 Ⅳ-9] 수능전형에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반영(델파이조사) ·····155
[그림 Ⅳ-10] 학생부교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반영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157
[그림 Ⅳ-11] 수능위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반영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157
[그림 Ⅳ-12] 학생부교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시 방식에 대한 인식(델파이조사) 158
[그림 Ⅳ-13] 수능위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시 방식에 대한 인식(델파이조사) 159
[그림 Ⅳ-14] 학생부교과전형에 면접평가 추가 반영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161
[그림 Ⅳ-15] 수능전형에 면접평가 추가 반영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161
[그림 Ⅳ-16]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교과 이수과목 평가 활용(델파이조사) ·····164
[그림 Ⅳ-17]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바람직한 대입전형 방향(델파이조사) ·····165
[그림 Ⅳ-18]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적합성(설문조사) ·····166
[그림 Ⅳ-19]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적정 비중(설문조사) ·····166
[그림 Ⅳ-20] 모집단위별 수능영역별 적정 반영비율(설문조사) ·····167
[그림 Ⅳ-21] 수능 성적지표의 적합도(델파이조사) ·····168
[그림 Ⅳ-22]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설문조사) 170
[그림 Ⅳ-23] 출결상황 정량평가 반영에 대한 인식(델파이조사) ·····171
[그림 Ⅳ-24]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설문조사) ·····172
[그림 Ⅳ-25]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반영(델파이조사) ·····173
[그림 Ⅳ-26]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대비한 서·논술형 대입 평가 추가 활용(설문조사) 175
[그림 Ⅳ-28]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방향(연구 결과 종합) ·····176
[그림 Ⅳ-28]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걸림돌 해소 방안(1)(델파이조사) ·····179
[그림 Ⅳ-29]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걸림돌 해소 방안(2)(델파이조사) ·····182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 통계조사 요약표 ····· 185

부록 2. 설문조사지 ····· 225

부록 3. 델파이조사 문항지 ····· 241

부록 4. 전문가심층면접(FGI) 질문지 ····· 262

I. 머리말

1. 연구목적

교육부는 2023년 12월에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고교 내신 체계 개편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25년 1월에 대입전형자료 변경사항을 추가 안내하였다.

수능은 과목・점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여 융합형 학습을 유도한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를 폐지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하도록 한다. 다만,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2과목 모두 응시하되, 대입전형 활용 등을 고려해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하도록 한다.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과학 관련 선택과목은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도입에 따라 대학은 정시 수능전형의 변별력 확보가 중요해졌다. 수능 과목체계 변경에 따라 국어, 수학, 통합사회/통합과학, 영어, 한국사 등 영역별 반영 비율, 인문계열/자연계열/예술·체육계열 특성 반영 여부 등을 새로 정해야 한다. 또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과학 관련 선택과목이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능성적 외 다른 전형요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고교 내신은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상대평가인 석차등급과 절대평가인 성취도를 병기하여 대입자료로 제공한다. 새로운 내신 체계는 1등급(10%) - 2등급(24%, 누적 34%) - 3등급(32%, 누적 66%) - 4등급(24%, 누적 90%) - 5등급(10%, 누적 100%)으로 구분된다. 성취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였다.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한다. 이외에도 지식암기 위주 평가(5지선다형)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 시행한다. 이와 같이 석차 5등급제, 상대평가와 성취평가 병기 제공 등 내신 체계 변경에 따른 학생부위주전형의 변별력 확보도 중요해졌다. 석차 5등급제에 따라 석차등급 외 원점수, 이수학점,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 추가 정량평가 활용 여부, 정량평가 외에 서류/면접 등 정성평가 추가 활용,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시 석차등급과 성취도와 원점수 병행 활용 등 다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고교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맞춰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라 대입제도와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상과 같은 변화된 내신 5등급 체계와 통합형 수능 체계는 대입전형에서 변별력 약화를 가져와, 이를 보완하는 전형요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아울러, 2025년 고교에 처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바람직한 대입전형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입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가 공동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대학의 모집시기별・전형유형별・전형요소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전형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분석

문헌조사는 크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으로 변화된 수능 체계와 내신 체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교육부가 2023년 10월과 12월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시안과 확정(안)에 대해 교육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고, 2025년 1월 추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대입전형자료를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한 고교학점제 등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도 분석하였다. 2028 대입전형 모집인원의 방향 설정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의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해설, 별책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과 수업내용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분석

이번 설문조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11월 27

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 설문조사의 URL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한 뒤 응답자가 인터넷으로 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 중 문항 일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인구통계학적 조사항목까지 모두 마친 경우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항목을 일부라도 답하지 않으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고교 교사 534명(중복응답 1인 제외)과 대학 입학사정관 및 입학관계자 182명이었다. 대부분 객관식 문항으로 응답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추가적인 의견을 묻는 개방형 문항도 포함하였다.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먼저 전국 고등학교 중 500개 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표본으로 선택된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계 고등학교와 교육과정이 다른 영재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표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학의 경우는 2024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질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크게는 전형유형별로 학생부위주 학생부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논술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 및 전형 개선을 위한 대학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질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학생부교과전형과 관련된 질문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과 성취도, 과목별 반영비율, 낮아진 변별력에 따른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안, 교과 서류평가 도입의 적합성, 출결반영, 수능최저학력기준, 학교장 추천인원 제한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을 조사한다. 두 번째 영역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 전공 이수에 필요한 권장과목의 적합성, 면접평가 방식, 과목별 반영비율, 낮아진 변별력에 따른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안, 서류평가 요소의 적합성 및 비율, 출결반영,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을 조사한다. 세 번째 영역은 논술위주전형과 관련된 질문으로, 논술위주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 교과성적 정량 반영 비율, 출결반영,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에 대응한 논술위주전형 확대 및 과학 출제범위 포함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을 조사한다. 네 번째 영역은 수능위주전형과 관련된 질문으로,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 교과성적 정량평가의 적합성, 수능위주전형의 학생부 각 영역 추가 반영,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별 수능 과목별 반영비율 차등 적용, 총점 계산 시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지표 적합성, 서류/면접 정성평가 등 추가 전형요소 활용 및 방식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전형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전형 개선 방안으로 수시와 정시모집,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적정 비율, 수능위주 40% 권장 폐지,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 학생부 항목 제한 유지, 수시 정

시 통합 등의 적합성 및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 델파이조사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등 입학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였다. 고교 교사/교육청 29명 및 대학의 입학관계자 6명 총 35명을 대상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조사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회수율은 두 차례 모두 100%였다.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모두 수도권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배정하였으며, 진로 진학에 경험이 많은 교사와 교육청, 경력이 풍부한 입학사정관을 선정하였다.

델파이조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고교 교육의 변화와 대입제도 전형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문항을 제작하였다. 조사는 총 2차시로 진행되었는데, 1차시에는 개방형 질문으로 내신과 수능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와 전형 방법 제안, 바람직한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1차 주관식 응답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2차 문항을 제작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답변하게 하였고, 그중 일부 항목에서 의견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 의견에 대한 점수화와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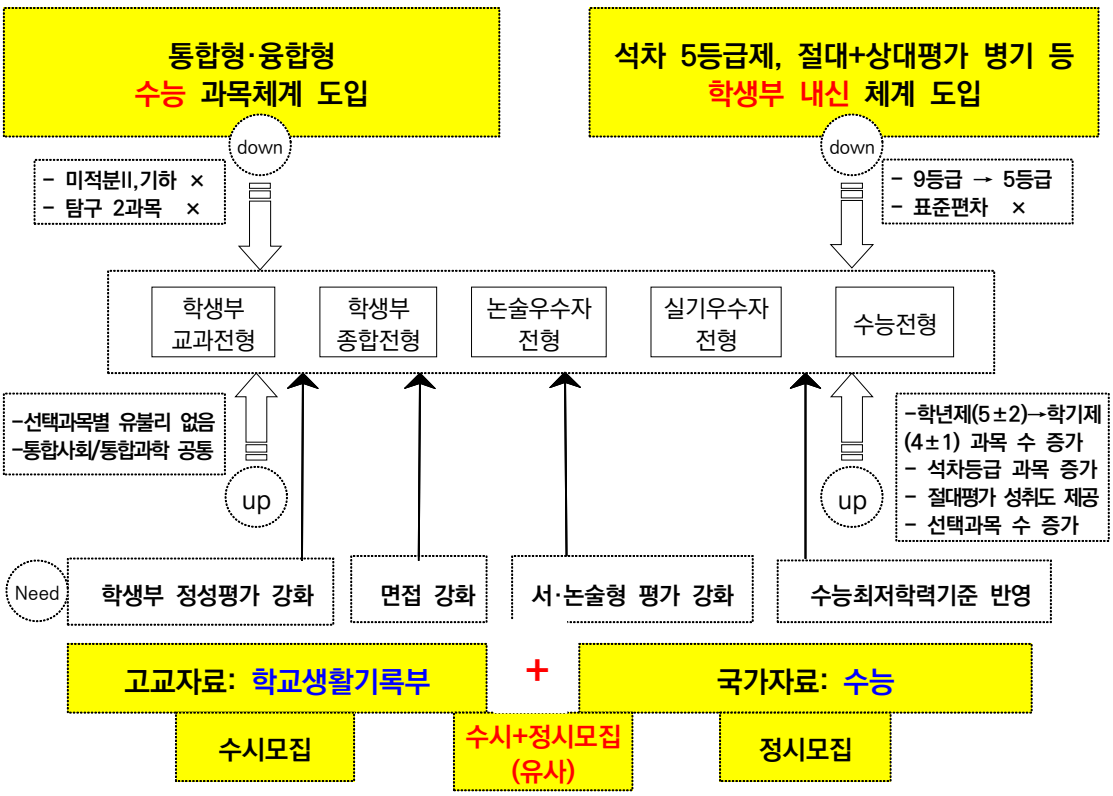
1차 델파이조사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였는데, 2028 내신과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현재 각 유형별 대입 방식이 2028학년도에 지속될 경우 문제가 되는 지점을 질문하였고, 각 전형 유형별 전형 방법 제안을 주관식으로 응답을 요청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적합한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방향, 바람직한 전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의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는 2025년 1월 13일에서 20일까지 진행하였는데, 1차에서 수합된 문항별 다양한 의견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문항화하였다. 각 문항별로 5점 척도로 해당 의견의 적절성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고, 여러 문항 중에 일부 문항에 대해 판단 근거를 주관식 의견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각 전형별로 유사한 응답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2차 질문 문항에서는 제외하기도 하였다. 온라인으로 개별 이메일을 통해 델파이조사지를 발송하고 회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라. 전문가심층면접(FGI)

전문가심층면접(FGI)은 고교 교사 및 교육청 6명, 대학 입학사정관 2명 총 8명을 대상으로 2회 진행되었다. 1차 회의는 2024년 9월 4일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을 위해 연구 방향 설계에 초점을 두었고, 2차 회의는 2025년 2월 11일에 문헌조사, 설문조사, 델파이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 해석 시 주의점, 바람직한 개선방향 등 결론 및 제언 도출로 진행되었다.

전문가심층면접은 두 차례 모두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대입지원관 및 고교 교사, 입학사정관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개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회신을 받았으며, 회의에서는 개인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FGI 결과는 연구 방향과 결론 도출 과정에 반영하였다.

이상의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분석의 틀은 다음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분석 체계

Ⅱ. 이론적 배경

1.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입시 환경 분석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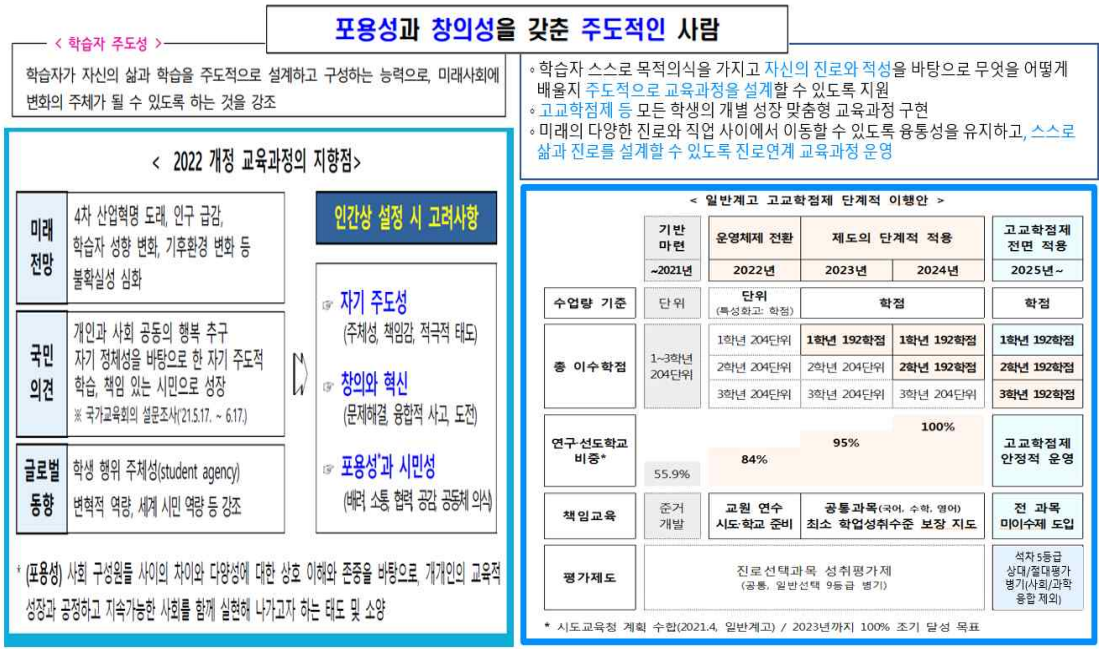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지향적 수업과 평가 등 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1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12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을 고시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배경으로 학령인구 급감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저출생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불확실성, 복잡성, 변동성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 전환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식·정보가 급증하는 사회 변화에 학습자의 주도성, 창의력 등을 교육과정 핵심역량으로 체계화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내용으로 개정의 방향을 명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구하는 인간상’ 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인간상으로 꾸준하게 제시되었던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그간의 인간상을 유지하되, ‘자주적인 사람’ 을 ‘자기주도적인 사람’ 으로 변경하였다. 즉,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라는 교육과정의 비전에 따라, ‘주도성’ 의 개념과 가치를 포함하여 자주적인 사람의 특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으로, 미래사회의 변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1].

- 학습자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고교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유지하고, 스스로 삶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1)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index.cs),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_고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역량으로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함께 제시된 7개의 항목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주안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상위 3개 항목에서는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능력과 소양으로 미래 대응 능력과 주도성, 인격적 성장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으로 제시하였다. 즉,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능력과 소양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 능동적 참여와 학습의 질 개선, 자율화·분권화에 기초한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림 Ⅱ-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및 추진단계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다만,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은 나와 나 사이, 나와 우리 사이의 소통과 배려와 협력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어 선택형 교육과정(학생 맞춤형 교육), 통합형 교육과정(문·이과 구분 폐지, 1학년 공통과목 도입), 역량 중심 교육과정(학습의 질 제고)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 총 이수학점 적정화, 보통 교과 편제 과목 수 확대, 교육과정 지역 분권화를 통한 고시외 과목 운영 활성화, 공동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지역 및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하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1학년 공통과목, 2~3학년 선택과목 체제를 유지하되 종전 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Ⅰ에 편제한 과목을 보통교과로 편성하여 심화 과목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였다. 과목 선택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의 개별적 성장과 진로 연계 교육이 이전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의 개별성을 강화하는 교육, 소위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수업(학습)량을 조정하였다. 종전 한 학기 17주(회)를 기준으로 하던 수업 기간을 16주(회)로 줄이되, 과목당 기본 학점을 5학점±2에서 4학점±1로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과목별 성취 기준의 수도 기본 학점인 4학점에 맞게 조정하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 학기 집중 이수제를 강조하였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학기별로 작성하게 된다. 고등학교 3년 총 이수학점(단위)을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축소(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94학점으로 제시한 필수이수학점을 84학점으로 줄이며 자율 이수학점은 종전보다 4학점 늘어난 90학점으로 배정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 폭을 넓혔다[2].

2)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index.cs), [별책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표 Ⅱ-1> 일반고와 특목고의 학점 배당 기준(산업수요 맞춤형고 제외)

교과(군)	공통 과목	필수 이수 학점	자율 이수 학점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8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8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8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6	
	통합사회1, 통합사회2	8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10	
체육		10	
예술		10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84	90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공통 과목의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1, 2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며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④ 과학탐구실험1, 2의 기본 학점은 1학점이며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학, 체육,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필수 이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이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상,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는 1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⑥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 학점 총합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⑧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표 Ⅱ-2>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재구조화

<2015 개정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과목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
	일반선택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융합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진로선택과목			진로선택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
전문	전문교과 I (특목고)	전문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본과목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전문교과 II (특성화고)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

<표 Ⅱ-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보통교과 편제표(계열 교과 제외)

교과(군)	공통과목 (기초소양)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Ⅱ,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기본수학1 기본수학2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영어Ⅰ, 영어Ⅱ,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기본영어1 기본영어2	영어 독해와 작문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통합사회1 통합사회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기술·가정 /정보		기술·가정	로봇과 공학세계, 생활과학 탐구	창의 공학 설계, 지식 재산 일반, 생애 설계와 자립, 아동발달과 부모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 베트남어 회화 심화 독일어, 심화 프랑스어, (…) 심화 베트남어	독일어권 문화, (…) 베트남 문화 *8개 언어 모두 각각의 회화/심화/문화 과목 포함
		한문	한문 고전 읽기	언어생활과 한자
체육		체육1, 체육2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생활1, 스포츠 생활2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와 창작,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
교양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삶과 종교, 보건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수능 출제 과목 / 성취평가제 실시 과목

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주요 변경사항

수학과 과학 교과목을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에서 과목명 변경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교과는 수학Ⅰ이 대수로, 수학Ⅱ가 미적분Ⅰ으로, 그리고 미적분은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으로 바뀌면서 미적분Ⅱ로 과목명이 변경되었다. 수학과제탐구는 융합선택과목으로 변경되고, 직무수학이 진로선택과목에 추가되었다. 과학교과는 과학Ⅰ과 과학Ⅱ에서 Ⅰ과 Ⅱ 구분을 폐지하고, 과학Ⅰ(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을 과학(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과학Ⅱ를 과목별로 두 과목으로 나눴다.

<표 Ⅱ-4> 수학, 과학 보통교과

교과(군)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2015	2022	2015	2022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	- 기하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수학과제 탐구	미적분Ⅱ 기하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수학
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목명 변경에 따라 과목명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학, 과학 교과목의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3)]

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index.cs),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별책9] 과학과 교육과정.

<표 Ⅱ-5>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 교과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의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핵심 개념/내용 요소	구분	교과목	핵심 개념/내용 요소
일반선택과목	수학Ⅰ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일반선택과목	대수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수학Ⅱ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계수,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미적분Ⅰ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계수,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확률의 뜻과 활용, 조건부 활용, 확률분포, 통계적 추정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확률의 개념과 활용, 조건부확률, 확률분포, 통계적 추정
	미적분	수열의 극한, 급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	-
진로선택과목	-	-	진로선택과목	미적분Ⅱ	수열의 극한, 급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기하	이차곡선, 벡터의 연산, 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직선과 평면, 정사영, 공간좌표		기하	이차곡선,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의 연산, 벡터의 성분과 내적, 도형의 방정식
	경제 수학	경제지표, 환율, 세금, 이자와 원리합계, 연속복리, 연금, 함수와 경제현상, 함수의 활용, 미분, 미분과 경제		경제 수학	수와 생활경제, 수열과 금융, 함수와 경제현상, 함수의 활용, 행렬과 경제 현상, 행렬의 활용, 미분과 경제, 미분의 활용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텍스트자료의 표현, 이미지 자료의 표현, 자료의 분류, 경향성과 예측, 최적화와 의사결정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텍스트 데이터 표현, 텍스트 데이터 분석, 이미지 데이터 표현, 이미지 데이터 분석, 경향성과 예측, 최적화, 합리적 의사결정, 인공지능과 수학 탐구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핵심 개념/내용 요소	구분	교과목	핵심 개념/내용 요소
	-	-		직무 수학	수와 사칙연산, 단위 환산, 비율과 백분율, 규칙성과 변화, 식과 문제해결, 도형의 관찰과 표현, 도형의 측정, 경우의 수와 가능성, 자료의 정리와 해석
	수학 과제 탐구	수학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 과제탐구 방법과 절차, 연구윤리, 탐구 주제 선정/계획수립/수행/결과 정리 및 발표, 반성 및 평가		-	-

<표 Ⅱ-6> 2015와 2022 개정교육과정 과학 교과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의 비교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핵심개념/내용요소	구분	교과목	핵심개념/내용요소
일반 선택 과목	물리학Ⅰ	동시성, 질량-에너지 등가성, 뉴턴 운동 법칙, 운동량 보존,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원자와 전기력, 에너지 준위, 고체의 에너지띠, 전기 전도성,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물질의 자성, 전자기 유도, 내부 에너지, 열효율, 파동의 요소, 파동의 간섭,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일반 선택 과목	물리학	평형과 안정성, 뉴턴 운동 법칙,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열과 에너지 전환, 전기장과 전위차, 축전기, 자성체, 전류의 자기 작용, 전자기 유도, 중첩과 간섭, 굴절, 빛과 물질의 이중성, 에너지띠와 반도체, 광속 불변
	화학Ⅰ	물질의 구성입자, 화학결합, 화학반응, 에너지 출입		화학	화학의 유용성, 몰,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전기 음성도, 공유결합의 극성, 루이스 전자점식,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의 구조,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평형 상수, 평형의 이동, 몰 농도,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생명 과학Ⅰ	생명과학의 특성과 발달과정, 동물의 구조와 기능, 자극과 반응, 반어 작용, 생식, 유전, 진화와 다양성, 생태계와 상호작용		생명 과학	생명과학의 이해, 생명의 구성 단계, 물질대사와 에너지, 사람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대사성 질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개체군의 특성, 군집의 특성, 뉴런의 구조와 기능, 신경 자극의 전도와 시냅스 전달,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내분비계의 특성, 항상성 유지 원리, 선천적·후천적 면역·항원·항체 반응, 백신의 작용 원리, 염색체의 구조, DNA와 유전자, 생식 세포의 형성과 의의, 진화의 원리, 생물 분류 체계, 동물과 식물의 다양성과 계통수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핵심개념/내용요소	구분	교과목	핵심개념/내용요소
	지구 과학I	판구조론, 지구 구성물질, 지구의 역사, 해수의 성질과 순환, 대기의 운동과 순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별의 특성과 진화, 우주의 구조와 진화		지구 과학	해수의 성질, 표층 순환, 심층 순환, 수온과 염분, 일기 예보,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악기상, 용승과 침강, 남방진동,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요인, 퇴적구조와 퇴적암, 화성암, 변성작용과 변성암, 변동대, 지사 해석 방법, 상대연령과 절대연령,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국가지질공원, 태양계 모형, 행성의 겉보기 운동, 일식과 월식, 별의 물리량, 별의 진화와 H-R도, 은하의 구성과 분류, 우주의 팽창
진로 선택 과목	물리학 II	등가 원리, 중력 렌즈 효과, 블랙홀, 가속 좌표계,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 단진자 운동, 천체의 운동, 힘의 합성과 분해, 물체의 평형, 전하와 전기장, 전기력선, 정전기 유도, 유전 분극, 전기 저항,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기력선, 유도 기전력, 열의 일당량, 파동의 굴절과 간섭, 전자기파, 빛의 입자성, 입자의 파동성, 불확정성 원리	진로 선택 과목	역학과 에너지	벡터의 합성,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 역학적 에너지, 중력과 천체 운동, 탈출 속도, 등가 원리, 열의 이동, 이상 기체 법칙, 열역학 제1법칙, 열기관, 열역학 제2법칙, 탄성파, 투과와 반사, 도플러 효과, 간섭과 소음 제어, 정상파
				전자기와 양자	전기력선과 등전위면, 유전분극, 로런츠 힘, 유도기전력, 반도체 소자, 렌즈와 수차, 간섭과 회절, 편광, 광전효과, 레이저, 입자-파동 이중성, 확률 파동, 중첩, 터널 효과, 불확정성 원리, 핵융합
	화학 II	고체의 결정구조, 분자 간 상호작용, 액체의 성질, 용액의 농도, 묽은 용액의 총괄성,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상 기체 방정식, 분압, 화학 평형, 르샤틀리에 원리, 상평형 그림, 이온화 상수, 염의 가수분해, 완충용액, 반응 속도, 반응 속도식, 반감기, 활성화 에너지,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촉매, 효소 엔탈피, 열화학 반응식, 헤스법칙, 화학전지, 전기분해, 수소연료전지		물질과 에너지	이상 기체 방정식, 혼합 기체의 분압과 몰 분율, 액체의 분자 간 상호작용과 성질, 입자 배열에 따른 고체의 분류, 물의 성질과 수소 결합, 용액의 농도에 따른 증기압, 끓는점, 어는점 변화, 삼투 현상, 엔탈피와 열화학 반응식, 헤스 법칙, 엔트로피, 반응 속도의 표현과 의미, 반응 속도식, 1차 반응의 반감기, 활성화 에너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화학 반응의 세계	산과 염기의 정의와 성질, 이온화 상수와 산 염기의 세기, 약산과 약염기 수용액의 pH, 중화 적정 곡선, 염의 가수 분해, 완충 작용, 산화·환원 반응과 산화수, 산화·환원 반응식, 표준 환원 전위, 화학 전지, 전기 분해, 화학 전지의 유용성, 작용기와 반응, 고분자 물질, 신물질 개발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핵심개념/내용요소	구분	교과목	핵심개념/내용요소
	생명 과학II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 생명공학 기술의 원리와 사례, 생명공학 기술의 영향, 생명 윤리,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효소의 작용, 활성화 에너지, 기질 특이성,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 세포 소기관의 유기적 관계, 물질 수송,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 광계를 통한 명반응,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 미토콘드리아, 산화적 인산화, 화학 삼투, 산소 호흡과 발효, 전자 전달계, 유전자 발현과 발생, 유전체 구성과 유전자 구조, 반보존적 DNA복제, 전사와 번역, 유전자 발현과 조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전사 조절, 막 형성의 중요성,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진화, 진화의 증거와 원리, 종 분화, 3역 6계, 동물과 식물의 분류 체계, 생물 계통수		세포와 물질 대사	생명체의 구성 물질, 세포의 연구 방법, 세포 소기관의 유기적 관계,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세포막의 물질 수송, 물질대사, ATP,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효소의 작용, 효소의 종류, 효소의 이용,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기능, 세포호흡 과정, 발효,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 전자전달계,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관계
				생명의 유전	유전자와 유전 형질,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 다유전자유전, 사람의 유전병, DNA 구조와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증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체의 구성, DNA 복제 원리, 중심원리, 전사와 번역,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발생과 세포 분화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 생명공학기술 관련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과 이용, 생명공학기술의 활용과 생명윤리
	지구 과학II	원시 지구의 형성, 지구 내부 에너지, 지진파, 지구 내부 구조, 지구 중력 분포, 지구 자기장, 지질도의 기본 요소, 한반도의 지사, 한반도의 판구조 환경, 규산염 광물, 광물 식별, 암석의 조직, 광상, 자원 탐사, 지구의 자원, 변성암, 정역학 평형, 지형류, 천해파와 심해파, 조석, 해일, 쓰나미, 단열 변화, 편서풍 파동, 대기 안정도		지구 시스템 과학	지구의 탄생, 지권의 형성, 규산염 광물의 성질, 지진파, 지구 내부 구조, 판구조와 플룸, 에크만 수송, 지형류, 천해파와 심해파, 풍랑과 너울, 쓰나미, 폭풍 해일, 조석과 기조력, 태양복사, 지구복사, 열수지, 온실효과, 대기 안정도, 강수과정, 지균풍, 경도풍, 지상풍, 편서풍 파동, 제트류
				행성 우주 과학	태양계의 구성 천체, 우주탐사, 우주 위험 감시, 케플러 법칙, 신기술 망원경, 외계 행성계, 생명 가능지대, 태양 활동, 태양 및 천체 관측, 거리지수, 별자리, 쌍성계, 질량-광도 관계, 변광성, 초신성, 성간 티끌, 성간 소광, 세페이드 변광성, 은하의 회전과 질량, 암흑 물질, 전천 탐사, 우주 거대 구조

2.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입시환경 변화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2023년 12월 말경 발표하였다.[4]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통합형 수능 개편 방안과 내신 5등급 개편 방안이 담겨 있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수능은 과목·점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여 융합형 학습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가 폐지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가 사회, 과학 탐구 2개 모두 동일하게 응시하여야 한다. 대입전형 활용 등을 고려한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한다. 시안에 포함되었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과학 관련 선택과목은 확정안에 최종 수능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능 시험의 범위가 축소되어 기존의 수능 축소 기조를 유지하였다. 사회와 과학탐구는 2~3학년에 선택하여 배우는 선택과목보다 위계가 낮은 1학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범위로 하고 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가 필수 범위로 지정되어 과목 수에 변화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많은 미적분Ⅱ와 기하가 출제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수능 시험의 범위는 단일화되었다. 현행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결합한 선택형 수능 방식이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공통과목만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탐구 영역(직업 탐구 제외)은 사회와 과학 교과 총 17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현행 체제와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 수능 시험 범위의 단일화로 선택형 수능이 지닌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과목 쏠림의 문제, 문/이과 쏠림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의 모든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단일 서열화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부 영역은 절대평가, 일부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어 과목 간 학습 균형성을 해치고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5]

4) 교육부(2023).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 보도자료(2023. 12. 27.)
5) 박민규, 정환, 김삼열, 천명선, 조상훈, 정석오(2024). 대학 입시 및 고교교육 체제 변화를 반영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과제.

<표 Ⅱ-7>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확정안(요약)

적용 / 영역		현행 (2022학년도 ~ 2027학년도 수능)	개편안 (2028학년도 수능 ~)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 1 · 공통: 독서, 문학 ·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 1 · 공통: 수학Ⅰ, 수학Ⅱ ·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 · 영어Ⅰ, 영어Ⅱ	공통 ·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 · 한국사	공통 · 한국사
탐구	사회 · 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 2 · 사회(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과학(8과목):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사회: 공통 · 통합사회 과학: 공통 · 통합과학
	직업	1과목: 5과목 중 택 1 2과목: 공통 + [1과목]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직업: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 제2외국어/한문(9과목)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 1 · 제2외국어/한문(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나. 내신 5등급제 도입, 성취도 병기

2025년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고교 내신 체계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된다.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처음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고등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된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 확대 등의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6] 이전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졸업 기준이 출석일 수로 결정하는 데 반해, 고교학점제에서는 누적된 이수학점의 양이 졸업 기준이 된다. 종전에 수업량을 나타내는 '단위'의 개념을 '학점'으로 전환한 것이다. 과목 이수 기준은 성취율 40% 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 요건을 갖춘다. 졸업 요건으로 누적 학점을 제시한 점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며 스스로 적성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즉 고교학점제는 선택형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 장치이며 이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고교 내신 평가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내신 5등급 체제로 전면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1·2·3학년을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하고, 9등급제를 5등급제[*1등급(10%) - 2등급(24%, 누적 34%) - 3등급(32%, 누적 66%) - 4등급(24%, 누적 90%) - 5등급(10%, 누적 100%)]로 개편하여,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학습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전 학년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한다.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며, 대학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 자율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표준편차는 미제공). 다만,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6) 교육부(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1. 2. 17.).

성취도만 기재한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석차등급제 평가와 연계하지 않고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하여 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한다.

교육부는 2025년 1월에 추가적으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자료 변경사항 안내」를 발표하였다.[7] 2025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2028학년도 대입에서 최초 반영)된다. 즉, 「2028 대입제도 개편안(’ 23.12.)」을 반영, 대학에 다양한 성적・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자율성 제고 지원을 위해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가 변경된다. 고교학점제 및 내신 5등급제 전면 적용에 따라 내실 있는 학생부위주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과목별 평가 정보 및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첫째, 과목별 평가 정보인 지필평가-수행평가 비중, 수행평가 영역명, 성취도별 분할점수가 대입전형자료로 추가 제공된다. 둘째, 과목 개설 유형1(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 과목 이수 상황2(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미이수, 대체이수 등), 학적 변동(편입・전학 등)으로 인한 이수과목 차이 등 운영상 특이사항이 대입전형자료로 추가 제공된다.

<표 Ⅱ-8>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대입전형자료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추가 자료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비고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	*교육과정 편성 현황 *과목별 평가 정보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	
체육·예술/ 과학탐구실험	○	A·B·C	-	-	-	-	○	
교양	○	P	-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	

7) 교육부(2025).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자료 변경사항 안내」(2025.1.17.)

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모집 현황[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하였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국 총 모집인원은 345,179명이고,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한다.

<표 Ⅱ-9> 전체 대학 총 모집인원

(단위: 명)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총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2026 학년도	246,644	29,204	275,848	65,304	4,027	69,331	311,948	33,231	345,179
2025 학년도	242,884	28,597	271,481	65,635	3,818	69,453	308,519	32,415	340,934

8) 교육부(2024).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2024.5.3.).

<표 Ⅱ-10> 모집시기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6학년도(A)		2025학년도(B)		증감(C)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C)=(A)-(B)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55,495	45.0%	154,475	45.3%	1,020	-0.3%p
	학생부위주(종합)	81,373	23.6%	78,924	23.1%	2,449	0.5%p
	논술위주	12,559	3.6%	11,266	3.3%	1,293	0.3%p
	실기/실적위주	21,865	6.3%	22,531	6.6%	-666	-0.3%p
	기타	4,556	1.3%	4,285	1.3%	271	0.0%p
수시 소계		275,848	79.9%	271,481	79.6%	4,367	0.3%p
정시	수능위주	63,902	18.5%	63,827	18.7%	75	-0.2%p
	실기/실적위주	4,726	1.4%	5,224	1.5%	-498	-0.1%p
	학생부위주(교과)	317	0.1%	174	0.1%	143	0.0%p
	학생부위주(종합)	219	0.1%	183	0.1%	36	0.0%p
	기타	167	0.0%	45	0.0%	122	0.0%p
정시 소계		69,331	20.1%	69,453	20.4%	-122	-0.3%p
합계		345,179	100.0%	340,934	100%	4,245	0.0%p

* 전형유형별 선발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전형별 선발비율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026학년도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28.9%)이 교과전형(20.8%)보다 선발인원이 많은데 비해 비수도권은 학생부교과전형(60.3%)이 종합전형(20.2%)보다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은 수도권(8.2%)이 많고, 비수도권(0.8%)은 적다. 정시 수능전형은 수도권(32.5%)이 비수도권(9.6%)보다 많이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1> 권역별 모집시기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단위: 명)

모집시기	권역	전형유형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수시	수도권	학생부위주(교과)	25,133	2,745	27,878	25,113	2,693	27,806
		학생부위주(종합)	32,912	5,758	38,670	32,416	5,451	37,867
		논술위주	10,893	45	10,938	9,740	38	9,778
		실기/실적위주	7,740	130	7,870	7,851	390	8,241
		기타		2,097	2,097	1	2,153	2,154
	수도권 소계		76,678	10,775	87,453	75,121	10,725	85,846
	비수도권	학생부위주(교과)	116,490	11,127	127,617	116,232	10,437	126,669
		학생부위주(종합)	37,722	4,981	42,703	35,753	5,304	41,057

모집시기	권역	전형유형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논술위주	1,606	15	1,621	1,473	15	1,488
		실기/실적위주	13,735	260	13,995	14,101	189	14,290
		기타	413	2,046	2,459	204	1,927	2,131
	비수도권소계		169,966	18,429	188,395	167,763	17,872	185,635
수시 소계			246,644	29,204	275,848	242,884	28,597	271,481
정시	수도권	수능위주	40,023	3,486	43,509	39,685	3,432	43,117
		실기/실적위주	2,584	43	2,627	2,939	48	2,987
		학생부위주(교과)	76	5	81	17	5	22
		학생부위주(종합)	10	75	85	60	69	129
		기타		23	23	-	25	25
	수도권 소계		42,693	3,632	46,325	42,701	3,579	46,280
	비수도권	수능위주	20,225	168	20,393	20,554	156	20,710
		실기/실적위주	2,099	0	2,099	2,231	6	2,237
		학생부위주(교과)	194	42	236	139	13	152
		학생부위주(종합)	17	117	134	-	54	54
		기타	76	68	144	10	10	20
	비수도권 소계		22,611	395	23,006	22,934	239	23,173
	정시소계		65,304	4,027	69,331	65,635	3,818	69,453
합계			311,948	33,231	345,179	308,519	32,415	340,934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으로는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13,086명을 선발한다.

<표 Ⅱ-12>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

(단위: 명, 2024. 4. 30 기준)

구분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증감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10,985	27,215	38,200	10,948	26,476	37,424	776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	13,086	-	13,086	13,267	-	13,267	-181
소계	24,071	27,215	51,286	24,215	26,476	50,691	595
※ 계약학과 선발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균형선발 인원 제외							

Ⅲ. 실태조사

1. 설문조사·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이번 조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먼저 전국 고등학교 중 500개교를 임의로 추출하였으며, 표본으로 선택된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계 고등학교와 교육과정이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는 표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으로 선택된 500개 고등학교의 소재지와 유형별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대학의 경우는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2개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표 Ⅲ-1> 표본으로 선택된 고등학교 현황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	194	38.8
	강원권	17	3.4
	충청권	61	12.2
	전라권	69	13.8
	경상권	154	30.8
	제주	5	1.0
고교 유형	일반고	430	86.0
	자율고	40	8.0
	외고/국제고	20	4.0
	과학고	10	2.0

설문조사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학의 경우 응답률이

낮아 조사 기간을 1주일 연장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내용 URL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한 뒤 응답자가 인터넷으로 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 문항을 포함하여 인구통계학적 조사항목까지 모두 마친 경우는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이중 일부라도 답하지 않으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고교 교사 535명과 대학 입학사정관 195명이었으나, 이중 응답을 끝까지 마쳐 분석에 사용한 경우는 각각 534명과 182명이었다.

2) 응답 특성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교사 534명의 특성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설문 응답 현황: 고등학교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	254	47.6
	강원권	12	2.2
	충청권	58	10.9
	전라권	68	12.7
	경상권	138	25.8
	제주권	4	0.7
고교 유형	일반고	483	90.4
	자공고	19	3.6
	자사고	13	2.4
	특목고	19	3.6
설립유형	국·공립	316	59.2
	사립	218	40.8
교직 경력	10년 미만	110	20.6
	10년 ~ 20년	205	38.4
	20년 ~ 30년	172	32.2
	30년 이상	47	8.8
담당 직무	교육과정 담당	64	12
	진로진학 담당	131	24.5
	3학년부 담당	271	50.7
	기타	68	12.7

지역적으로 수도권 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25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7.6%를 차지하였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12명(2.2%)과 4명(0.7%)으로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등학교 유형별 분포를 보면 일반고가 483명(90.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설립유형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국·공립고교가 316명(59.2%)이 응답하였다. 근무경력을 보면 10년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교사가 20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8.4%를 차지하였다. 담당직무로 구분해 보면 교육과정 담당자가 64명(12.0%), 진로진학 담당이 131명(24.5%), 3학년부 담당이 271명(50.7%)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의 입학사정관 182명의 특성은 <표 Ⅲ-3>과 같다. 지역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139명(76.4%)으로 다수이며, 경상권 22명(12.1%), 충청권 15명(8.2%)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대학의 모집 규모로는 3천 명 이상의 대학에 재직 중인 경우가 88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대학 소속이 167명(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근무경력으로는 5년에서 10년 경력자가 5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0.2% 정도였으며, 10년 이상 근무자도 58명(31.9%)이 응답하였다.

<표 Ⅲ-3> 설문 응답 현황: 대학

구분	세부 항목	N	%
지역	수도권	139	76.4
	강원권	6	3.3
	충청권	15	8.2
	경상권	22	12.1
학년 당 모집규모	1,000명 미만	8	4.4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31	17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55	30.2
	3,000명 이상	88	48.4
설립유형	국·공립	15	8.2
	사립	167	91.8
근무경력	2년 미만	25	13.7
	2년 이상 ~ 5년 미만	44	24.2
	5년 이상 ~10년 미만	55	30.2
	10년 이상	58	31.9

이번 조사는 일부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이 5점 척도 같은 범주형 변수로 조사되었다. 범주형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밝히는 데 활용되는 유의성 검정 방법은 적절한 표본 수를 요구한다. 집단의 분류가 너무 세부적이어서 집단의

수가 많아지면 각 집단에 속한 표본 수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번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 분석이 필요한 경우 유의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초에 조사된 집단 중 일부를 통합하여 활용한다.

고등학교 조사 결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 시 고교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응답한 자공고와 자사고, 특목고는 자율고/특목고로 통합하여 분류한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표본 불균형이 심해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며, 교직 경력은 10년을 단위로 세 개 집단으로 나눈다. 설립유형은 최초 조사 자료가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여 원자료 형태인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담당 직무도 직무 구분에 따라 비교적 적정한 표본 수가 확보되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다시 분류하면 응답자 534명의 주요 항목별 특성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집단 재분류: 고등학교

구분	항목	N	%
지역	수도권	254	47.6
	기타	280	52.4
고교 유형	일반고	483	90.4
	자율고/특목고	51	9.6
설립유형	국·공립	316	59.2
	사립	218	40.8
교직 경력	10년 미만	110	20.6
	10년 ~ 20년	205	38.4
	20년 이상	219	41
담당 직무	교육과정 담당	64	12
	진로진학담당	131	24.5
	3학년부 담당	271	50.7
	기타	68	12.7

고등학교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사정관의 조사 결과도 조사된 집단 중 일부를 통합 후 재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지역적 특성은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 고등학교와 같이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며, 근무경력은 5년을 단위로 세 개 집단으로 나눈다. 대학의 규모는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1천명 단위로 구분하며, 설립유형은 더 이상 통합할 수 없어 원자료 형태인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다만, 이

러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설립유형 등과 같은 특성은 응답자 비중에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다시 분류하면 응답자 182명의 주요 항목별 특성은 <표 Ⅲ-5>와 같다.

<표 Ⅲ-5>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집단 재분류: 대학

구분	항목	N	%
지역	수도권	139	76.4
	기타	43	23.6
설립유형	국·공립	15	8.2
	사립	167	91.8
학년 당 모집규모	2,000명 미만	39	21.4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55	30.2
	3,000명 이상	88	48.4
근무경력	5년 미만	69	37.9
	5년 이상 ~ 10년 미만	55	30.2
	10년 이상	58	31.9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경우 검정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5점 척도로 조사한 반응 변수의 경우는 가능한 한 3개 범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전혀 적합하지 않음' 부터 '매우 적합함' 까지 5개 범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음' 과 '적합하지 않음' 응답을 하나로 묶고, '적합함' 과 '매우 적합함' 응답을 다른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대입전형 개선 연구 목적에 맞게 현재 대입제도의 틀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시기적으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뉘며,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위주, 논술위주, 실기/실적위주, 수능위주로 구분하고 있다. 학생부위주는 다시 학생부교과전형(이하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으로 구분하며, 수능위주전형의 경우 정시모집을 통해서만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기/실적위주의 경우 현재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모집을 하더라도 대부분 예체능 위주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한다.

설문지는 크게 학생부위주인 교과전형과 학종, 논술위주, 수능위주 등 전형과 관련된

네 개 영역과 전형 전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네 개의 전형과 관련된 설문은 전형의 적정 모집 규모, 전형요소의 활용, 전형의 일반적 운영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마지막 영역인 전형 전반에 대한 인식에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적정 모집 비율, 각 전형유형의 확대 여부를 포함하여 현재 대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조사한다.

설문지는 2023년 12월에 공포한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을 기본으로 응답하도록 작성한다. 2028 대입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교과 체계도 현재의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 아니라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성적체계는 성취도와 5등급제를 기본으로 하며, 표준편차가 삭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데, 일부 과목의 범위가 축소되고 기존의 선택형 수능이 폐지된다.

이제 대입은 고등학교나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된 이후 대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시모집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는데 고등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학이 향후 전형을 설계하는 데 고등학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등학교도 선발과 관련된 대학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고등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다. 두 집단이 바라보는 대입 전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제외한 일반적인 설문은 동일하게 구성한다. 이를 통해 대입을 바라보는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조사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대입전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와 각 설문 문항에 대한 통계는 <부록 1>과 <부록 2>를 참조하라.

1)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인식

2028학년도 대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대입에 적용되는 첫 해로 교육과정 자체가 변경되는 것과 더불어 내신 체계도 변화한다.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내신 체계는 기존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며, 대부분의 과목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될 예정이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한다. 또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와 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성취도만 기재한다. 또한, 모든 과목에서 원점수와 평균은 제공하나 표준편차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성적체계의 변화는 기존 교과전형의 평가체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 전형의 규모에 대한 인식

2024년 4월 발표된 대교협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2026학년도의 교과전형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45.0%로 2025학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권역별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교과전형 비중이 전체 모집인원의 20.8%인데 반해, 비수도권의 교과전형 비중은 60.4%로 두 권역 간에 모집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전형의 적정 규모를 30.8%로 보고 있으며, 대학은 약 23.9%가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이러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값[9]=0.0000). 고등학교의 경우 수도권 교사가 적정 규모를 27.4%로 답한데 반해, 비수도권 교사는 33.9%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여 비수도권 교사가 교과전형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값=0.0000). 이러한 응답 경향은 대학의 입학사정관도 비슷해서 수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경우 교과전형의 적정 규모를 19.4%로 본데 반해, 비수도권의 입학사정관은 38.4%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p-값=0.0000).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수도권 대학은 대교협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으나,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실제 교과전형 비중이 전체 모집인원의 약 60%이었으나 입학사정관이 생각하는 적정 규모는 40%에 미치지 못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 p-값(p-value):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서 가설검정의 유의성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유의수준(α)과 비교하여 유의성을 판단함. 유의수준(α)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함

나) 교과성적 정량화에 대한 인식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등 3개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과전형의 교과성적 정량화 관점에서 이들 과목군의 적정한 반영 비중과 교과성적을 정량화하는데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조사한다.

(1) 과목별 반영 비중

과목별 교과성적 정량화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Ⅲ-6>과 같다. 설문지에서 볼 수 있듯이 4개 과목의 반영비율 합이 100이 되도록 요구하여, 전체 응답자 중 과목 비중 합계가 100으로 응답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한다.

<표 Ⅲ-6> 교과성적 정량화 시 과목별 반영 비중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공통과목	502	36.31	11.17	169	36.09	10.88
일반선택과목	502	30.05	7.43	169	30.06	7.07
진로선택과목	502	20.85	7.3	169	21.01	7.06
융합선택과목	502	12.79	6.31	169	12.84	6.29

<표 Ⅲ-6>의 결과에서 보듯이 교사의 경우 교과성적을 정량화하는데 공통과목(36.3%), 일반선택과목(30.1%), 진로선택과목(20.9%), 융합선택과목(12.8%) 순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응답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성적을 정량화하는 경우 공통과목의 반영 비중은 대체로 35% 정도가 적절하고, 선택과목은 65%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택과목의 경우 일반선택과목의 반영 비중은 약 30%, 진로선택과목은 약 20%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는 융합선택의 비중은 대략 15%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석차등급(5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성

교사들의 교과성적 정량화 시 각 과목군 석차등급과 성취도의 적합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Ⅲ-7>과 같다. ‘적합함’과 ‘매우 적합함’을 긍정반응으로, ‘적합하지 않음’과 ‘전혀 적합하지 않음’을 부정반응으로 보았을 때, 석차등급과 성취도는 네 개 과목에서 모두 긍정반응이 부정반응에 비해 높다. 특히,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의 경우 긍정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인 반면, 부정반응은 20%에 미치지 못해 긍정반응이 3배 이상 높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석차등급의 긍정반응이 성취도의 긍정반응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나,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등급을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석차등급과 성취도의 긍정반응이 각각 50.7%와 51.5%로 큰 차이가 없으나, 석차등급의 부정반응이 27.7%로 성취도의 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융합선택과목은 성취도의 긍정반응(46.6%)이 석차등급 긍정반응(40.2%)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부정반응에서도 석차등급(33.2.%)이 성취도(23.2%)보다 10%p 가량 높게 나타나, 융합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취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7>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공통과목	석차등급	N	28	67	88	225	126	534
		%	5.2	12.5	16.5	42.1	23.6	100
	성취도	N	33	91	143	190	77	534
		%	6.2	17	26.8	35.6	14.4	100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N	26	74	92	225	117	534
		%	4.9	13.9	17.2	42.1	21.9	100
	성취도	N	34	83	156	191	70	534
		%	6.4	15.5	29.2	35.8	13.1	100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N	53	95	115	180	91	534
		%	9.9	17.8	21.5	33.7	17	100
	성취도	N	40	74	145	195	80	534
		%	7.5	13.9	27.2	36.5	15	100
융합선택과목	석차등급	N	80	97	142	148	67	534
		%	15	18.2	26.6	27.7	12.5	100
	성취도	N	49	75	161	170	79	534
		%	9.2	14	30.1	31.8	14.8	100

입학사정관의 각 과목군의 석차등급과 성취도 적합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입학사정관도 석차등급과 성취도의 적합도가 네 개 과목에서 모두 긍정반응이 부정반응에 비해 높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석차등급의 긍정반응이 성취도의 긍정반응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나,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등급을 더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의 경우 석차등급의 긍정반응이 성취도보다 높으나,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석차등급에 대한 긍정반응이 성취도보다 높으며,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은 석차등급과 성취도의 긍정반응이 큰 차이가 없다.

<표 Ⅲ-8>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공통과목	석차등급	N	8	37	50	67	20	182
		%	4.4	20.3	27.5	36.8	11	100
	성취도	N	10	37	76	52	7	182
		%	5.5	20.3	41.8	28.6	3.8	100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N	7	40	47	69	19	182
		%	3.8	22	25.8	37.9	10.4	100
	성취도	N	9	33	79	53	8	182
		%	4.9	18.1	43.4	29.1	4.4	100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N	7	29	58	71	17	182
		%	3.8	15.9	31.9	39	9.3	100
	성취도	N	7	21	79	61	14	182
		%	3.8	11.5	43.4	33.5	7.7	100
융합선택과목	석차등급	N	8	29	70	60	15	182
		%	4.4	15.9	38.5	33	8.2	100
	성취도	N	8	20	83	59	12	182
		%	4.4	11	45.6	32.4	6.6	100

교과성적 정량화 지표인 석차등급과 성취도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9>와 같다. 교과성적 정량화 지표에 대한 인식에서 조사한 모든 항목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들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에 대한 긍정반

응이 60%를 초과한데 반해, 이들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은 모두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교사는 석차등급과 성취도에 대한 긍정반응에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석차등급에 대한 긍정반응이 성취도에 대한 긍정반응보다 높다. 반면에, 융합선택과목의 경우 입학사정관은 석차등급과 성취도에 대한 긍정반응에 큰 차이가 없는 데 반해, 교사는 성취도에 대한 긍정반응이 석차등급의 긍정반응보다 높다.

<표 Ⅲ-9 >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공통과목	석차등급	716	2	18.98	0.0001**
	성취도	716	2	19.56	0.0001**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716	2	14.06	0.0009**
	성취도	716	2	15.54	0.0004**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716	2	9.48	0.0087**
	성취도	716	2	16.84	0.0002**
융합선택과목	석차등급	716	2	13.95	0.0009**
	성취도	716	2	15.2	0.0005**

다) 정성평가 도입에 대한 인식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적체계는 석차등급(5등급)과 성취도를 기본으로 한다. 과목별 원점수와 평균을 제공하나 표준편차는 제공되지 않아 교과성적 정량화에 원점수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 교과성적의 정량화는 석차등급과 성취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은 교과성적의 변별력 하락과 동점자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교과전형에서 예상되는 동점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 전형요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교과전형의 동점자 처리를 위해 도입 가능한 전형요소는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교과전형에 도입 가능한 전형요소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전형요소로 서류평가 추가 도입
2)	전형요소로 면접평가 추가 도입
3)	전형요소로 서·논술형 평가 추가 도입
4)	동점자 처리를 위해 원점수(평균 포함)를 활용한 정량화 도입
5)	동점자 처리를 위해 수능 등급을 활용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경우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오랫동안 많은 대학에서 시행한 전형요소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두 가지 방식 외에 세 가지 방법을 추가해서 조사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목표 중 하나인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것과,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아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점수(평균 포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수시모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능성적(등급)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다. 현재 수시모집에서 수능등급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동점자 처리로 제한할 경우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과전형 동점자 처리 방안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11>과 같다. 교사는 면접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80.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서류평가(72.3%), 수능등급 활용(71.7%) 순으로 높다. 면접평가와 서류평가, 수능등급 활용에 대해서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반해, 서·논술형 도입(30.7%)과 원점수(평균 포함) 활용(41.0%) 등은 긍정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반응이 46.9%로 긍정반응보다 15%p 이상 높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표 Ⅲ-11> 교과성적 동점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29	51	68	228	158	534
	%	5.4	9.6	12.7	42.7	29.6	100
2)	N	14	34	58	246	182	534
	%	2.6	6.4	10.9	46.1	34.1	100
3)	N	105	145	120	111	53	534
	%	19.7	27.2	22.5	20.8	9.9	100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4)	N	67	111	137	152	67	534
	%	12.5	20.8	25.7	28.5	12.5	100
5)	N	25	39	87	212	171	534
	%	4.7	7.3	16.3	39.7	32	100

입학사정관의 교과전형 동점자 처리 방안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12>와 같다.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63.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수능등급 활용(59.4%), 원점수(평균 포함) 활용(56.6%) 순으로 높다. 교사들이 80% 이상 긍정반응을 보인 면접평가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은 46.1%만이 긍정반응을 보여 차이가 있다.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도 19.2%만이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60.4%)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 Ⅲ-12> 교과성적 동점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9	25	32	87	29	182
	%	4.9	13.7	17.6	47.8	15.9	100
2)	N	13	31	54	73	11	182
	%	7.1	17	29.7	40.1	6	100
3)	N	37	73	37	33	2	182
	%	20.3	40.1	20.3	18.1	1.1	100
4)	N	8	24	47	81	22	182
	%	4.4	13.2	25.8	44.5	12.1	100
5)	N	11	16	47	88	20	182
	%	6	8.8	25.8	48.4	11	100

교과전형의 동점자 처리를 위해 추가로 도입 가능한 전형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교과성적 정량화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4.87	0.0878
2)	716	2	77	0.0000**
3)	716	2	11.73	0.0028**
4)	716	2	18.81	0.0001**
5)	716	2	10.49	0.0053**

교과전형의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전형요소로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방식의 도입에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류평가 도입의 경우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60%를 초과하는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부정반응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는 80.2%가 긍정반응을 보인 반면,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은 50%에 미치지 못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논술형의 경우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부정반응이 우세했는데 교사가 46.9%인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60.4%가 부정반응을 보였다. 원점수(평균 포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56.6%)이 교사의 긍정반응(41.0%)보다 높다. 수능등급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긍정반응(71.7%)로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59.4%)보다 높아, 고교 현장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과전형에 정량화된 교과성적 외에 서류평가나 면접평가 등과 같은 정성적 평가요소를 도입할 경우, 교과성적의 반영 비중에 대해 교사는 총점의 약 49.8%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교과성적의 적정 반영 비중이 약 47.2%로 응답하여 교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값 〈 0.1851). 현재 대입 기본사항에 따르면 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이 주 전형요소로서 역할을 하려면 전체 전형요소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교과성적의 비중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과전형의 교과성적 적정 반영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전형요소를 추가하는 것 외에 교과전형에 출결상황을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출결상황은 서류평가를 통해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비해, 교과전형에서 이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출결상황을 정량화하여 교과전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표 Ⅲ-14>와 같다.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83.7%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입학사정관도 64.8%가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사나 입학사정관 모두 출결상황을 정량화하여 반영하는 것에는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높다. 그러나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긍정반응이 20%p 정도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값=0.0000).

<표 Ⅲ-14> 출결상황 정량화 반영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고교	N	9	18	60	171	276	534
	%	1.7	3.4	11.2	32	51.7	100
대학	N	0	20	44	89	29	182
	%	0	11	24.2	48.9	15.9	100

라)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이번 연구에서는 교과전형에 서류평가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교과전형에 적절한 서류평가 방식이 무엇인지 조사하며, 조사에 사용한 서류평가 방식은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교과전형에 도입 가능한 서류평가 방식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2)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고등학교 교사들의 서류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16>과 같다. 교사는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81.4%로 가장 높으며, 학종 방식의 종합평가(62.2%)와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61.6%)에 대한 긍정반응은 큰 차이가 없다.

<표 Ⅲ-16>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29	55	118	211	121	534
	%	5.4	10.3	22.1	39.5	22.7	100
2)	N	14	14	71	257	178	534
	%	2.6	2.6	13.3	48.1	33.3	100
3)	N	24	44	137	211	118	534
	%	4.5	8.2	25.7	39.5	22.1	100

입학사정관의 서류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17>과 같다. 입학사정관도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73.6%로 가장 높다. 교사와는 달리 학종 방식의 종합평가에 대한 긍정반응은 38.5%로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65.3%)의 긍정반응보다 현저히 낮다.

<표 Ⅲ-17>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14	47	51	58	12	182
	%	7.7	25.8	28	31.9	6.6	100
2)	N	5	10	33	109	25	182
	%	2.7	5.5	18.1	59.9	13.7	100
3)	N	4	11	48	104	15	182
	%	2.2	6	26.4	57.1	8.2	100

교과전형에 적용 가능한 서류평가 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18>과 같다. 서류평가 방식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방식과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유의적인 인식의 차이가 없다. 반면에,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는 학종 방식의 서류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긍정반응을 보인 반면,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은 38.5%에 불과하다.

<표 Ⅲ-18>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36.81	0.0000**
2)	716	2	5.27	0.0719
3)	716	2	2.7	0.2593

마)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앞서 교과전형에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것과 같은 취지로 교과전형에 면접평가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교과전형에 적절한 면접평가 방식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면접평가 방식은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교과전형에 도입 가능한 면접평가 방식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고등학교 교사들의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20>과 같다. 교사는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81.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69.1%)이 높아 대체로 확인면접 방식에 긍정반응이 높았다.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방식이나 의사소통능력 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은 각각 49.6%와 50.0%로 부정반응보다는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확인면접 방식보다는 낮았다.

<표 Ⅲ-20>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59	87	123	179	86	534
	%	11	16.3	23	33.5	16.1	100
2)	N	48	78	141	196	71	534
	%	9	14.6	26.4	36.7	13.3	100
3)	N	24	35	106	218	151	534
	%	4.5	6.6	19.9	40.8	28.3	100
4)	N	10	18	72	242	192	534
	%	1.9	3.4	13.5	45.3	36	100

입학사정관의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21>과 같다. 입학사정관도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59.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제시문 기반의 학업역량 평가 면접에 대한 긍정반응이 53.3%로 높아 교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의 경우 긍정반응이 29.7%로 부정반응(33.5%)보다 낮으며, 학생부를 활용한 확인면접에 대한 긍정반응도 38.5%로 부정반응(35.2%)과 큰 차이가 없다.

<표 Ⅲ-21>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14	30	41	81	16	182
	%	7.7	16.5	22.5	44.5	8.8	100
2)	N	15	46	67	52	2	182
	%	8.2	25.3	36.8	28.6	1.1	100
3)	N	14	50	48	58	12	182
	%	7.7	27.5	26.4	31.9	6.6	100
4)	N	8	16	50	89	19	182
	%	4.4	8.8	27.5	48.9	10.4	100

교과전형에 적용 가능한 면접평가 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22>와 같다. 면접평가 방식으로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 면접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50% 정도의 긍정반응을 보여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유의적인 인식에 차이가 없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활용한 면접평가 방식에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긍정반응이 높았으나, 교사의 긍정반응이 81.3%로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59.3%)보다 월등히 높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제시문 기반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방식과 학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면접 방식에는 교사보다 현저히 낮은 긍정반응을 보였다.

<표 Ⅲ-22>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0.89	0.6410
2)	716	2	22.69	0.0000**
3)	716	2	69.42	0.0000**
4)	716	2	36.01	0.0000**

바) 기타 교과전형 운영에 대한 인식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교과전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며, 조사 내용은 <표 Ⅲ-23>과 같다.

<표 Ⅲ-23> 교과전형 운영 방식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2)	학교장 추천제 적용
3)	학교별 지원 인원 제한
4)	교과성적 체계 변화에 따른 졸업생 지원 제한
5)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별 최소 이수과목 수(또는 이수학점) 지정

교과전형 운영방식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24>와 같다.

<표 Ⅲ-24> 교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4	7	38	242	243	534
	%	0.7	1.3	7.1	45.3	45.5	100
2)	N	48	64	157	191	74	534
	%	9	12	29.4	35.8	13.9	100
3)	N	58	100	151	174	51	534
	%	10.9	18.7	28.3	32.6	9.6	100
4)	N	23	88	121	185	117	534
	%	4.3	16.5	22.7	34.6	21.9	100
5)	N	14	36	118	247	119	534
	%	2.6	6.7	22.1	46.3	22.3	100

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0.8%가 긍정반응을 보인 반면, 부정반응은 2.0%에 불과하다. 학교장 추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긍정반응(49.7%)이 부정반응(21.0%)보다 높으나, 긍정반응이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지원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이 42.2%로 조사한 다섯 개 쟁점 중 긍정반응 비중이 가장 낮다. 졸업생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는 56.5%의 응답자가 긍정반응을, 20.8%가 부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목별 최소 이수 과목 수(또는 이수학점)를 지정하는 방안에는 68.6%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 9.3%보다 7배 이상 높다.

교과전형 운영방식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25>와 같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6.9%가 긍정반응을 보인 반면, 부정반응은 1.1%에 불과하다. 학교장 추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긍정반응(44.5%)이 부정반응(25.3%)보다 높으나, 역시 긍정반응이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지원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이 31.3%로 조사한 다섯 개 쟁점 중 긍정반응이 가장 낮다. 졸업생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는 49.5%의 응답자가 긍정반응을, 26.9%가 부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택과목별 최소 이수 과목 수(또는 이수학점)를 지정하는 방안에는 57.2%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 14.8%보다 40%p 이상 높다.

<표 Ⅲ-25> 교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0	2	26	99	55	182
	%	0	1.1	14.3	54.4	30.2	100
2)	N	8	38	55	70	11	182
	%	4.4	20.9	30.2	38.5	6	100
3)	N	24	51	50	49	8	182
	%	13.2	28	27.5	26.9	4.4	100
4)	N	8	41	43	64	26	182
	%	4.4	22.5	23.6	35.2	14.3	100
5)	N	3	24	51	86	18	182
	%	1.6	13.2	28	47.3	9.9	100

교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26>과 같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긍정반응 비율이 높았으나,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더 높은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장 추천제를 적용하는 것과 졸업생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유의적인 인식의 차이가 없다. 학교별로 추천인원을 제한하는 것에는 입학사정관보다 교사의 긍정반응이 더 높으며, 선택과목별 최소 이수과목 수 또는 이수학점을 지정하는 것도 교사의 긍정반응이 더 높다.

<표 Ⅲ-26> 교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9.08	0.0107*
2)	716	2	1.90	0.3858
3)	716	2	9.70	0.0078**
4)	716	2	3.59	0.1658
5)	716	2	8.48	0.0144*

2)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인식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교육과정뿐 아니라 내신 체계도 변화한다. 내신 체계가 석차등급(5등급)과 성취도 병기로 바뀜에 따라 대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성적 정량화를 기본으로 하는 교과전형에 비해 변화의 폭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과정과 성적체계의 변화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이해하는 방향에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여기서는 학생부위주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규모와 수능최저기준의 적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전형의 규모에 대한 인식

2024년 4월 발표된 대교협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2026학년도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23.6%로 2025학년도보다 0.5%p 정도 상승했으나, 큰 변화는 없다.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수시모집 기준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8.9%인데 반해, 비수도권의 비중은 20.2%로 수도권의 모집 비중이 8%p 이상 높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경우 학종의 적정 규모를 39.1%로 보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은 약 38.5%가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는 학종의 적정 규모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값=0.5849). 교사의 경우 지역이나 설립유형, 담당업무, 고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값=0.0312). 10년 미만 근무한 교사의 경우 모집규모가 36.9%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10년에서 20년 이내 근무한 교사는 40.8%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대학의 설립유형과 대학의 규모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설립유형의 경우 국공립 소속 응답자의 수가 사립대학에 비해 현저히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의 규모가 2천명에서 3천명 사이일 경우 적정 규모가 34.5%인 반면, 3천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 근무하는 입학사정관은 학종의 적정 규모가 41.1%로 나타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그 밖에 대학 소재지역이나 근무연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인식

2028 대입제도 확정안은 내신 5등급제와 통합 수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교과등급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고, 수능은 수학과 탐구의 출제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학업역량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의 적합성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27>과 같다.

<표 Ⅲ-27>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고교	N	21	70	96	224	123	534
	%	3.9	13.1	18	41.9	23	100
대학	N	14	38	51	61	18	182
	%	7.7	20.9	28	33.5	9.9	100

교사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해 응답자의 64.9%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17.0%)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다. 교사들의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직무, 경력 등과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학사정관도 긍정반응이 43.4%로 부정반응 28.6%보다 높았으나, 긍정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종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더 긍정적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값=0.0000).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반응은 <표 Ⅲ-28>과 같다. 교사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적용에 대해 응답자의 80.7%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19.3%)보다 크게 높다. 교사들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직무, 경력 등과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학사정관도 긍정반응이 70.9%로 부정반응(29.1%)보다 높았다. 앞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적용 적합성에서 긍정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상향 적용 필요성에는 응답

자의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의 적합성과 마찬가지로 상향 필요성에서도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더 긍정적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p-값=0.0055).

<표 Ⅲ-28>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적용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고교	N	18	85	225	206	534
	%	3.4	15.9	42.1	38.6	100
대학	N	7	46	78	51	182
	%	3.8	25.3	42.9	28.0	100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평가요소(학생부와 수능 범위 축소 등) 감소로 인한 변별력 감소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에 동의 의사를 표현한 교사 중 약 43%, 입학사정관 중 약 46%가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수능이 최저학력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으로, 교사 중 약 37%, 입학사정관 중 약 41%가 동의하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별 내신의 차이로 인해 수능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학업역량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높다. 교사 중 약 38%, 입학사정관의 약 29%가 이런 이유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부 평가 등 다른 요소만으로도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교사 중 약 19%, 입학사정관 중 약 28% 정도가 이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변화된 수능이 학업역량을 평가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교사=19%, 입학사정관=18%)과, 학생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교사=12%, 입학사정관=26%)도 제시되었다. 교사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상향될 경우 사교육이 증가되어 공교육 내실화가 저해될 것이라는 의견도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났다.

다) 서류평가에 대한 인식

2021년 건국대 등 5개 대학은 공동연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평가요소로 학

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요소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조사한다. 먼저, 기존 평가요소의 적합성과 반영 비중을 살펴보고, 새로운 과목 체계가 학업역량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전공 이수에 필요한 권장과목의 필요성 등을 탐색해 본다.

(1) 평가요소의 적합성

고등학교 교사의 세 가지 평가요소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29>와 같다.

<표 Ⅲ-29> 평가요소 적합성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학업역량	N	1	4	38	222	269	534
	%	0.2	0.7	7.1	41.6	50.4	100
진로역량	N	2	9	61	209	253	534
	%	0.4	1.7	11.4	39.1	47.4	100
공동체역량	N	1	6	90	219	218	534
	%	0.2	1.1	16.9	41	40.8	100

기존의 평가요소 적합성에 대한 교사의 긍정반응은 학업역량이 92.0%, 진로역량이 86.5%, 공동체역량이 81.8%로 매우 높았으며, 이는 지역이나 직무, 고교유형 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교사는 기존의 평가요소에 대해 매우 높은 긍정반응을 보여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세 가지 평가요소가 큰 문제없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세 가지 평가요소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30>과 같다. 기존의 평가요소 적합성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은 학업역량이 86.8%, 진로역량이 79.1%, 공동체역량이 81.8%로 높았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경력, 대학의 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학사정관도 기존의 평가요소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Ⅲ-30> 평가요소 적합성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학업역량	N	0	6	18	102	56	182
	%	0	3.3	9.9	56	30.8	100
진로역량	N	1	6	31	92	52	182
	%	0.5	3.3	17	50.5	28.6	100
공동체역량	N	1	8	24	108	41	182
	%	0.5	4.4	13.2	59.3	22.5	100

(2) 평가요소별 반영 비중

서류평가 시 평가요소별 반영 비중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31>과 같다. 조사 문항이 각 평가요소의 반영비율 합이 100이 되도록 하여, 전체 응답자 중 과목 비중 합계가 100으로 응답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한다.

<표 Ⅲ-31> 평가요소별 반영 비중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학업역량	524	42.06	10.49	174	41.47	11.34
진로역량	524	33.63	9.29	174	36.38	8.94
공동체역량	524	24.31	7.17	174	22.16	6.91

<표 Ⅲ-31>의 결과에서 보듯이 교사의 경우 서류평가를 하는데 학업역량(42.1%), 진로역량(33.6%), 공동체역량(24.3%) 순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영 비중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입학사정관의 응답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 이처럼 서류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업역량으로 대체로 40%를 초과하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진로역량은 대략 35%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학업역량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체역량은 학업역량이나 진로역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나,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20% 이상의 비중은 가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 학업역량 평가 시 과목별 반영 비중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에 융합선택과목이 추가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평가요소인 학업역량을 평가하는데 각 과목이 어느 정도로 적합한지 조사한다. 각 과목이 학업역량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32>와 같다. 각 과목의 반영 비율 합이 100이 되도록 하여, 전체 응답자 중 과목 비중 합계가 100으로 응답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한다.

<표 Ⅲ-32> 학업역량 평가 시 과목별 반영 비중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공통과목	498	33.00	11.30	174	33.65	10.55
일반선택과목	498	29.40	6.86	174	29.63	6.95
진로선택과목	498	23.08	8.00	174	22.87	7.04
융합선택과목	498	14.52	6.82	174	13.85	5.92

<표 Ⅲ-32>의 결과에서 보듯이 교사의 경우 학업역량을 평가하는데 각 과목의 비중은 공통과목(33.0%), 일반선택과목(29.4%), 진로선택과목(23.1%), 융합선택과목(14.5%)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반영 비중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입학사정관의 응답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 이처럼 학업역량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통과목으로 약 33%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약 30%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은 각각 20%와 15% 내외의 비중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4) 권장과목 이수 여부 반영

최근 여러 대학에서 전공 이수에 필요한 권장과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권장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권장과목의 이수 여부를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한다.

서류평가에 권장과목 이수 여부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반응은 <표 Ⅲ-33>과 같다. 교사의 경우 권장과목 여부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의 88.4%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11.6%)보다 크게 높다. 교사의 권장과목 이수 여부를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경력 등과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입학사정관도 긍정반응이 83.5%로 부정반응(16.5%)보다 높다. 권장과목 이수 여부를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p-값=0.0898).

<표 Ⅲ-33> 권장과목 이수 여부 반영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고교	N	14	48	271	201	534
	%	2.6	9.0	50.8	37.6	100
대학	N	2	28	119	33	182
	%	1.1	15.4	65.4	18.1	100

권장과목 이수 여부를 서류평가에 반영하는데 동의한 이유로, 교사는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44%). 다음으로는 학생 선발 시 전공적합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것(28%)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 의견으로는 파행적 과목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10.0%), 학과에 대한 준비 및 학업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9%), 진로 상담 시 선택과목 지도 및 선택에 도움이 된다(6%) 등이 있다. 소수의견으로 고교학점제 및 학종 평가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사이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제시한 것과 달리, 입학사정관은 진로 상담 시 선택과목 지도 및 선택에 도움이 된다(27%)와 전공적합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26%),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26%)는 것이 비슷한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교사과는 다르게 학과에 대한 준비 및 학업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18%)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소수의견으로 고교학점제 및 학종 평가 취지에 부합한다와 파행적 과목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

라)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면접평가는 서류평가와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다수 대학에서 주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에 사용한 면접평가 방식은 <표 Ⅲ

-34>와 같다.

<표 Ⅲ-34> 학생부종합전형에 적용 가능한 면접평가 방식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고등학교 교사의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35>와 같다. 교사는 학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에 대한 긍정반응이 91.9%로 가장 높다. 이어서,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이 88.2%로 높아, 대체로 확인면접 방식에 긍정반응이 높다.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이나 학업역량 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은 각각 54.7%와 50.8%로 부정반응보다는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확인면접 방식보다는 긍정반응이 낮다.

<표 Ⅲ-35> 학종의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47	86	130	191	80	534
	%	8.8	16.1	24.3	35.8	15	100
2)	N	34	67	141	207	85	534
	%	6.4	12.5	26.4	38.8	15.9	100
3)	N	5	3	35	210	281	534
	%	0.9	0.6	6.6	39.3	52.6	100
4)	N	5	10	48	256	215	534
	%	0.9	1.9	9	47.9	40.3	100

입학사정관의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36>과 같다. 입학사정관도 학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면접에 대한 긍정반응이 80.3%로 가장 높다.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도 62.6%로 높아, 교사처럼 대체로 확인면접 방식에 긍정반응이 높다.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와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에 대한 긍정반응은 각각 44.0%

와 36.3%로 부정반응보다는 높았으나 50%에 미치지 못한다.

<표 Ⅲ-36> 학종의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16	33	53	68	12	182
	%	8.8	18.1	29.1	37.4	6.6	100
2)	N	14	32	70	60	6	182
	%	7.7	17.6	38.5	33	3.3	100
3)	N	3	5	28	76	70	182
	%	1.6	2.7	15.4	41.8	38.5	100
4)	N	2	14	52	81	33	182
	%	1.1	7.7	28.6	44.5	18.1	100

학생부종합전형에 적용 가능한 면접평가 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37>과 같다. 면접평가 방식으로 제시문 기반의 학업역량 면접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인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표 Ⅲ-37> 학종의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2.71	0.2584
2)	716	2	18.58	0.0001**
3)	716	2	19.23	0.0001**
4)	716	2	59.35	0.0000**

학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방식에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긍정반응이 높았으나, 교사의 긍정반응이 91.9%로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80.3%)보다 10%p 이상 높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활용한 면접평가 방식도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긍정반응이 높았으나, 교사의 긍정반응이 88.2%로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62.6%)보다 월등히 높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제시문 기반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방식에 대해서도 교사보다 현저히 낮은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3) 논술위주전형에 대한 인식

논술위주전형(이하 논술전형)은 그동안 꾸준히 모집인원이 감소하여 현재 대입 전형 중 모집규모가 가장 적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과 선발의 다양성이 충돌하여 대입 전형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전형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신이 중요한 평가척도인 수시모집에서 내신의 대척점에 위치하여 경쟁률로는 타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특성을 갖는 논술전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논술전형에 대한 운영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논술전형의 적정 규모와 수능최저기준의 적용, 출결상황 반영에 대한 인식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서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전형의 규모에 대한 인식

2024년 4월 발표된 대교협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2026학년도의 논술전형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3.6%로 2025학년도보다 0.3%p 정도 상승했다.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의 논술전형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8.2%로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는 논술전형의 적정 규모를 11.8% 정도로 보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은 약 13.4% 정도가 적정 규모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적정 규모에 대한 인식은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p-값=0.0221). 교사의 경우 논술전형의 규모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이나 설립유형, 담당업무, 고교유형, 근무경력 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소재 지역과 설립유형에 따라 적정 규모의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학 설립유형의 경우 국공립 소속 응답자의 수가 사립대학에 비해 현저히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논술전형의 적정 규모를 14.2%로 답한데 반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적정 규모를 10.8%로 보고 있어 대학의 소재 지역별로 논술전형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값=0.0124).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인식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의 적합성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38>과 같다.

<표 Ⅲ-38>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고교	N	18	31	50	188	247	534
	%	3.4	5.8	9.4	35.2	46.3	100
대학	N	12	7	27	93	43	182
	%	6.6	3.8	14.8	51.1	23.6	100

교사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해 응답자의 81.5%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9.2%)보다 크게 높았다. 교사의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경력 등과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담당 직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로진학 담당이나 3학년부 담당 교사가 수능최저학력기준 부여에 80%를 넘는 긍정반응을 보인데 반해, 교육과정 담당을 포함한 기타 교사는 70%대의 긍정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입학사정관도 논술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74.3%로 부정반응 10.4%보다 높다. 이처럼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더 긍정적이었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다(p-값=0.0917).

다) 교과성적 및 출결상황 반영에 대한 인식

논술전형에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의 적합성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39>와 같다. 교사의 경우 교과성적 적용에 대해 응답자의 49.8%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22.6%)보다 높다. 교사의 교과성적 반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경력, 직무 등과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입학사정관도 논술전형에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33.5%로 부정반응 30.2%보다 높았으나, 큰 차이가 없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교과성적을 반영하는데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높았으나, 모두 5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논술전형에 교과성적을 적용 하는 것에 더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다(p-값=0.0007). 논술전형에 교과성적 반영을 전제로 교과성적의 적정 반영 비율은 교사가 전형 총점의 30.1%로, 입학사정관의 24.3%보다 유의적으로 높다(p-값 =0.0260).

<표 Ⅲ-39> 교과성적 반영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고교	N	46	75	147	170	96	534
	%	8.6	14	27.5	31.8	18	100
대학	N	17	38	66	48	13	182
	%	9.3	20.9	36.3	26.4	7.1	100

논술전형에 출결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의 적합성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40>과 같다. 교사의 경우 출결성적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3%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9.7%)보다 크게 높다. 교사의 출결성적 반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담당 직무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경력 등과 관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학년 담당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82.4%가 긍정반응을 보여 타 직무 담당 교사보다 높게 나타난다. 입학사정관도 논술전형에 출결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43.4%로 부정반응 26.4%보다 높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교과성적을 반영하는데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높았으나, 교사의 긍정반응이 입학사정관보다 30%p 이상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값=0.0000). 논술전형에 출결성적 반영을 전제로 출결성적의 적정 반영 비율은 교사가 전형 총점의 17.3%로, 입학사정관의 10.9%보다 높다(p-값=0.0000).

<표 Ⅲ-40> 출결성적 반영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고교	N	21	31	80	168	234	534
	%	3.9	5.8	15	31.5	43.8	100
대학	N	14	34	55	60	19	182
	%	7.7	18.7	30.2	33	10.4	100

라)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

이번 연구에서는 <표 Ⅲ-41>과 같은 문항을 통하여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Ⅲ-41> 논술전형의 일반 인식에 대한 질문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에 기반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
3)	수능에서 수학과 탐구의 출제 범위가 축소되었듯이 논술의 출제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
4)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교사의 논술전형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42>와 같다. 교사는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반응이 42.1%로 긍정반응(27.4%)보다 높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논술전형의 문항을 서·논술형 문항에 기반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긍정반응이 48.5%로 부정반응(21.3%)보다 우세하다. 논술의 출제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48.9%가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63.6%가 긍정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42>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100	125	163	104	42	534
	%	18.7	23.4	30.5	19.5	7.9	100
2)	N	52	62	161	207	52	534
	%	9.7	11.6	30.1	38.8	9.7	100
3)	N	48	93	132	195	66	534
	%	9	17.4	24.7	36.5	12.4	100
4)	N	30	40	124	226	114	534
	%	5.6	7.5	23.2	42.3	21.3	100

입학사정관의 논술전형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43>과 같다.

<표 Ⅲ-43>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20	48	65	41	8	182
	%	11	26.4	35.7	22.5	4.4	100
2)	N	13	31	69	63	6	182
	%	7.1	17	37.9	34.6	3.3	100
3)	N	20	42	64	48	8	182
	%	11	23.1	35.2	26.4	4.4	100
4)	N	12	27	70	63	10	182
	%	6.6	14.8	38.5	34.6	5.5	100

입학사정관은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반응이 37.4%로 긍정반응(26.9%)보다 높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논술전형의 문항을 서·논술형 문항에 기반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긍정반응이 37.9%로 부정반응(24.1%)보다 우세하다. 논술의 출제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30.8%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34.1%)보다 낮다.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40.1%가 긍정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논술전형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네 개의 질문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44>와 같다.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부정반응이 긍정반응보다 높으며, 이런 인식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논술전형의 문항을 서·논술형 문항에 기반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논술의 출제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긍정반응이 유의적으로 높다.

<표 Ⅲ-44>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1.91	0.3844
2)	716	2	6.36	0.0416*
3)	716	2	18.27	0.0001**
4)	716	2	30.87	0.0000**

4)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인식

수능위주전형(이하 수능전형)은 정시모집을 통해 진행되는 전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반으로 실시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논란이 됐던 202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선택형 수능에서 통합형 수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국어와 수학, 탐구에서 유지되었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수험생은 모두 동일한 과목을 응시한다. 수학의 경우 기하가 제외되고 미적분도 미적분Ⅰ만 포함한다. 탐구는 계열에 관계없이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모두 응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능성적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수능전형의 적정 규모, 수능성적의 활용 방안, 학생부 반영 방법의 적합성,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도입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

가) 전형의 규모에 대한 인식

2024년 4월 발표된 대교협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2026학년도의 수능전형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18.5%로 2025학년도보다 0.2%p 정도 하락했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수능전형 비중은 32.5%로, 비수도권의 9.6%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교육부는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학종과 논술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경우 수능전형의 적정 규모를 31.1%로 보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은 약 28.6%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p-값=0.0114).

교사의 경우 지역이나 설립유형, 담당업무, 고교유형, 근무경력 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대학의 소재 지역과 규모에 따라 적정 규모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수능전형의 적정 규모를 30.0%로 답한데 반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적정 규모를 24.4%로 보고 있다. 2천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논술의 적정 규모로 25.2%로 제시한데 반해, 2천명~ 3천명 규모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30.8%, 3천명 이상의 경우 28.8%가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 교과성적 반영에 대한 인식

수능전형에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의 적합성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45>와 같다. 교사는 교과성적 적용에 대해 응답자의 60.2%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18.5%)보다 높다. 교사의 교과성적 반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등에는 인식에 차이가 없으나, 경력과 직무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 교사의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긍정반응은 49.1%로, 10년~20년 근무경력(63.4%) 집단이나 20년 이상 근무경력(62.6%) 집단보다 긍정반응이 낮다(p-값=0.0059). 담당 직무로 볼 때, 교육과정 담당(67.2%)과 3학년 담당(63.1%)보다 진로진학 담당(53.4%)과 기타 담당(54.4%)의 긍정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45> 교과성적 반영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고교	N	31	68	114	208	113	534
	%	5.8	12.7	21.3	39	21.2	100
대학	N	20	45	59	50	8	182
	%	11	24.7	32.4	27.5	4.4	100

입학사정관은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31.9%로 부정반응 35.7%보다 낮으며, 이러한 인식은 대학의 소재지역이나, 규모, 경력 등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없다. 수능전형에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p-값=0.0000). 교사의 경우 교과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3배 이상 높은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오히려 부정반응이 긍정반응보다 3.8%p 높게 나타나 교사와는 상반된 입장을 띠고 있다. 수능전형에 교과성적 반영을 전제로 교과성적의 적정 반영 비율은 교사가 전형 총점의 28.3%로, 입학사정관의 21.2%보다 유의적으로 높다(p-값=0.0007).

다) 수능 성적 반영에 대한 인식

2028 수능이 통합형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대학은 수능전형에 기존의 선택형 수능과는 다른 방식의 점수체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8 수능 방식을 전제로 수능성적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조사한다.

(1) 모집단위에 따라 다른 수능 영역 반영에 대한 인식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성적의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46>과 같다. 교사의 경우 다른 수능 영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6.0%)보다 높다. 교사의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경력이나 직무 등에는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모집단위에 따라 다른 수능 영역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71.9%로 부정반응(9.3%)보다 높으며, 이러한 인식은 대학의 소재지역이나, 규모, 경력 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이처럼 수능전형에 모집단위에 따

라 영역을 다르게 반영하는 것에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높은 긍정반응을 보였으나, 교사의 긍정반응이 83.3%로 입학사정관(71.7%)보다 유의적으로 높다(p-값=0.0036).

<표 Ⅲ-46> 모집단위에 따라 다른 수능 영역 반영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고교	N	10	22	57	259	186	534
	%	1.9	4.1	10.7	48.5	34.8	100
대학	N	6	11	34	96	35	182
	%	3.3	6	18.7	52.7	19.2	100

(2) 인문사회계열의 영역별 수능 반영 비율

2028 수능은 통합형으로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선택과목 없이 시행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입에서 수능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조사한다. 인문사회계열의 수능 총점에서 수능의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47>과 같다. 한국사와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반영비율 합이 100이 되도록 질문하여, 전체 응답자 중 과목 비중 합계가 100으로 응답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한다.

<표 Ⅲ-47> 인문사회계열의 영역별 수능 반영 비중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국어		480	29.14	4.65	171	29.74	4.83
수학		480	19.71	5.83	171	21.14	5.94
영어		480	22.77	5.82	171	23.33	6.11
탐구	사회	480	20.41	6.28	171	19.01	6.43
	과학	480	7.97	5.61	171	6.78	5.65

<표 Ⅲ-47>의 결과에서 보듯이 교사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 적합한 각 영역의 비중은 국어(29.1%), 영어(22.8%), 사회(20.4%), 수학(19.7%), 과학(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입학사정관은 국어(29.7%), 영어(23.3%), 수학(21.1%), 사회(19.0%), 과학

(6.8%) 순으로 나타나, 교사에 비해 사회보다 수학의 비중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인식 차이를 보면,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중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수학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이 교사보다 1.4%p 더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p-값=0.0062), 사회와 과학은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각각 1.4%p(p-값=0.0127), 1.2%p(p-값=0.0178) 더 높은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3) 자연계열의 영역별 수능 반영 비율

자연계열 수능 총점에서 수능의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응답은 <표 Ⅲ-48>과 같다. 인문사회계열처럼 한국사와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반영비율 합이 100이 되도록 질문하여, 전체 응답자 중 과목 비중 합계가 100으로 응답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한다.

<표 Ⅲ-48> 자연계열의 영역별 수능 반영 비중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국어		486	20.58	4.47	175	21.29	5.74
수학		486	31.00	5.43	175	31.77	5.31
영어		486	19.15	5.38	175	19.8	5.76
탐구	사회	486	7.68	5.54	175	6.36	5.64
	과학	486	21.6	6.53	175	20.79	7.3

<표 Ⅲ-48>의 결과에서 보듯이 교사의 경우 자연계열에 적합한 각 영역의 비중은 수학(31.0%), 과학(21.6%), 국어(20.6%), 영어(19.2%), 사회(7.7%)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은 수학(31.8%), 국어(21.3%), 과학(20.8%), 영어(19.8%), 사회(6.4%)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교사에 비해 과학보다 국어의 비중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인식 차이를 보면, 국어와 수학, 영어, 과학의 반영 비중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사회에 대해서는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1.3%p 더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p-값=0.0073).

(4) 수능 성적지표의 적합성 인식

2028 수능의 성적지표는 기존처럼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

급으로 구성되며,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등급만 제공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능전형의 수능 총점 계산 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점수인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의 활용 적합성에 대해 조사한다.

교사의 수능 성적지표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49>와 같다.

<표 Ⅲ-49> 수능 성적지표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국어	표준점수	N	4	5	47	239	239	534
		%	0.7	0.9	8.8	44.8	44.8	100
	백분위	N	6	8	57	253	210	534
		%	1.1	1.5	10.7	47.4	39.3	100
	등급	N	34	58	137	196	109	534
		%	6.4	10.9	25.7	36.7	20.4	100
수학	표준점수	N	4	2	39	239	250	534
		%	0.7	0.4	7.3	44.8	46.8	100
	백분위	N	5	9	59	250	211	534
		%	0.9	1.7	11	46.8	39.5	100
	등급	N	36	52	141	190	115	534
		%	6.7	9.7	26.4	35.6	21.5	100
탐구	표준점수	N	6	10	57	231	230	534
		%	1.1	1.9	10.7	43.3	43.1	100
	백분위	N	7	10	62	246	209	534
		%	1.3	1.9	11.6	46.1	39.1	100
	등급	N	33	48	142	193	118	534
		%	6.2	9	26.6	36.1	22.1	100

교사는 수능 총점 계산 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모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순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표준점수의 긍정반응을 보면 국어가 89.6%, 수학 91.6%, 탐구 86.4%로 응답자 대부분이 표준점수에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분위 점수의 경우에도 국어(86.7%), 수학(86.3%), 탐구(85.2%) 모두 긍정반응이 높다. 등급점수의 긍정반응은 국어(57.1%), 수학(57.1%), 탐구(58.2%)에 대해 대체로 50% 이상 긍정반응을 보였지만,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비해 긍정반응은 낮은 편이다.

입학사정관의 수능 성적지표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50>과 같다.

<표 Ⅲ-50> 수능 성적지표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국어	표준점수	N	0	4	30	99	49	182
		%	0	2.2	16.5	54.4	26.9	100
	백분위	N	0	5	37	111	29	182
		%	0	2.7	20.3	61	15.9	100
	등급	N	9	26	71	64	12	182
		%	4.9	14.3	39	35.2	6.6	100
수학	표준점수	N	0	4	27	98	53	182
		%	0	2.2	14.8	53.8	29.1	100
	백분위	N	0	5	34	111	32	182
		%	0	2.7	18.7	61	17.6	100
	등급	N	9	26	69	64	14	182
		%	4.9	14.3	37.9	35.2	7.7	100
탐구	표준점수	N	0	4	37	99	42	182
		%	0	2.2	20.3	54.4	23.1	100
	백분위	N	0	5	28	114	35	182
		%	0	2.7	15.4	62.6	19.2	100
	등급	N	8	25	71	65	13	182
		%	4.4	13.7	39	35.7	7.1	100

입학사정관도 수능 총점 계산 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모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순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준점수의 긍정반응을 보면 국어가 81.3%, 수학 82.9%, 탐구 77.5%로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분위 점수의 경우에도 국어(76.9%), 수학(78.6%), 탐구(81.8%) 모두 긍정반응이 높다. 등급점수의 긍정반응은 국어(41.8%), 수학(42.9%), 탐구(42.8%) 모두 부정반응보다 높았지만 긍정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경우에도 교사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에 대한 긍정반응이 높고, 등급점수의 긍정반응은 상대적으로 낮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에 대한 인식

수능 성적지표의 적합성에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51>과 같다. <표 Ⅲ-51>의 결과를 보면 탐구영역의 백분위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성적지표의 적합성은 모두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와 입학사정관은 모두 영역에 관계없이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의 적합성에 대한 긍정반응이 등급점수에 대한 긍정반응보다 일관되게 높다. 다만, 긍정반응의 강도는 거의 대부분의 성적지표에서 교사의 긍정반응이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보다 10%p 내외 정도로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Ⅲ-51> 수능의 성적지표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국어	표준점수	716	2	8.69	0.0130*
	백분위	716	2	11.19	0.0037**
	등급	716	2	14.66	0.0007**
수학	표준점수	716	2	10.6	0.0050**
	백분위	716	2	7.06	0.0292*
	등급	716	2	11.89	0.0026**
탐구	표준점수	716	2	11.22	0.0037**
	백분위	716	2	1.8	0.4063
	등급	716	2	13.7	0.0011**

2028 수능이 통합형으로 실시되고, 영역에 따라서는 출제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수능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 평가요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시모집을 운영해야 한다면 수능전형에서 추가 가능한 전형요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수능 이외에 현실적인 평가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각 영역을 수능전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한다. 학생부를 수능전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52>와 같다.

<표 Ⅲ-52> 학생부 활용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출결상황		N	15	31	53	178	257	534
		%	2.8	5.8	9.9	33.3	48.1	100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N	78	95	154	137	70	534
		%	14.6	17.8	28.8	25.7	13.1	100
	동아리 활동	N	77	91	134	153	79	534
		%	14.4	17	25.1	28.7	14.8	100
	진로활동	N	75	89	131	157	82	534
		%	14	16.7	24.5	29.4	15.4	100
	봉사활동실적	N	109	101	176	94	54	534
		%	20.4	18.9	33	17.6	10.1	100
교과학습발달상황	석차등급	N	38	35	104	216	141	534
		%	7.1	6.6	19.5	40.4	26.4	100
	성취도	N	43	50	133	194	114	534
		%	8.1	9.4	24.9	36.3	21.3	100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N	41	42	122	199	130	534
		%	7.7	7.9	22.8	37.3	24.3	10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N	54	64	136	166	114	534
		%	10.1	12	25.5	31.1	21.3	10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N	46	59	112	179	138	534
		%	8.6	11	21	33.5	25.8	100

교사들은 출결상황을 수능전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81.4%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8.6%)보다 현저히 높은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에 대해서는 진로활동(44.8%), 동아리활동(43.5%), 자율활동(38.8%), 봉사활동 실적(27.7%) 순으로 높은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창체의 각 영역에 대해서 부정반응도 30%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반응과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반응이 39.3%로 긍정반응(27.7%)보다 10%p 이상 높다. 학업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항목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경우 석차등급(66.8%),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61.6%), 성취도(57.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52.4%) 순으로 긍정반응이 높다. 행동특

성 및 종합의견(이하 행특)의 긍정반응은 59.3%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학생부 항목 중 출결상황에 대한 긍정반응이 80%를 초과할 정도로 높으며, 다음으로 석차등급,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등에 대해 긍정반응이 높아, 교사들은 학생부의 여러 항목 중 이들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부를 수능전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53>과 같다.

<표 Ⅲ-53> 학생부 활용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출결상황		N	15	30	52	62	23	182
		%	8.2	16.5	28.6	34.1	12.6	100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N	50	65	53	13	1	182
		%	27.5	35.7	29.1	7.1	0.5	100
	동아리 활동	N	48	65	48	20	1	182
		%	26.4	35.7	26.4	11	0.5	100
	진로활동	N	48	62	46	20	6	182
		%	26.4	34.1	25.3	11	3.3	100
	봉사활동실적	N	53	67	49	12	1	182
		%	29.1	36.8	26.9	6.6	0.5	100
교과학습발달상황	석차등급	N	21	39	45	57	20	182
		%	11.5	21.4	24.7	31.3	11	100
	성취도	N	21	40	49	56	16	182
		%	11.5	22	26.9	30.8	8.8	100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N	24	41	37	63	17	182
		%	13.2	22.5	20.3	34.6	9.3	10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N	35	53	46	41	7	182
		%	19.2	29.1	25.3	22.5	3.8	10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N	28	41	55	49	9	182
		%	15.4	22.5	30.2	26.9	4.9	100

입학사정관은 출결상황을 수능전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46.7%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24.7%)보다 높다. 창체에 대해서는 진로활동(14.3%), 동아리활동(11.5%), 자율활동(7.6%), 봉사활동 실적(7.1%) 순으로 높은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입학사정

관의 경우 창체에 대해서는 긍정반응보다 부정반응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교사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업역량의 주요 항목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경우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43.9%), 석차등급(42.3%), 성취도(39.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26.3%) 순으로 긍정반응이 높다. 대체로 창체보다는 높은 긍정반응 보였으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특의 긍정반응은 31.8%로, 부정반응 37.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입학사정관은 수능전형에서 학생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긍정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능전형에서 학생부의 각 항목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54>와 같다. <표 Ⅲ-54>의 결과를 보면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서 학생부를 수능전형에 활용하는 것에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유의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Ⅲ-52>와 <표 Ⅲ-53>에서 보듯, 교사들은 창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들을 수능전형에 반영하는 것에 긍정반응이 50%를 초과하는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의 항목들을 수능전형에 반영하는 것에 긍정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부를 수능전형에 반영하는 것에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Ⅲ-54> 학생부 활용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출결상황		716	2	82.48	0.0000**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716	2	74.45	0.0000**
	동아리 활동	716	2	71.64	0.0000**
	진로활동	716	2	65.43	0.0000**
	봉사활동실적	716	2	47.97	0.0000**
교과학습 발달상황	석차등급	716	2	42.5	0.0000**
	성취도	716	2	24.97	0.0000**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716	2	34.51	0.000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716	2	52.65	0.000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16	2	43.17	0.0000**

마) 전형요소 추가에 대한 인식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28 수능부터 통합형 수능이 되고, 출제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수능의 평가 타당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능전형에서 추가적인 전형요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수능전형에 수능성적 외에 추가적인 전형요소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된 추가적인 전형요소는 <표 Ⅲ-55>와 같다.

<표 Ⅲ-55> 수능전형에 도입 가능한 전형요소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서류평가 도입
2)	면접평가 도입
3)	서·논술형 평가 추가 도입
4)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 도입

고등학교 교사의 수능전형에 도입 가능한 전형요소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56>과 같다.

<표 Ⅲ-56> 추가 전형요소 도입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37	55	98	220	124	534
	%	6.9	10.3	18.4	41.2	23.2	100
2)	N	35	51	94	232	122	534
	%	6.6	9.6	17.6	43.4	22.8	100
3)	N	72	129	142	141	50	534
	%	13.5	24.2	26.6	26.4	9.4	100
4)	N	28	47	100	228	131	534
	%	5.2	8.8	18.7	42.7	24.5	100

교사는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67.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면접평가(66.2%), 서류평가(64.4%), 서

·논술형 평가(35.8%)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면접평가, 서류평가 등을 도입하는 것에는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높은데 반해, 서·논술형 평가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반응(37.7%)과 긍정반응(35.8%)이 큰 차이가 없다.

대학 입학사정관의 수능전형의 추가 전형요소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57>과 같다. 입학사정관도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정량평가 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44.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서류평가(35.2%), 면접평가(31.3%), 서·논술형 평가(22.5%) 순으로 높다.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는 부정반응(27.5%)보다 긍정반응이 20%p 가까이 높다. 면접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반응이 각각 42.3%와 54.4%로 긍정반응보다 높다.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반응(35.2%)이 부정반응(34.6%)보다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다.

<표 Ⅲ-57> 추가 전형요소 도입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23	40	55	56	8	182
	%	12.6	22	30.2	30.8	4.4	100
2)	N	29	48	48	51	6	182
	%	15.9	26.4	26.4	28	3.3	100
3)	N	35	64	42	36	5	182
	%	19.2	35.2	23.1	19.8	2.7	100
4)	N	18	32	51	64	17	182
	%	9.9	17.6	28	35.2	9.3	100

수능전형에 추가 전형요소를 도입하는 것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58>과 같다. <표 Ⅲ-58>의 결과를 보면, 조사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방안 모두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가지 방안에서 모두 교사들의 긍정반응이 입학사정관보다 더 높다. 특히,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를 활용한 정량평가 도입과 서류평가, 면접평가의 경우 교사들이 60% 이상의 긍정반응을 나타낸 반면, 입학사정관은 긍정반응이 5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의 경우 입학사정관의 부정반응은 50%를 초과하는데 반해, 교사의 부정반응은 37.7%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Ⅲ-58> 추가 전형요소 도입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48.29	0.0000**
2)	716	2	75.13	0.0000**
3)	716	2	17.09	0.0002**
4)	716	2	30.98	0.0000**

바)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이번 연구에서는 수능위주전형에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수능전형에 적절한 서류평가 방식에 대해서 조사한다. 조사에 사용한 서류평가 방식은 <표 Ⅲ-59>와 같다.

<표 Ⅲ-59> 수능전형에 도입 가능한 서류평가 방식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2)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고등학교 교사들의 서류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60>과 같다.

<표 Ⅲ-60>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54	77	132	185	86	534
	%	10.1	14.4	24.7	34.6	16.1	100
2)	N	28	32	95	245	134	534
	%	5.2	6	17.8	45.9	25.1	100
3)	N	30	37	131	222	114	534
	%	5.6	6.9	24.5	41.6	21.3	100

교사는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71.0%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과

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62.9%)이며, 학종 방식의 종합평가(50.7%)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이 가장 낮다.

입학사정관의 서류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61>과 같다. 입학사정관도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48.4%로 가장 높다.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은 46.7%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활용한 정성평가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학종 방식의 종합평가에 대한 긍정반응은 24.7%로 다른 두 방식보다 긍정반응이 낮다.

<표 Ⅲ-61>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30	68	39	36	9	182
	%	16.5	37.4	21.4	19.8	4.9	100
2)	N	18	26	50	78	10	182
	%	9.9	14.3	27.5	42.9	5.5	100
3)	N	16	28	53	69	16	182
	%	8.8	15.4	29.1	37.9	8.8	100

수능전형에 적용 가능한 서류평가 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62>와 같다. <표 Ⅲ-62>의 결과를 보면, 조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서류평가 방안 모두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시한 세 가지 서류평가 방안에서 모두 교사들의 긍정반응이 입학사정관보다 더 높다.

<표 Ⅲ-62> 서류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57.91	0.0000**
2)	716	2	32.58	0.0000**
3)	716	2	19.02	0.0001**

교사들의 경우 제시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모두 50% 이상의 긍정반응을 보인 반면, 입학사정관은 제시된 방안에 대해 긍정반응이 모두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종 방식의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부정반응(53.9%)이 긍정반응(24.7%)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사)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앞서 수능전형에 서류평가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수능전형에 면접평가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수능전형에 적절한 면접평가 방식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면접평가 방식은 <표 Ⅲ-63>과 같다.

<표 Ⅲ-63> 수능전형에 도입 가능한 면접평가 방식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고등학교 교사들의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64>와 같다.

<표 Ⅲ-64>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64	81	125	176	88	534
	%	12	15.2	23.4	33	16.5	100
2)	N	53	69	135	203	74	534
	%	9.9	12.9	25.3	38	13.9	100
3)	N	42	62	129	200	101	534
	%	7.9	11.6	24.2	37.5	18.9	100
4)	N	31	45	112	223	123	534
	%	5.8	8.4	21	41.8	23	100

교사는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64.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56.4%)이 높아 대체로 확인면접 방식에 긍정반응이 높다.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방식이나 의사소통능력 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은 각각 49.5%와 51.9%로 부정반응보다는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확인면접 방식보다는 긍정반응이 낮다.

입학사정관의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65>와 같다. 입학사정관은 제시문 기반의 학업역량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41.2%로 가장 높다.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이 39.6%,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의 긍정반응이 29.6%, 학생부를 활용한 확인면접에 대한 긍정반응도 26.4%로 대체로 부정반응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의 경우 수능전형에서 면접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면접평가 방법에 관계없이 부정반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65>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25	39	43	63	12	182
	%	13.7	21.4	23.6	34.6	6.6	100
2)	N	26	47	55	47	7	182
	%	14.3	25.8	30.2	25.8	3.8	100
3)	N	31	57	46	36	12	182
	%	17	31.3	25.3	19.8	6.6	100
4)	N	23	37	50	66	6	182
	%	12.6	20.3	27.5	36.3	3.3	100

수능전형에 적용 가능한 면접평가 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66>과 같다. 제시된 면접평가 방법 중 제시문 기반의 학업역량 평가 면접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들은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제시문 기반의 학업역량 평가 면접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면접평가 방식에 대해서 교사들이 입학사정관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66> 면접평가 방안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4.93	0.0851
2)	716	2	30.58	0.0000**
3)	716	2	67.33	0.0000**
4)	716	2	42.42	0.0000**

아) 기타 수능위주전형 운영에 대한 인식

이번 연구에서는 수능위주전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표 Ⅲ-67>과 같다.

<표 Ⅲ-67> 수능위주전형 운영 방식 조사 문항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수능 범위 축소에 따른 수능 타당성 저하로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전형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2)	수능위주전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능 100%로 선발해야 한다.
3)	사교육 증가, N수생 양산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수능전형 운영방식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68>과 같다.

<표 Ⅲ-68> 수능위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27	28	98	263	118	534
	%	5.1	5.2	18.4	49.3	22.1	100
2)	N	61	106	186	120	61	534
	%	11.4	19.9	34.8	22.5	11.4	100
3)	N	35	56	134	174	135	534
	%	6.6	10.5	25.1	32.6	25.3	100

먼저 수능 범위 축소에 따른 수능 타당성 저하로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71.48%가 긍정반응을 보인 반면, 부정반응은 10.0%에 불과하였다. 수능위주전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능 100%로 선발하는 것에는 긍정반응(33.9%)이 부정반응(31.3%)보다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사교육 증가, N수생 양산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이 57.9%로 부정반응(17.1%)보다 3배 이상 높다.

수능전형 운영방식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69>와 같다. 수능 범위 축소에 따른 타당성 저하로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1.6%가 긍정반응을 보인 반면, 부정반응은 19.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능위주전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능 100%로 선발하는 것에는 긍정반응이 39.0%이며, 사교육 증가, N수생 양산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이 39.5%로 두 방법 모두 긍정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Ⅲ-69> 수능위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10	25	53	75	19	182
	%	5.5	13.7	29.1	41.2	10.4	100
2)	N	11	36	64	52	19	182
	%	6	19.8	35.2	28.6	10.4	100
3)	N	8	40	62	43	29	182
	%	4.4	22	34.1	23.6	15.9	100

수능전형 운영방식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70>과 같다. 수능위주전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능 100%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인식의 차이가 없다. 수능으로 100%를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높지만,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면에, 수능전형에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것과 모집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것에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높지만, 교사의 긍정반응이 입학사정관보다 유의적으로 높다.

<표 Ⅲ-70> 수능위주전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24.02	0.0000**
2)	716	2	2.36	0.3069
3)	716	2	18.63	0.0001**

5) 대학 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2028 대입과 관련하여 전형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형별 인식과 더불어 대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먼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전형별 전형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대입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규모에 대한 인식

2024년 4월 발표된 대교협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2026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79.9%로 2025학년도보다 0.3%p 정도 상승했다.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의 수시모집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65.4%이며, 비수도권의 수시모집 비중은 89.1%로 수도권보다 20%p 이상 더 많이 모집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정시모집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수시모집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경우 수시모집의 적정 규모를 64.9%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지역이나 설립유형, 담당업무, 고교유형, 근무경력 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입학사정관은 수시모집 규모로 약 67.4%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와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도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경력 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수시모집의 적정 규모로 65% 전후 - 정시모집 규모로는 35% 내외 -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전형 규모에 대한 인식

현재 대입기본사항에서는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 논술위주, 실기/실적위주, 수능위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입체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형체계가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능 체계에서는 어떻게 변하는 게 적절한지를 조사한다.

교사의 전형별 규모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71>과 같다. 교사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유지(56.4%)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교과전형의 확대와 축소 의견은 23.8%와 19.9%로 유지 의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확대(56.0%) 의견이 우세하다. 학종의 경우 유지 의견이 35.4%이며, 축소 의견은 8.6%에 불과하다. 논술전형의 경우 축소 의견과 유지 의견이 48.7%와 42.1%로 비슷하며, 확대 의견은 9.2%에 불과하다. 실기/실적위주전형은 유지 의견이 68.2%로 대다수이며, 다음으로는 축소 의견이 27.5%이고 확대 의견은 4.3%에 그치고 있다. 수능위주전형은 축소와 유지가 39.0%로 동일하며, 확대 의견은 22.1%로 가장 낮다.

<표 Ⅲ-71> 전형 규모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축소	유지	확대	계
학생부위주	학생부교과 전형	N	106	301	127	534
		%	19.9	56.4	23.8	100
	학생부종합 전형	N	46	189	299	534
		%	8.6	35.4	56	100
논술위주		N	260	225	49	534
		%	48.7	42.1	9.2	100
실기/실적위주		N	147	364	23	534
		%	27.5	68.2	4.3	100
수능위주		N	208	208	118	534
		%	39	39	22.1	100

입학사정관의 전형별 규모에 대한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72>와 같다. 입학사정관은 교과전형 규모가 유지(46.7%)돼야 한다는데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만, 교과전형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41.8%로 유지 의견과 큰 차이가 없다. 교과전형의 확대 의견은 11.5%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확대(59.9%) 의견이 우세하며, 유지 의견이 33.5%, 축소 의견은 6.6%에 불과하다.

<표 Ⅲ-72> 전형 규모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축소	유지	확대	계
학생부위주	학생부교과전형	N	76	85	21	182
		%	41.8	46.7	11.5	100
	학생부종합전형	N	12	61	109	182
		%	6.6	33.5	59.9	100
논술위주		N	55	96	31	182
		%	30.2	52.7	17	100
실기/실적위주		N	29	149	4	182
		%	15.9	81.9	2.2	100
수능위주		N	77	74	31	182
		%	42.3	40.7	17	100

논술전형은 유지 의견이 52.7%로 가장 높으며, 축소 의견이 30.2%, 확대 의견이 17.0%이다. 실기/실적위주전형은 유지 의견이 81.9%로 대다수이며, 축소 의견은 15.9%, 확대 의견은 2.2%에 불과하다. 수능위주전형은 축소와 유지가 42.3%와 40.7%로 큰 차이가 없으며, 확대 의견은 17.0%로 가장 낮다.

전형 규모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73>과 같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규모에 대한 인식은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교과전형의 경우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유지 의견이 가장 높으나, 입학사정관의 경우 축소 의견이 교사보다 20%p 정도 높다. 논술전형의 경우 교사는 축소 의견이, 입학사정관은 유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실기/실적위주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유지 의견이 높으나, 입학사정관의 유지 의견이 교사보다 10%p 이상 높다.

<표 Ⅲ-73> 전형 규모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학생부위주	학생부교과전형	716	2	37.83	0.0000**
	학생부종합전형	716	2	1.18	0.5535
논술위주		716	2	21.43	0.0000**
실기/실적위주		716	2	12.58	0.0019**
수능위주		716	2	2.16	0.3400

다) 기타 대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이번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2028 대입제도 확정 등 변화된 대입 환경에서 기존의 대입정책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표 Ⅲ-74>와 같다.

<표 Ⅲ-74> 대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 문항

문항 번호	조사 내용
1)	수능위주전형 40% 등 정시모집 최소 선발비율 유지
2)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
3)	학생부 항목 제한(수상, 독서, 봉사, 자율동아리 등 미제공) 유지

<표 Ⅲ-74>에 제시된 대입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75>와 같다. 먼저 일부 대학의 수능전형 40%를 포함하여 수능전형의 최소 선발비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반응(40.4%)과 부정반응(38.4%)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이 66.5%로 부정반응(1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상실적, 독서상황 등 학생부 일부 항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긍정반응은 56.9%로 부정반응(23.8%)보다 20%p 이상 높다.

<표 Ⅲ-75> 대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99	106	113	155	61	534
	%	18.5	19.9	21.2	29	11.4	100
2)	N	24	38	117	227	128	534
	%	4.5	7.1	21.9	42.5	24	100
3)	N	32	95	103	179	125	534
	%	6	17.8	19.3	33.5	23.4	100

대입정책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Ⅲ-76>과 같다. 일부 대학의 수능전형 40%를 포함하여 수능전형의 최소 선발비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반응이 59.3%로 긍정반응(22.0%)보다 크게 높다.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이 36.3%로 부정반응(22.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Ⅲ-76> 대입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대학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N	43	65	34	34	6	182
	%	23.6	35.7	18.7	18.7	3.3	100
2)	N	13	28	75	56	10	182
	%	7.1	15.4	41.2	30.8	5.5	100
3)	N	45	55	41	35	6	182
	%	24.7	30.2	22.5	19.2	3.3	100

수상경력, 독서활동상황 등 학생부 일부 항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반응이 54.9%로 긍정반응(22.5%)보다 30%p 이상 높다.

제시된 세 가지 대입정책에 대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는 <표 Ⅲ-77>과 같다. <표 Ⅲ-77>에서 보듯 조사에 포함된 세 가지 대입정책에 대해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인식 차이는 뚜렷하다. 수능전형 40% 등 정시모집 최소 비율 유지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이 부정반응이 높은데 반해, 교사의 경우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이 큰 차이가 없다.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에 대해서는 교사가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50%p 이상 높은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그 차이가 10%p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지역균형전형 10% 유지에 대해 중립적 입장인 보통 응답자 비중이 41.2%로 높다. 학생부 항목 제한 정책에 대해서 교사는 긍정반응이 56.9%로 높지만, 입학사정관은 부정반응이 54.9%로 높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Ⅲ-77> 대입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고교 대 대학

(p-값: *<0.05, **<0.01)

문항	N	자유도	통계량	p-값
1)	716	2	26.99	0.0000**
2)	716	2	51.17	0.0000**
3)	716	2	75.62	0.0000**

수시모집이 도입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3학년 2학기 학사 일정이 파행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 2028 대입 확정안이 발표된 이후 일각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와 2028 대입제도 확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현재와 같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반응은 <표 Ⅲ-78>과 같다. 교사의 경우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여 모집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5.2%가 긍정반응을 보여 부정반응(34.8%)보다 30%p 정도 높다. 입학사정관의 경우에는 긍정반응이 58.8%로 부정반응(41.2%)보다 높았으나, 교사와는 달리 그 차이는 20%p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의 이런 정도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다(p-값=0.1226). 이처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현재처럼 분리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긍정반응이 높다.

<표 Ⅲ-78> 수시와 정시 분리 모집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고교	N	53	133	275	73	534
	%	9.9	24.9	51.5	13.7	100
대학	N	12	63	100	7	182
	%	6.6	34.6	55.0	3.8	100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분리 운영하는데 동의한 이유로,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학생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전형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교사 41%, 입학사정관 42%). 다음으로,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및 기회 확대(31%), 현 운영 방식의 적절성(17%) 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재학생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과 대입 전형을 고려했을 때 동시 진행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및 기회 확대(19%), 현 운영 방식의 적절성(18%), 동시 진행의 어려움(18%) 등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분리 운영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교사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65%)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경계가 모호(24%)하다는 것이며,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부담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경우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36%)과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34%)을 비슷한 정도로 지적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교과성적과 수능성적의 변별력 하락으로 인해 이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24%)도 상당하다.

2. 델파이조사

가. 델파이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델파이조사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고교 교육의 변화와 대입제도 전형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문항을 제작하였다. 조사는 총 2차시로 설계하였는데, 1차시에는 개방형 질문으로 내신과 수능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와 전형 방법 제안, 바람직한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1차 주관식 응답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2차 문항을 제작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답변하게 하였고, 그중 일부 항목에서 의견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 의견에 대한 점수화와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2) 전문가 집단 선정 및 특성

델파이조사에서는 대입전형과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청 진학 담당 교육전문직과 대학입시 경험이 풍부한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구성하였다. 지역과 학교 유형 등을 고려하였으나 델파이조사의 특성 상 응답자 집단을 고려한 응답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Ⅲ-79> 델파이조사 응답 현황

구분	세부 항목	교사 및 교육청	입학사정관	계
지역	수도권	13	3	16
	충청권	5	-	5
	전라권	3	1	4
	경상권	6	2	8
	강원/제주권	2	-	2
	계	29	6	35

3)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1차 델파이조사는 2028 내신과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현재 각 유형별 대입방식이 2028학년도에 지속될 경우 문제가 되는 지점을 질문하였고, 각 전형 유형별 전형 방법 제안을 주관식으로 응답을 요청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적합한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방향, 바람직한 전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의하였다.

<표 Ⅲ-80> 델파이조사(1차) 질문 문항

구분	세부 내용		문항수
1차	학생부 교과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2
		전형 방법 제안(학생부 정량평가, 정성평가, 수능최저 등)	3
	학생부 종합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2
		전형 방법 제안(학생부 정량평가, 정성평가, 수능최저 등)	3
	논술위주 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1
		전형 방법 제안	1
	실기/실적 위주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1
		전형 방법 제안	1
	수능위주 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2
		전형 방법 제안(학생부 정량평가, 정성평가, 수능최저 등)	3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적합한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방향	1
	대입제도 제안	바람직한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실현을 위한 대입제도 정책 개선방안	1

2차 델파이조사는 1차에서 수합된 문항별 다양한 의견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문항화하였다. 각 문항별로 5점 척도로 해당 의견의 적절성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고, 여러 문항 중에 일부 문항에 대해 판단 근거를 주관식 의견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각 전형별로 유사한 응답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2차 질문 문항에서는 제외하기도 하였다.

<표 Ⅲ-81> 델파이조사(2차) 질문 문항

구분	세부 내용		문항수
2차	학생부 교과전형	2028 내신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5
		전형 방법 적절성(학생부 정량평가)	9
		전형 방법 적절성(학생부 정성평가)	5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4
		전형 방법 적절성(학생부 정성평가)	3
	논술위주 전형	전형 방법 적절성	5
	실기/실적 위주전형	전형 방법 적절성	4
	수능위주 전형	전형 방법 적절성(학생부 정량평가)	8
		전형 방법 적절성(학생부 정성평가)	6
	수능 체계 변화	수능 체계 변화가 고교 및 대입전형 미치는 영향	4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적합한 교육과정- 대입전형 연계방향	5
	대입제도 제안	바람직한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실현을 위한 대입제도 정책 개선방안	10

나.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 학생부교과전형

가) 대입전형 체계 변화에 따른 예상 문제점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2028 대입전형 체계 변화에 따라 기존의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델파이 2차에서는 1차 주관식 의견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해당 의견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고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게 하였다. 먼저,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운영 시 예상 문제점에 대한 1차 주관식 의견 중 5개 문항을 추출하고 이를 2차 조사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

<표 Ⅲ-82>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예상 문제점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교과 전형의 내신 변별력 약화	3%	9%	6%	51%	31%	4.0
등급 유불리를 고려한 교과 선택	3%	6%	17%	43%	31%	3.9
고교 교육환경에 따른 유불리 확대	0%	11%	23%	43%	23%	3.8
성적 미흡자 고교 중도 탈락 가능성	11%	11%	20%	43%	14%	3.4
졸업연도별 교과 산출기준 마련 어려움	0%	6%	26%	43%	26%	3.9

먼저, 위의 <표 Ⅲ-82>에서 보듯이 '교과 전형의 내신 변별력 약화' 는 평균 4.0점으로 응답하였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 시 동점자가 다수 양산되고 학업역량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동일 성적 등급 학생 간 학업역량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다수가 판단하였다. 다만, 등급 산출 과목의 증가로 양상이 달라져서 의외로 내신 변별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등급 유불리를 고려한 교과 선택(3.9점)' 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내신 5등급제에서는 오히려 석차등급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등급 유불리를 고려한 교과 선택 경향이 심화되고,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을 다수가 선택하는 등 교육과정 취지에 맞지 않은 과목 선택을 선택하거나 단위학교 개설 과목의 지속적 축소 가능성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 준비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향이 크므로 극단적으로 등급 유불리만을 고려하지 않고 진로 연계 과목을 이수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고교 교육환경에 따른 유불리를 확대(3.8점)' 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기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우위를 가졌던 학교의 불리함이 예상되며, 특히 소규모 학교의 불리함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특목·자사고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정량평가 위주로 운영될 경우 특별한 유불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성적 미흡자 고교 중도 탈락 가능성'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3.4점을 부여했는데, 9등급제에 비해 5등급제에서 오히려 성적 하락의 극복이 어려워 학교생활을 이른 시기에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으며, 성적 미흡자에 대한 최소성취 보장 방안이 고교 중도 탈락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학생-졸업생 간 산출 기준

유불리(3.9점)’ 는 우려의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델파이 1, 2차에서 도출한 내용을 정리한 의견은 아래 <표 Ⅲ-83>과 같다.

<표 Ⅲ-83>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예상 문제점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교과 전형의 내신 변별력 약화	[동의] · 등급 분포의 확대로 상위 등급 학생의 학업역량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 있음 · 1등급에 해당되는 10%의 학생들의 실제 실력차는 꽤 클 것으로 예상됨 · 5등급제는 급간 분포가 넓어져 동점자 수가 증가하며, 내신의 변별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임 · 5등급 변경 시 동점자가 다수 양산되어 일부 대학 교과전형 운영이 어려운 대학 발생 가능 · 일선 학교에서는 쉽게 출제하고 내신을 대비하는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큼 [비동의] · 5등급제로 완화되나, 등급 산출 과목의 증가로 내신의 변별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임
등급 유불리 고려한 교과 선택	[동의] · 내신 5등급제가 학생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등급 산출과목의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적성에 맞는 교과선택을 통한 진로 설계보다 등급 유불리를 고려한 교과선택 경향 심화 예상 · 내신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사회/과학융합선택과목 다수 선택 가능성 · 단위학교 개설 과목의 지속적 축소 가능성 [비동의] ·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동시에 하는 특성이 있어 극단적으로 등급 유불리를 고려한 교과선택은 이루어지기 어려움
고교 교육환경에 따른 유불리 확대	[동의] · 1등급의 비율이 10%까지 확대되면서 9등급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우위를 가졌던 일반고 학생들의 불리함이 예상됨. · 상대적으로 학교 규모가 적은 학교와 지방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유불리가 예상됨 [비동의] · 특목·자사고에서도 등급의 경계에 있는 학생들은 불리함이 있을 수 있고, 타격이 더 클 수 있어서 어느 학교 유형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대학에서 향후에도 교과 정량평가 위주로 전형을 실시한다면 교육환경에 따른 유불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항목	판단 근거
성적 미흡자 고교 중도 탈락 가능성	[동의] · 9등급 체계의 촘촘한 등급보다도 등급이 변화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른 시기에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상황 발생 가능 [동의] · 성적 미흡자에게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하고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여러 방법을 취할 것이므로 졸업할 의지만 있다면 중도탈락을 크게 우려하지 않음
졸업생/재학생 간 산출 기준 유불리	[동의] · 내신 등급별 비중의 변화로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내신 산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임 [비동의] · 산출기준 마련의 어려움은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비교내신 대상자 산출도 가능)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2028 수능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능 범위 축소로 기초학력 판단이 어려워지거나 2, 3학년 교과목의 파행 운영 가능성이 예상되어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되거나, 수능 출제 범위 축소로 2, 3학년 고교 수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은 아래 <표 Ⅲ-84>와 같으며, 델파이 2차 조사에서는 별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표 Ⅲ-84> 수능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예상 문제점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 수능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 범위 미포함에 따라 전반적 기초학력 수준 판단이 어려워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등 교과 정량평가 외 추가 검증 가능성
고교 수업 부실화 우려	· 1학년 공통과목 위주 수능 출제에 따라 2,3학년 과목은 수능 대비 파행적인 수업 운영 가능성(특히 사회, 과학) ·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운영 취지 의미 퇴색
계열별 수능최저학력기준 과목 설정	· 수능 탐구과목(사회/과학) 공통 응시에 따라 대학 자연계/인문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 재설정 필요 (예: 화학과 수능최저기준에 사회탐구 필수포함 여부 등)

나)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 방안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 방법 제안 의견을 통해 9개 항목을 도출한 내용은 아래 <표 Ⅲ-85>와 같다.

<표 Ⅲ-85>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 정량평가 방안 제안

항목	판단 근거
교과 영역별 반영 비율 활용	-계열/전공에 따른 학생부 교과 영역별 반영 비율 차등화를 통한 변별 강화 (예: 국어 30%, 영어 20%, 수학 30%, 사회/과학 20%)
성취도별 분포비율 활용	-교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반영한 수식 추가 활용 (예: A등급 20% 교과목과 30% 교과목 점수 차등)
교과목 유형별 점수 차등 반영	-보통교과와 융합선택과목의 반영비율 차등 부여 (예: 보통교과 80%, 융합선택교과 20%)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 차등 반영	-학년별 반영 비율 차등화를 통한 변별 확보 (예: 1학년 50%, 2학년 30%, 3학년 20%)
계열별 이수과목 이수	-계열/모집단위별 특정 교과 이수 시 점수 반영 (예: 공과대학 미적분, 기하 이수 시 가산점)
원점수 활용	-원점수를 활용하여 석차등급에 따른 부작용 방지 -내신등급 유리한 과목 쏠림 현상 방지 가능 (예: 원점수와 석차등급 중 유리한 점수 반영)
다양한 평가 정보 활용	-원점수, 평균, 수강자수, 이수학점,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모두 활용한 새로운 수식 마련
출결 반영	-고교교육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출결 반영
졸업연도에 따른 기준 마련 필요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졸업연도별 정량적 평가 기준 마련 (예: 5등급제 1등급 vs 9등급제 1등급 점수 비교)

기존 9등급 체계에서는 주로 석차등급, 성취도를 활용한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5등급 체계에서도 ‘석차등급, 성취도만 활용(2.9점)’, ‘성취도별 분포비율 활용(2.8점)’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델파이 2차 조사에서는 1차 주관식 의견을 토대로 9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해당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했으며 응답 결과는 아래 <표 Ⅲ-86>과 같다.

<표 Ⅲ-86>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석차등급, 성취도만 활용	9%	37%	20%	23%	11%	2.9
성취도별 분포비율 활용	17%	26%	20%	31%	6%	2.8
교과 영역별 반영 비율 활용	6%	14%	23%	54%	3%	3.3
교과목 유형별 점수 차등 반영	9%	20%	23%	40%	9%	3.2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 차등 반영	23%	34%	26%	14%	3%	2.4
계열별 이수과목 이수 여부	6%	3%	6%	49%	37%	4.1
원점수 활용	14%	23%	34%	29%	0%	2.8
출결 반영	0%	9%	6%	40%	46%	4.2
졸업연도별 평가 기준 마련	0%	6%	17%	40%	37%	4.1

기존의 석차등급과 성취도 활용 방안으로는 과도한 동점자 산출에 따른 변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과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과도하게 활용했을 때는 일부 고교에서 대입 유불리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대응이 예상되어 학생의 역량이 아닌 교사 및 학교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 차등 반영(2.4점)’과 ‘원점수 활용(2.8점)’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교과 영역별 반영 비율 활용(3.3점)’, ‘교과목 유형별 점수 차등 반영(3.2점)’은 긍정/부정 의견이 엇갈렸다. 반면,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대학 입학 이수 전공에 따른 기본과목 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열별 이수과목 이수 여부(4.1점)’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 수업의 미참여도에 대응하기 위해 ‘출결 반영(4.2점)’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또한, ‘졸업연도별 평가 기준 마련(4.1점)’에도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자세한 의견은 아래 <표 Ⅲ-87>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 Ⅲ-87>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석차 등급, 성취도만 활용	[동의] · 정량평가에서는 석차등급과 성취도만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성취도보다는 석차등급 위주로 평가하고, 성취도는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감점하는 방식(예를 들어 D 또는 E이면 차등 감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비동의] · 주요 대학은 석차등급과 성취도로는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2028 교과 성적 산출은 성취기준 내용이 적고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쏠림이 예상되는 만큼 석차등급과 성취도만 활용한다면 대입의 의미가 퇴색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
성취도별 분포 비율 활용	[동의] · 석차등급과 성취도(A~E)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성취도별분포비율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다만, 교과별 성취도별분포비율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문항수준, 수강자 집단의 학업태도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성취도별분포비율을 활용하여 성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성취도별 적정 수준의 비율을 바탕으로 평가한다면 성취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비동의] · 성취도별분포비율의 차이는 학교 또는 교사의 몫이며, 학생의 능력치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대학의 선발 방식을 위해 학교 교육에서는 적당 비율만이 A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선택형 문항의 난이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할 확률이 높으나 이는 비교육적으로 보임
교과 영역별 반영 비율 활용	[동의] · 모집단위 관련 과목의 반영비율을 반영하면 전공(계열) 관련 관심도가 높은 지원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특히 공대 등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기초학업역량이 뚜렷한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계열에 따라 현행 정시 전형처럼 교과 간 반영 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변별력을 위해서도 필요함 · 등급 받기 유리한 과목이나 교과 성취기준이 다소 낮은 교양과목 중심의 이수보다는 기초교과 이수 유도를 위해 영역별 반영 비율 제시가 필요 [비동의] · 교과영역별 반영비율을 적용하면 계열에 따른 수강자수 이동 등 교과성적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고교 현장에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교과목 유형별	[동의] · 고교학점제 환경에서 다양한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하고, 등급 유불리만

항목	판단 근거
점수 차등반영	고려하기보다 보통교과 중심으로 이수하도록 유도해야 함 [비동의] · 절대평가 성취도로만 기록되는 융합선택교과목의 경우 다수 고교에서 3학년 2학기에 선택할 수 있어 수시 전형에 실제로 평가되기 어렵고, 20%만 반영할 경우 3학년 2학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학년별 성적 반영비율 차등반영	[비동의] · 특정 학기의 소수 과목으로 일정 비율이 적용될 소지가 있음 · 모든 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를 정상화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학년의 비율을 다르게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계열별 이수과목 이수여부	[동의] · 자신의 진로 계열별 과목 이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고교학점제 체제 하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함 · 대학 수학을 위한 선수과목의 성격으로 자연계열의 경우 필수 이수 과목이 있다고 판단하며, 대학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임. 다만, 교내 교육과정과 공동교육과정 등을 나누어 고려해야 함
원점수 활용	[동의] · 원점수와 석차등급 중 유리한 점수를 반영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에 대한 부담은 완화될 것임 [비동의] · 성적 산출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동일한 평가기준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혼선을 줄 수 있음. 현재는 극히 일부대학이 활용하고 있지만 일반화되면 고교 평가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출결 반영	[동의] · 고교 출결은 학생의 성실도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항목 · 온라인 진료 및 편법의 질병 서류를 통한 학교수업 미참여 학생이 늘고 있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출결 반영이 필요함
졸업 연도별 평가 기준 마련	[동의] · 형평성을 위해 졸업연도별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졸업생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석차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등급의 재산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다) 학생부교과전형 정성평가 방안

다음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정성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이다.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변화에서는 정량평가만으로 변별이 불가한 대학의 경우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Ⅲ-88>과 같다.

<표 Ⅲ-88>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제안

항목	판단 근거
교육과정 이수 현황	· 진로적성을 고려한 계열/과목별 교과목 이수 현황 평가 (예: 공과대학은 '기하', '미적분' 등 이수 현황 정성평가) · 계열/학과별 이수권장과목 지정 후 이수 여부 평가
교육과정 및 교과 성적종합 평가	· 교육과정 이수현황과 석차등급, 원점수,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업역량 평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 교과별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한 교과 역량 평가
석차등급 미제공 교과만 정성평가	· 석차등급이 제공되지 않는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만 반영한 정성평가
학생부 영역 종합평가	· 학업성취도, 교과목 이수현황, 창체활동 및 세특 모두 포함한 학생부 전체 영역 평가

1차 델파이조사 의견을 바탕으로 2차 조사에서 동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아래 <표 Ⅲ-89>와 같다.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의견은 '교육과정 및 교과 성적 종합 평가'로 4.1점을 나타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정성평가는 단순히 '교육과정 이수 현황(2.8점)'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학생부 전 영역 종합평가(3.8점)'로 세세히 평가하기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차별점을 보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육과정 이수현황만 평가할 경우 대학의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모집단위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과정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학교별 유불리가 발생하고, 내실 있는 수업 과정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포함(3.8점)'에 대한 동의 의견도 많은 편인데, 학생부 정량평가에 비해 학생의 종합적인 역량 파악이 용이하여 우수한 학생 선발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학생부교과전형의 특성인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학생부종합전형과의 차별성이 사라진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생부 전 영역 종합평가'에 대한 점수가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Ⅲ-89>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교육과정 이수 현황만 평가	11%	34%	17%	34%	3%	2.8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교육과정 및 교과 성적 종합 평가	3%	6%	6%	49%	37%	4.1
세부능력및특기사항 포함	3%	14%	14%	34%	34%	3.8
석차등급 미제공 교과만 정성평가	11%	34%	40%	11%	3%	2.6
학생부 전 영역 종합평가	29%	49%	14%	6%	3%	2.1

아래 <표 Ⅲ-90>은 델파이 2차 조사를 통해 수집한 주관식 의견이다.

<표 Ⅲ-90>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교육과정 이수 현황만 평가	[동의] ·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투입되면 시간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임. 학생부교과전형은 예측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모집단위 적합성에 대한 정량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현황만 평가한다면 효율적으로 보임 [비동의] · 교육과정 이수 현황만 평가하는 방법은 학생의 역량 평가보다는 학교 평가가 될 우려가 있음. 학생의 역량을 제공된 교육을 어떻게 이수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수 현황만 보는 경우는 피해야 함 · 교육과정 이수 현황만 반영할 경우, 학교 수업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수업 참여도, 과정형 평가, 발표 수업 등에서 학생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교육과정 및 교과 성적 종합 평가	[동의] · 2028 수능에서 미적분2, 기하가 빠지고, 통합사회/과학을 탐구 범위로 한정한 상황에서,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와 흥미를 바탕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어떤 성취를 이뤄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과목 개설 현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비동의] · 교과성적은 정량평가로 가능하므로 정성평가 영역 제외가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이므로 정성평가의 (실질)반영비율이 높지 않아야 함
세부능력 및	[동의] · 정량평가에 정성평가를 추가하면 학업역량 외 학생의 여러 역량을 평가할 수

항목	판단 근거
특기사항 포함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과정 이수 현황과 교과성적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선발가능하나, 미미한 정량평가의 점수만으로 우수 학생을 변별하는 것보다 교과 세특도 포함하여 평가할 때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동의] · 교과전형의 특성인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종합전형과의 차별성이 낮아짐
석차등급 미제공 교과만 정성평가	[동의] · 석차등급 미제공 교과 수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비동의] · 융합선택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
학생부 전 영역 종합평가	[비동의] · 학생의 교과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음. 학생부 내신등급+수능최저 또는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거나 내신등급 및 세특 정성평가+수능최저로 선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임 · 학생부 전 영역 종합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과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며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여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라) 학생부교과전형 기타 전형방법 방안

다음 <표 Ⅲ-91>에서는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얻은 학생부교과전형의 정량 및 정성평가 외 기타 전형방법 제안 관련 응답 내용이다. 여기서는 면접 평가 도입 및 강화,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 교과 변별력 약화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로운 수능 체계의 타당도 하락에 따라 오히려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구분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행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능등급 외에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도 있었다. 본 항목에 대해서는 2차 델파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표 Ⅲ-91>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기타 전형방법 제안

항목	판단 근거
면접 평가	-학생부 확인 위주 면접 -서술형/논술형 면접 평가 도입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학생부 교과 변별력 약화로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필요

항목	판단 근거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 및 등급 완화 또는 폐지 -새로운 통합형 수능 체계의 타당성 부족, 수험생 학업부담 완화
수능최저학력기준 표준점수 및 백분위 활용	-새로운 수능의 과목 범위 축소, 난도 하락으로 정교한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을 위해 등급보다 표준점수나 백분위 활용

2) 학생부종합전형

가) 대입전형 체계 변화에 따른 예상 문제점

2028 대입전형 체계 변화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 방식도 변화에 직면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의하였고, 주관식 의견을 아래 <표 Ⅲ-92>와 같이 정리하였다.

교과성적 변별력 약화, 성적 위주의 교과목 선택 심화, 고교유형별 유불리 심화 등 일부 내용은 학생부교과전형의 문제점 의견과 내용과 겹쳤다. 추가적으로 표준편차 정보 미제공에 따라 학교 간 차이 비교가 어려워져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업역량 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Ⅲ-92>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예상 문제점

항목	판단 근거
교과성적 변별력 약화	-기존 9등급 체제와 다른 성적 분포에 대한 적응 필요 -석차등급 이외 학업역량 평가방안 재정비 필요 -정성평가 방식의 질적 향상 및 평가 전문성 확보 필요
성적 위주의 교과목 선택 심화	-5등급 내신 및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반영으로 진로 관련 교과목 이수보다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 위주 이수 가능성 -교과 선택 현황을 통한 전공적합성 평가의 어려움
표준편차 미제공에 따른 학업역량 평가	-표준편차 미제공으로 단위학교 간 학업역량 비교 어려움
일부 유형의 고교에 유리한 평가 결과	-내신 변별력 약화로 교육과정/학생부 기재 우수 고교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률 상승 예상 -일반고 대비 특목/자사고 쏠림 현상 심화
졸업연도에 따른 유불리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졸업연도별 기준 마련 (예: 5등급제 1등급 vs 9등급제 1등급)

다음으로 수능 체계 변화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의 주관식 의견은 <표 Ⅲ-93>과 같다. 수능의 심화과목 제외로 학생부 과목 반영의 중요성이 높아지지만, 특히 사회, 과학탐구 수능 출제 범위가 줄어들어 2, 3학년 과목 수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Ⅲ-93> 수능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예상 문제점

항목	판단 근거
심화과목 제외로 학생부 교과목 중요도 상승	-심화수학, 과학/사회 선택과목 수능 미반영으로 해당 학교 교과목 중요성 높아짐
수능출제 이외 과목의 파행적 운영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닌 2, 3학년 선택과목이 수능 준비 위주 수업으로 변질될 경우 실제 수업이 부실하거나 세특 허위 기재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

해당 항목은 학생부교과전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델파이 2차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않았다.

나) 학생부종합전형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방안

다음으로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량평가 도입 방안을 질의했으며, <표 Ⅲ-94>에서 보듯이 교과목 이수 여부나 출석, 학교폭력현황 정량 평가 등의 내용 외에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표 Ⅲ-94>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정량평가 방안 제안

항목	판단 근거
교과목 이수 여부	-자연계열 모집단위 수학/과학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정량평가 필요
출석 및 학교폭력현황	-출결 및 학교폭력현황의 정량 평가 가능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항목별 인식 조사는 다음 <표 Ⅲ-95>와 같다. ‘교과성적 변별력 약화(3.8점)’, ‘일부 유형의 고교에 유리한 평가 결과(3.7점)’에 대한 동의 의견이 높은 편으로,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의견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성적 위주의 교과목 선택 심화(3.2점)’, ‘졸업연도에 따른 유불리(3.3점)’의 동의 의견은 낮았다.

<표 Ⅲ-95>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예상 문제점 판단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교과성적 변별력 약화	3%	6%	20%	49%	23%	3.8
성적 위주의 교과목 선택 심화	9%	26%	20%	26%	20%	3.2
일부 유형의 고교에 유리한 평가 결과	6%	6%	17%	54%	17%	3.7
졸업연도에 따른 유불리	6%	14%	40%	29%	11%	3.3

이러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Ⅲ-96>과 같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 유형, 학교 및 교사의 노력에 따라 학생부 기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내신 체계에서는 등급 간 간격은 좁아지는 반면, 학생부 기재에 따른 유불리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한 편이다. 졸업연도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이유로 재학생 또는 N수생의 강세를 예측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표 Ⅲ-96>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교과성적 변별력 약화	[동의] · 학업역량 평가에서 내신 교과별 성적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내신 1등급(10%이하) 위주의 성적을 보유한 지원자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 동점자 처리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정성평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함 [비동의] ·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성적 외 학업역량과 학업태도 등을 함께 평가하므로 교과성적 변별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성적 위주의 교과목 선택 심화	[동의] · 석차등급 산출 과목 증가로 수강자수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이 우려되며, 과목 선택에서 1순위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보다는 높은 등급 받기가 될 것임 [비동의] ·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 산출 비율이 10%로 증가되었기에 오히려 자신의 진로와 흥미를 고려한 교과목 선택 및 이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함 · 학생부종합전형 준비하는 학교에서는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적받기 유리한 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음. 5등급제로 등급 인원의 확대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 자율성은 반영될 것임
일부 유형의	[동의] · 지방 일반고와 자사고나 특목고 등과 차이에서 발생하는 유불리, 학교 및 교사 간

항목	판단 근거
고교에 유리한 평가 결과	유불리로 학생들의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됨 · 일반고의 경우 수업 개설 의도와는 다르게 학생들은 높은 석차등급을 위해 내용이 쉽고 인원수가 많은 과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 특목고보다 정성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됨
졸업 연도에 따른 유불리	[동의] · 2028학년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 비율이 높아질 경우 정성평가 대비를 위한 세특 기재 등 학교의 노력이 심화되어 기존 졸업생과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5등급제 대비 9등급제 1등급이 더 우수해 보이는 효과는 막을 수 없음. 성적 변환을 하더라도 촘촘한 9등급제 N수생이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 [비동의] · 졸업 연도에 따라 유불리 현황은 학생부교과전형보다 정성평가 기반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심각성이나 문제점이 약화할 것임 · 평가지침 기준만 명확히 수립된다면 오히려 정성평가로 해소할 수 있음

다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전형 방법 제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는 <표 Ⅲ-97>에서 정리하였다. ‘개인별 선택과목 이수 현황 평가 강화(4.4점)’, ‘석차등급 외 성취도 적극 활용(4.3점)’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고,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정성평가 강화(3.9점)’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에서는 교과등급의 변화는 있지만 기존 평가에 대비해서 다른 전형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평가방안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평가방안을 심화시키는 수준에서 평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표 Ⅲ-97>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개인별 선택과목 이수 현황 평가 강화	0%	0%	11%	37%	51%	4.4
석차등급 외 성취도 지표 적극 활용	3%	0%	9%	40%	49%	4.3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정성평가 강화	6%	0%	29%	34%	31%	3.9

아래 <표 Ⅲ-98>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진로와 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주도적인 과목 선택 현황을 정성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단순히 석차등급 및 성취도 지표만 활용하지 않고 등급 내 학생의 학업역량을 판단하고

변별할 수 있는 각종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현황의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충실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교 환경에 따른 교육과정 미이수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표 Ⅲ-98>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개인별 선택과목 이수현황 평가 강화	[동의] · 개인별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의 성장과 고민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이수 현황 평가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2022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학 탐구과목에 세분화되기 때문에 선택과목 이수현황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될 것임
석차등급 외 성취도 지표 적극 활용	[동의] · 자기주도적 과목 선택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석차등급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동일 석차등급 내에서 어떤 역량을 보이는지 구분하여 평가해야 함 · 석차등급과 성취도만 반영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소수점 배점으로 등급만 구분함으로써 학교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다양한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학업역량 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성적 지표를 활용해야 함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정성평가 강화	[동의] · 일부 고교에서는 교과목별 이수단위를 줄이고, 이수 과목 숫자를 증가시키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고교별 교육과정 차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특정유형의 고교에 대한 유불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임 [비동의] ·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은 학교의 의지 외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될 수 있음. 지역적인 상황과 고교 유형별의 상황 등도 산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다) 학생부종합전형 기타 전형방법 방안

다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정량, 정성평가 외의 기타 전형방법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주요 의견을 <표 Ⅲ-99>와 같이 제시하였다. 면접평가 강화,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또는 약화 등의 추가 의견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Ⅲ-99> 2028학년도 전형 방법 제안(수능최저학력기준 및 기타 전형요소)

항목	판단 근거
면접평가 강화	-내신성적 변별력 약화, 부풀려진 생부 내용 검증을 위한 면접평가 강화 필요 -기존보다 면접 시간 및 면접 대상인원 확대 필요 -학업역량 검증을 위한 교과 및 제시문 면접 확대 필요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학업성적 변별력 약화로 학업역량 추가 검증 필요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약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맞는 고교 수업 및 활동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최소 반영 필요 -개편된 수능 체계는 학교교육 정상화 및 2022 개정교육과정과 방향이 맞지 않으므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필요

3) 논술전형

가) 대입전형 체계 변화에 따른 예상 문제점

2028학년도 고교 내신 체계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라 현행 논술전형을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주관식 의견을 수합했고 <표 Ⅲ-100>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Ⅲ-100> 고교 내신 체계 및 수능 체계 변화에 따른 논술전형 예상 문제점

항목	응답 결과
교과 내신성적 반영 비율의 실질적 저하	-내신등급 5등급 조정으로 교과 성적 변별력이 약화되고 동점자를 양산할 가능성 -학생부 반영 축소는 학교 교육활동의 불성실한 참여로 이어질 여지
논술 출제범위 축소	-수능 범위 축소(특히 수학, 과학)로 새로운 논술 교과목 범위 선정 필요(진로선택, 융합선택까지 확대 검토) -변별력있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 출제의 어려움
수능최저학력기준 조정	-통합수능(통합과학 필수 응시)으로 자연계열 대비 인문계열 지원자의 절대적인 불리함이 예상되므로 인문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 재조정 필요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정량 평가를 반영할 경우 동점자를 양산할 수 있고, 수능 범위 변경에 따라 논술 교과목 범위 재논의 및 수능최저학력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논술전형 전형 방법 제안

2028학년도 이후 각 대학의 논술전형 운영 시 적절한 전형 방법에 대해 델파이 1차 주관식 의견을 수합하였으며, 2차 조사를 통해 다음 <표 Ⅲ-101>과 같이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Ⅲ-101> 2028학년도 논술전형 전형 방안의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수능 과목 및 학생부 공통과목 내 문제 출제	9%	14%	20%	31%	26%	3.5
학생부 교육과정 이수현황 평가 반영	14%	31%	14%	29%	11%	2.9
학생부 정량평가 및 출결 반영	3%	6%	20%	43%	29%	3.9
자연계열 과학교과도 반영	9%	9%	31%	40%	11%	3.4
약술형 및 서논술형 문항 개발	3%	9%	23%	54%	11%	3.6

여러 의견 중 ‘학생부 정량평가 및 출결 반영’이 3.9점으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학교교육 충실도를 반영하기 위해 논술전형에 학생부 교과 평가 및 출결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술형 및 서·논술형 문항 개발(3.6점)’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현재 논술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어려운 논술이라는 점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약술형 논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교교육을 통해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교육과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구분되었다. ‘수능 과목 및 학생부 공통과목 내 문제 출제(3.5점)’도 논술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과 개설에 따른 불이익을 줄인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한정된 교과범위 내 출제는 미적분, 기하 등의 과목 제외에 따라 논술전형의 변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동의 의견도 있

었다. ‘자연계열 과학교과도 반영(3.4점)’ 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로운 수능에서 통합과학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학 교과 반영을 찬성하거나 깊이 있는 수학, 과학 지식 측정을 위해 수학 외 과학 교과를 논술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다만, 대학의 출제 여건 대비 효용성을 지적하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학생부 교육과정 이수현황 평가 반영(2.9점)’ 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 논술전형에서도 모집단위 관련 학업역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전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논술전형까지 전공적합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Ⅲ-102>에서 제시한다.

<표 Ⅲ-102> 2028학년도 논술전형 전형 방안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수능 과목 및 학생부 공통과목 내 문제 출제	[동의] · 수능 과목 및 학생부 공통과목 내 문제 출제 기조가 되면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수험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교육환경 내에서 공부하고 탐구하고 표현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될 것임 · 논술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고력과 논리력을 측정하는 전형의 특성에 맞게 수능 과목과 학생부 공통과목 내 출제가 바람직함 [비동의] · 선택과목 출제 금지는 미적분 및 기하 출제 금지로 이어지는데, 수학에서 기존 수능 범위내로 출제를 한정지으면 자연 및 공학계열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교과 선택의 자율권이 필요함
학생부 교육과정 이수현황 평가 반영	[동의] · 논술전형의 학생부 교육과정 이수현황 반영을 통해 고교현장과 대입정책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지식을 학습할 학업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이수현황도 확인해야 함 [비동의] · 논술전형에 주로 응시하는 지원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방향임. 수능위주전형에서도 학생부 요소의 확대 추세와 무전공 모집단위 확대를 고려했을 때 논술전형까지 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학생부 정량평가 및 출결 반영	[동의] · 논술전형에서도 학교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최소한의 반영비율로 교과(내신) 및 출결 반영 필요
자연계열	[동의]

항목	판단 근거
과학교과도 반영	· 새로운 수능 체계에서 통합과학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위배하지 않는 정도에서 통합과학의 자연계열 논술출제를 고려할 만함 · 대학의 출제 여건과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전공(학과)에 따른 과학교과를 반영하는 것도 적절함. [부정적 측면] · 통합과학 수준의 과학교과 출제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음 · 대체로 많은 대학들이 과학교과에서 출제한 출제 풀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됨
약술형 및 서논술형 문항 개발	[동의] · 학교교육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별도의 추가 노력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점에서 약술형 논술 확대가 바람직함 · 사교육 영향력을 줄이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 난이도 조절 필요 [비동의] · 논술 대비 상대적으로 쉬운 약술형 논술전형의 확대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학교교육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려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보다 약술형 논술 준비 가능성이 높아짐

4) 실기/실적위주전형

가) 실기/실적위주전형 전형 방법 제안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2028 대입전형 체계 변화에 따른 실기/실적위주전형의 예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학생부위주전형 및 논술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소수의 의견만 도출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전형방법 제안의 적절성을 다음 <표 Ⅲ-103>에서 제시한다.

<표 Ⅲ-103> 2028학년도 실기/실적전형 전형방법의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교과성적 비중 확대	6%	14%	26%	46%	9%	3.4
출결상황 비중 확대	0%	3%	11%	43%	43%	4.3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고교 교육과정 내 실기 과제 반영	6%	23%	29%	34%	9%	3.2
비실기 전형 확대	9%	17%	20%	37%	17%	3.4

실기/실적전형에서는 '출결상황 비중 확대' 의견이 4.3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교과성적 비중 확대(3.4점)', '고교 교육과정 내 실기과제 반영(3.2점)', '비실기 전형 확대(3.4점)' 의견은 찬반이 나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04>에서 보듯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실기전형의 특성 상 출결상황 비중 확대에 많은 전문가가 찬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표 Ⅲ-104> 전형 방법 제안

항목	판단 근거
교과성적 비중 확대	· 고교교육 충실성 및 수학능력 점검을 위해 교과성적 비중 확대 필요
출결상황 비중 확대	· 학원을 통한 실기 준비 등으로 출결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실기/실적전형에도 출결상황 전형방법에 반영
고교 교육과정 내 실기 반영	· 현재 실기시험은 어느 전형보다 과도한 사교육이 필요 · 공교육 교육과정 틀 내에서 습득가능한 기초 요소로 실기 진행
비실기 전형 확대	· 학종 방식 학교교육 충실성 확인(예체능 교과 정성평가), 실적 및 포트폴리오 대체 등의 방식 도입 검토

5) 수능위주전형

가) 대입전형 체계 변화에 따른 예상 문제점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다음 <표 Ⅲ-105>와 같이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에 따른 수능전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문하였다. 수능 체계의 변화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필수로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전형의 새로운 교과영역별 반영비율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기존 수능 대비 범위 축소에 따라 특히 자연계열 과목의 수능시험 타당도가 낮아지고 학생부 교과 등을 통한 추가적인 학업역

량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과목 상황에서도 상위권 문이과 모집단위에 많이 합격하는 상황에서 사회/과학탐구영역의 확대 반영은 이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전형 설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표 Ⅲ-105> 대입전형 체계 변화에 따른 수능전형 예상 문제점

항목	판단 근거
학생부 정량평가 변별력 하락	· 5등급 내신 체계에서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정량평가를 반영하더라도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
수능 체계에 맞춘 영역별 비율 설정	· 사회탐구, 과학탐구 필수 응시로 새로운 교과영역별 반영비율 설정 필요
수능 범위 축소로 학업역량 확인 어려움	· 기존 수능 대비 수학, 탐구영역의 범위 축소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깊이있는 학습 확인이 어려움 · 자연계열의 경우 수능의 타당도가 훨씬 낮아질 수 있음 · 심화 수학 역량 확인을 위해 학생부 교과 이수 및 학업성취 수준 확인이 필요함
사회, 과학탐구 우수 점수 독식 우려	· 사회탐구, 과학탐구 공통 응시로 전체 성적 우수자가 계열별 높은 점수를 전체적으로 점유할 가능성 · 자연계열 우수 학생들이 사회탐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소위 '문과 침공'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나)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새로운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능위주전형에 활용 가능한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을 델파이 1차를 통해 조사하였고, 다음 <표 Ⅲ-106>과 같이 총 8개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하였다.

<표 Ⅲ-106>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학생부 정량평가 도입 불필요	17%	37%	17%	17%	11%	2.7
수능 100% / 수능+정량평가 전형의 이원화	9%	17%	20%	43%	11%	3.3
평균 석차등급 점수 반영	20%	14%	34%	31%	0%	2.8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내신 구간별 환산점수 부여	9%	23%	23%	40%	6%	3.1
원점수, 성취도별분포비율, 수강자수 등 석차등급 외 항목 추가 활용	23%	26%	20%	29%	3%	2.6
수능 출제 외 과목만 정량평가	23%	40%	20%	11%	6%	2.4
교과 이수 내역 평가 반영	9%	11%	20%	46%	14%	3.5
출결, 학폭 정량 반영	0%	3%	3%	57%	37%	4.3

학생부위주전형과 비교하면 수능위주전형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도입에 점수가 높지 않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출결, 학폭 정량 반영(4.3점)’으로 수능위주전형에서도 교실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3학년 2학기까지 성실하게 출결을 이수했는지 반영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정시전형에서 ‘학생부 정량평가 도입 불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었는데, 수능위주전형만큼은 교과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패자부활전의 성격으로 수능위주로 전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수능위주전형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의 충실도를 학생부 교과를 통해서 일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평균 석차등급 점수 반영(2.8점)’, ‘내신 구간별 환산점수 부여(3.1점)’, ‘원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 수 등 석차등급 외 항목 추가 활용(2.6점)’ 등의 세부적인 교과성적 반영 방법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점수 위주의 단순한 수능전형의 특성상 다양한 영역의 학생부 교과 정보를 활용한 정량평가 도입은 전형의 복잡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시 전형의 ‘수능 100%/수능+정량평가 전형의 이원화’ 전략에 대해서는 3.3점을 부여받았다. 다양한 학생들의 그룹에게 각각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졸업생에게 유예기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과도기 전략으로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정시 전형의 복잡화에 따른 진학 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었다.

<표 Ⅲ-107>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안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학생부 정량평가 도입 불필요	[동의] ·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N수생, 해외고 출신자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정적 측면] · 학교생활의 지속적인 충실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전형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 · 고등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성실히 준비한 학생이 수능만 대비한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준다는 점에서 정량평가 도입이 바람직함 ·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 수능이 자격고사화 될 우려도 있기에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도 학생부 정량평가 도입은 필요함
수능 100% / 수능+정량평가 전형의 이원화	[동의] · 수능전형 특성의 학생을 선발함과 동시에 고교 현장에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학교 수업에 더 참여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음. 다만, 학과별 모집인원 분배에 신중해야 함 · 졸업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수능 100 전형과 수능+학생부 정량평가 전형의 이원화가 필요함 [비동의] · 수능 100전형과 수능+학생부 정량평가 전형으로 정시 전형이 이원화되면 진학지도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학생이나 학부모의 혼란으로도 이어질 것임
평균 석차등급 점수 반영	[동의] · 평균 석차등급이 모든 과목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것이기에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식이라고 판단함
내신 구간별 환산점수 부여	[동의] · 평균 석차등급을 점수화할 수도 있지만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에게도 수능전형 지원자에게는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임. 성취도는 2028 대입 이후 고교현장의 상황을 보고 활용여부를 판단해도 됨. · 수능 시험 준비와 고교 생활의 성실성을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는 방안임 [비동의] · 내신 구간별 점수의 반영은 학생부 반영의 의미를 퇴색하는 한 단면이라고 판단함. 등급에 의한 정량적인 수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원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등 석차등급 외 항목 추가 활용	[비동의] · 수능전형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너무 전형이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움 · 학생의 노력이 아닌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함
수능 출제 외 과목만	[비동의] · 수능 출제 외 과목의 이수 내역과 이수 단위가 학교의 종류(일반고, 특목고,

항목	판단 근거
정량평가	특성화고 등)와 개별 학생마다 다르므로 수능 출제 외 과목만 정량평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정량평가를 반영하여 학교생활 중 학생의 학업역량을 평가에 포함하겠다는 의도라면 전교과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수능위주전형의 취지를 살린다면 교과 정량평가를 배제하는 것이 적절함
교과 이수 내역 평가 반영	[동의] · 통합형 수능도입에 따라 수능만으로는 학생의 지원계열 적합도를 알 수 없어 교과 이수 내역 평가를 통해 계열 특성 평가 반영이 필요 · 모집단위 인재상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학생부 교과 이수 내역 평가 가능 [비동의] · 학생 진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과이수 내역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정시 전형의 취지나 정시 전형 준비 학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교과 이수내역 평가는 교과전형, 종합전형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결, 학폭 정량 반영	[동의] · 3학년 2학기까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출결은 미인정 지각/조퇴/결과/결석 반영 외 질병 지각/조퇴/결과/결석 반영이 필요함. · 학폭도 정량적으로 평가하되, 별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새로운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능위주전형에 활용 가능한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을 델파이 1차를 통해 조사하였고, 다음 <표 Ⅲ-108>과 같이 총 8개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표 Ⅲ-108>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 불필요	17%	29%	34%	6%	14%	2.7
수능 100% / 수능+학생부 정성평가 전형의 이원화	6%	26%	20%	43%	6%	3.2
교육과정 이수요건 제시 및 평가 반영	6%	17%	20%	43%	14%	3.4
교과 성적 종합평가	3%	29%	20%	29%	20%	3.3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학생부 전반 정성평가	11%	51%	17%	14%	6%	2.5
출결, 학폭 정성 반영	0%	17%	11%	34%	37%	3.9

전체적으로 학생부위주전형 대비 점수가 낮은 가운데,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 불필요’ 의견이 2.7점으로 학생부 정량평가 도입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나뉘었다. 반대하는 입장은 수능위주전형의 전형 특성이 타 전형과의 차별화 없음, 전형 일정 및 진학지도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었고, 찬성 입장은 수능시험의 타당도 저하에 따른 학생부 추가 전형요소 필요성을 들었다.

‘출결, 학폭 정성 반영(3.9점)’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교육과정 이수요건 제시 및 평가 반영(3.4점)’ , ‘교과 성적 종합평가(3.3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특히 ‘학생부 전반 정성평가(2.5점)’ 는 수능위주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수능위주전형에서 고교 교육을 반영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히 교육과정 이수요건 제시 등의 정성평가는 수능위주전형에서도 최소한의 학교교육의 충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능 시험 과목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신 교과목의 선택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이 모순적이라는 의견도 눈에 띈다. 또한, 수능의 변별력은 여전히 확보되나 타당도 측면에서 후퇴하기 때문에 학업역량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부 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검정고시, N수생 등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전형으로서 수능위주전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래 <표 Ⅲ-109>에서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표 Ⅲ-109>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안 적절성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 불필요	[동의] · 수능최저를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전형 특성의 차별화도 쉽지 않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비슷한 전형요소로 평가를 진행한다면 굳이 전형을 구분하여 모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평가 일정도 촉박하여 정성평가에 무리가 있음 · 정성평가는 정시 입시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예측이 어려움 [비동의] · 학생들의 지원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나 학과일 경우 수능 100으로 선발이

항목	판단 근거
	어려우며 학생부 등을 통한 추가 전형요소가 필요함
수능 100% / 수능+학생부 정성평가 전형의 이원화	[동의] ·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모집단위 특성과 대학별 수준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이 학생 모집과 우수학생 선발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음 [부정적 측면] ·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음
교육과정 이수요건 제시 및 평가 반영	[동의] · 교육과정 이수 요건의 제시 및 평가 반영은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의 정상화에 기여 · 교육과정 이수요건 제시는 수능전형 지원자의 고교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거름망으로 작용 가능함 [비동의] · 수능 시험의 교과목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 선택 교육과정 운영은 적합하지 않음 · 대학이 교육과정의 최소한 과목 이수 현황을 제시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나치게 서로 상이한 방식을 활용할 경우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교과 성적 종합평가	[동의] · 교과 성적에 대해 동점자가 많을 것이므로 교과이수현황 등의 정성평가적 요소 반영 필요함 · 20228 수능은 변별력은 확보될 수 있으나, 타당도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과 영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장치가 확보되어야 함
학생부 전반 정성평가	[동의] · 출결이나 학교폭력조치사항, 교과이수현황 등 인성적인 요소나 전공 관심도 평가를 위해 10% 내외의 비율로 정성평가하는 방안은 적절해보임 [비동의] · 수능위주전형에서 학생부 전반 정성평가 반영은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정성평가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일부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평가 과정에 왜곡 또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출결, 학폭 정성 반영	[동의] · 학폭의 대학입시 반영은 정량 또는 정성 평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에서 출결상황 점검을 통한 성실성 평가가 필요함 [비동의] · 수능위주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과 달리 N수생들과 검정고시 출신자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능 성적 이외의 요소는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함

6) 2028 수능 체계 변화와 고교 및 대입전형 미치는 영향

다음은 2028 수능 체계 변화가 고교 및 대입전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Ⅲ-110>은 그 응답 결과이다.

‘수능출제 이외 교과목 수업 운영 파행 우려’에 대한 점수가 4.0점으로 높았고, ‘수학, 탐구영역 범위 축소에 따른 깊은 학습 확인 어려움(3.8점)’, ‘수능 과목 축소로 고교 교육과정 이수 중요성 확대(3.8점)’, ‘사회, 과학탐구 공통 응시로 자연계 학생 점수 독식 우려(3.6점)’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표 Ⅲ-110> 2028학년도 수능 체계 변화가 고교 및 대입전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수학, 탐구영역 범위 축소로 대학에서 필요한 깊이있는 학습 확인이 어려움	3%	14%	11%	46%	26%	3.8
수능 과목 축소로 고교 교육과정 이수의 중요성 확대	3%	3%	26%	46%	23%	3.8
수능출제 이외 교과목 수업 운영 파행 우려	0%	11%	14%	34%	40%	4.0
사회, 과학탐구 공통 응시로 자연계 우수 학생의 높은 점수 독식 심화 우려	3%	11%	26%	43%	17%	3.6

<표 Ⅲ-111>에서 응답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적분Ⅱ, 기하 등 수학과목과 과학/사회 탐구과목의 선택과목이 수능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어 수능성적 우수자의 학업역량 타당도의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수능과목의 축소에 따라 수능 출제 외 과목에 대한 수업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교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의 기본・심화 과목 이수를 위해 적극적인 선택을 권장하고, 대학은 이를 전형별 평가요소로 구체화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Ⅲ-111> 2028학년도 수능 체계 변화가 고교 및 대입전형에 미치는 영향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수학, 탐구영역 범위 축소로 대학에서 필요한 깊이 있는 학습 확인이 어려움	[동의] · 미적분2, 기하, 탐구 선택과목이 수능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어 특히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심으로 수능성적 지표만으로 우수 학생 판단이 어려움 · 수학영역은 자연계열에 권장과목인 미적분이나 기하 등이 제외되어 고교에서 배울 수학교육이 대학으로 이관되어 대학생활 부적응이나 지적 수준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수능 과목 축소로 고교 교육과정 이수의 중요성 확대	[동의] · 수능 미포함 심화과목 이수와 세특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진로 방향성에 맞는 기본, 심화 학습을 적극적으로 이수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 미포함 부분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과목 선택 및 이수가 필요함
수능출제 이외 교과목 수업 운영 파행 우려	[동의] · 학생부 교과성적의 변별력 약화에 따라 학생부 정성적 요소를 더욱 크게 반영하거나 수능최저학력기준 신설 및 강화를 통해 수능성적을 크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뉠 것임. 이에 따라 고교에서 수능성적 향상에 노력하면 수능출제 이외 교과목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임 · 3학년 이수 과목 중 수능 출제 과목이 줄어들면서 학교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사회, 과학탐구 공통 응시로 자연계 우수 학생의 높은 점수 독식 심화 우려	[동의] · 수능 성적 우수 고교일수록 상위권 인문계 학생은 거의 없으며, 수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함. 사회탐구도 자연계 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일 것으로 추측됨 [비동의] · 통합형 수능으로 전환된다면 선택형 수능 시대보다는 자연계 독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해당 성적 분포를 인문계/자연계로 나누어볼 것이 아니라 성적 자체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분포된 자연계 학생 그룹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독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생각됨

7)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적합한 고교 교육과정-대입 전형 연계방향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의 취지에 따른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의 연계 방향을 주관식으로 질의하였고, 응답 결과를 수합하고 5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동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아래 <표 Ⅲ-112> 5가지 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교육과정 선택과목 충실한 반영' 이 4.5점,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및 수능비율 축소' 가 4.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무전공 및 자율전공 평가 방안 공유(4.0점)' , '교과, 수능전형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4.0점)' , '대학 모집단위별 권장과목 안내(3.9점)' 등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Ⅲ-112>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따른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방향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및 수능비율 축소	0%	0%	17%	29%	54%	4.4
교육과정 선택과목 충실한 평가 반영	0%	0%	0%	49%	51%	4.5
교과, 수능전형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	3%	6%	17%	46%	29%	3.9
대학 모집단위별 권장과목 안내	0%	6%	29%	31%	34%	3.9
무전공 및 자율전공 평가 방안 공유	0%	9%	23%	31%	37%	4.0

아래 <표 Ⅲ-113>에서 상세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늘리고, 수업 과정의 질적 향상과 수업과 연계된 평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수능시험과 교과 석차등급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서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전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전형 간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타 전형에서 학생부 평가를 도입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고교 입장에서는 대학이 모집단위별 선택과목 안내를 충실히 공지하고, 무전공 및 자율전공 등 새로운 모집단위 이슈에 부응하여 평가 방향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13>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따른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방향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및 수능비율 축소	[동의] ·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임. 개정된 수능 체계에서는 공통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수능에 대한 강조는 수능몰입형 수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통해 재학생들의 합격 사례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사교육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음
교육과정 선택과목 충실한 평가 반영	[동의] ·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며, 대입에서 계열 및 모집단위별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한다고 한다면, 고교 교육과정 내 선택과목의 충실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함 · 대입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선택과목의 충실한 평가 반영을 통해 수능의 한계와 교과 내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교과, 수능전형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	[동의] · 5등급제로 인한 교과전형에서의 내신에 따른 변별력 약화, 학교교육과 괴리된 수능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교과전형과 수능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것임 [비동의] · 학생부교과전형에 학생부 정성평가를 반영하면 학생부종합전형과 다를 바 없으며, 수능전형에 정성평가를 반영하면 입시지도에 어려움이 큼
대학 모집단위별 권장과목 안내	[동의] · 모집단위 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 안내는 필요하다고 판단함 · 모집단위별로 핵심이수 또는 권장이수 과목을 사전에 공지하여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함 [비동의] · 대학 모집단위별 권장과목은 과목선택의 가이드 역할과 함께 과목 간 창의적인 조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대학마다 무분별한 권장과목의 발표는 지양해야 함
무전공 및 자율전공 평가 방안 공유	[동의] · 고교 현장에서 무전공 및 자율전공 평가 이해가 부족하므로, 실제 평가 과정 공유는 대입전형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됨

8)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실현을 방해하는 정책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연계에 걸림돌이 되는 대입제도나 정책에 대해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의견을 받았고, 이를 아래 <표 Ⅲ-114>와 같이 정리하여 총 10가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각 문항의 동의 정도와 판단 근거를 조사하였다.

<표 Ⅲ-114>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대입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견의 적절성

구분 / 성적지표	응답 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수시/정시 구분	11%	17%	20%	26%	26%	3.4
정시 가/나/다군 구분 운영	11%	29%	23%	14%	23%	3.1
현행 수능 시험 방식	11%	26%	31%	26%	6%	2.9
주요 대학 수능 40% 이상 선발	0%	17%	14%	20%	49%	4.0
교과 전형 10% 이상 선발	0%	17%	20%	26%	37%	3.8
학생부 제공 항목 제한	9%	20%	26%	26%	20%	3.3
학생부 학업자료 제한적 제공	11%	14%	26%	29%	20%	3.3
학생부 세특 기재 방식	9%	11%	17%	43%	20%	3.5
고교 정보 블라인드	20%	9%	9%	40%	23%	3.4
자기소개서 폐지	14%	26%	9%	26%	26%	3.2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주요 대학 수능 40% 이상 선발' 로 4.0점을 기록하였다. 교육부 정책 상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은 현재 수능위주전형에서 모집인원의 40%를 선발할 것을 권장하는 상황이다. 응답자들은 이 정책이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한편, 주요 대학의 과도한 수능전형 선발이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부교과전형 10% 이상 선발(3.8점)' 정책에 대한 동의가 높다. 특히 학생부 교과성적 5등급화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의 변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비교과 평가요소를 도입하면 학생부종합전형과의 차이점이 크지 않다는 점에

서 대학의 모집인원 설정의 자율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 자율화로 대학에서 모집인원을 축소할 경우 기존 학생부교과전형에 유리한 고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생부 세특기재 방식(3.5점)’의 변화 목소리도 높은 편인데, 학생부 기재가 학교 및 교사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 세특 양식 변화가 필요하며, 학생부 기재가 수업 내용의 기재보다는 탐구보고서 기재 방식으로 변질되면서 고교에서는 기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학으로서는 변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논리이다.

‘수시/정시 구분 폐지(3.4점)’는 고교 입장에서는 3학년 2학기 수업 파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지만, 현실적으로 고교와 대학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정시 가/나/다군 구분 운영(3.1점)’은 현행 방식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방식 유지는 군 통합 시 다수 미충원 발생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폐지 측에서는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부 평가의 정시 도입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들고 있다.

‘현행 수능 시험 방식(2.9점)’이 수능 도입 취지와는 달리 학생 선발 도구로 변질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선다형 수능에서 서논술형, 절대평가형 수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수능 이원화 정책이나 서논술형 수능 도입은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하고 수험생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학생부 제공 항목 제한(3.3점)’은 두 입장으로 나뉜다. 다양한 학생 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부 항목 기재 제한의 완화를 바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개인봉사활동, 수상경력 등 학생부 기재 부활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고,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를 원하는 입장도 있다.

‘학생부 학업자료 제한적 제공(3.3점)’은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델파이 문항 제작 이후인 2025년 1월에 교육부에서 지필평가/수행평가 비중, 수행평가 영역명, 성취도별 분할점수, 과목 개설 유형, 과목 이수 상황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필평가/수행평가 비중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점수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수업 과정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성취평가제에서 중도탈락자를 막기 위해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3.4점)’은 고등학교 교육환경을 이해한 평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공정성 확보 노력의 유지와 블라인드 정책 폐지가 오히려 일부 고교 유형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현행 유지를 바라는 입장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폐지(3.2점)’ 정책은 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기록만으로 평가 자료로 부족하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폐지의 의견이 많은 편이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교사의 업무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표 Ⅲ-115>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대입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견의 적절성 판단 근거

항목	판단 근거
수시/정시 구분	[동의] · 수시/정시 통합을 통해 대학은 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고교는 3학년 2학기 파행적인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수시, 정시의 시기적 구분으로 3학년 시기의 반 이상은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낭비되고 있음 ·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미등록충원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대학별 정시모집 선발비율이 양극화되는 수시/정시 통합운영의 고민이 필요함 [비동의] · 현실적으로 수능 이후 2월까지 모든 전형을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과 고교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정시 가/나/다군 구분 운영	[동의] · 현재 방식 유지할 경우 지원자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짐 · 가나다군을 통합으로 운영하면 대학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비동의] · 가나다군으로 묶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 해당 군을 통합 운영하여 성적에 맞게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나다군 통합을 통해 평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수능 시험 방식	[동의 ·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원래 수능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을 선발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현재 수능의 선다형, 단답형 시험은 제대로 된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지 못함. 수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등 적합한 평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비동의] · 수능을 이원화하여 서논술형 평가 등을 도입하면 사교육도 증가하고 학생의 부담이 더 커짐

항목	판단 근거
주요 대학 수능 40% 이상 선발	[동의] ·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유형별 비율 설정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 보장을 침해함 · 주요 대학 수능 40% 이상 선발 정책은 수능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만들어 고교교육과정 파행 운영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수능전형 모집인원의 증가로 3학년 2학기 수업 파행, 교실 교육과정 붕괴, 자퇴생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에서도 중도탈락률 증가 등 문제가 발생
교과 전형 10% 이상 선발	[동의] · 교과전형의 변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학의 상황과 모집단위 수준을 고려하여 선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도권 대학의 교과전형은 5등급제 하에서 내신 성적 변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비동의] · 기존 학생부교과전형에 유리한 고등학교 지원자에게 불리함
학생부 제공 항목 제한	[동의] · 학교 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독서활동, 개인봉사활동 등의 기재 부활이 필요함 · 독서활동 등의 기재 제한이 해제되면 평가를 통해 학생의 관심분야와 깊이를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비동의] · 수상경력 과열 방지 및 개인 봉사활동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제한 필요 · 과도한 행정 업무, 학생부 기재업무 과다 등 부작용이 부활하여 교사에게 부담 가중 가능
학생부 학업자료 제한적 제공	[동의] · 지필/수행평가 비율 공개를 통해 원점수에 대한 대학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학교들은 미이수 대상자 최소화나 성취도 부풀리기 등을 위해서 성적 부풀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데, 평균을 높게 하기 위한 과도한 노력, 수행평가의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지필과 수행의 비율, 그 평균 점수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동의] · 최근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제공하기로 한 수행평가 비중 및 수행평가 영역명 제공은 오히려 대입전형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 지필/수행평가 비율을 공개한다고 높은 수행평가 비중을 보이는 학교에 불이익을 부여하기 어려움. 성취평가제에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평

항목	판단 근거
	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타당하며 성적 부풀리기를 평가 비율을 통해 평가하기 어려움 · 지필/수행평가 비율을 정량적으로 활용한다면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임
학생부 세특 기재 방식	[동의] ·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교 및 교사에 따른 차이가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량 중심 평가 및 기록에 대한 학교별, 교사별 인식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 학생부 세특 기록 양식을 변경할 필요 있음. · 교과별 세특이 교과의 특성에 맞고 수업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형 세특이 아닌, 진로형 세특으로 변질되고 교과목에 억지로 심화탐구 및 보고서 등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교과 세특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함
고교 정보 블라인드	[동의] · 고교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고교 교육 환경을 이해하고 학생 개인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평가를 위해 정책 폐지가 적절함 · 블라인드를 통해 일부 학교에 대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함 [비동의] ·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에서 블라인드 평가방식은 선입견없는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현행 유지해야 함 · 폐지할 경우 일반고 대비 특목과와 자사고 등에 유리할 가능성이 커짐 · 고교 정보 블라인드 폐지는 공정성 확보 노력의 폐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유지가 적절함
자기소개서 폐지	[동의] · 학생부 기재의 주체는 교사이지만, 자기소개서의 기록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음. · 예년 같은 과도한 분량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1~2문제 정도 부담이 없는 정도의 자기소개서 정도는 필요함 · 대입제도 공정성이라는 과도한 규제의 결과 학생부에서 학생을 드러내는 기록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오로지 교사의 평가 결과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만이 제한적으로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비동의] ·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이나 교사에게 의존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소개서 폐지는 매우 긍정적임 · 교사에게 의존하는 자기소개서 폐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킴

3. 전문가심층면접(FGI)

가. 전문가심층면접(FGI) 개요

1) 전문가심층면접(FGI) 설계

전문가심층면접(FGI)은 2024년 9월 4일과 2025년 2월 11일 총 2차례 실시하였다. 1차(2024.9.4) 전문가심층면접(FGI)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에 따른 2028 대학입학전형 설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교사, 대입지원관, 입학사정관 8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기본 방향, 이번 공동연구에서 꼭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나 중요 점검 사항 및 교육부 2028 대입제도 확정(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의 환경 변화가 대학의 2028 대입전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떠한 강점, 약점, 기회, 위기가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세부적으로 전형 유형별로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4가지 전형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리고 기타 전형 요소의 평가 방안 등을 자문하였다. 1차 심층면접에는 주로 변화된 대입제도에 대한 교사, 대입지원관, 입학사정관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은 차후 설문조사 및 델파이조사 진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차(2025.2.11) 전문가심층면접(FGI)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자료 변경 사항(2025.1)을 기반으로, 고교-대학 간 설문조사 결과와 델파이조사(1차 및 2차) 결과 그리고 연구 결과 요약본을 기반으로 각 결과에 대한 총평, 일부 항목에서 고교와 대학의 인식 차이를 보인 이유, 향후 델파이조사에서 추가 심층 질문이나 결론 도출 시 해석상 주의점 등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구 결과 도출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정교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2) 전문가 선정 및 특성

전문가심층면접(FGI)은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에 근무하는 8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통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따라서 1차와 2차 모두 전문가는 총 8명으로 구성하였다. 환경과 유형이 다른 고등학교(대도시 및 농어촌의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교사 총 5명, 지역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대입지원관 1명, 서울지역 입학사정관 1명은 두 차례 모두 참여하였고, 경북지역 입학사정관 1명은 1차에, 전북지역 입학사정관 1명은 2차에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세부 지역은 서울 3명, 경기 1명, 세종 1명, 경북 1명, 전북 1명, 광주 1명이다.

3) 전문가심층면접(FGI) 차수별 질문 구성

1차 전문가심층면접(FGI)은 향후 도입을 앞둔 성취평가제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고교 현장에서는 교과 성적 부여 또는 산출 시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는지 질문하였고, 더불어 향후 대학의 교과 및 학업역량 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듣고자 하였다.

2차 심층면접(FGI)은 고교-대학 설문조사와 델파이조사 결과의 집단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한 항목을 중심으로 집단 간 의견이 다른 이유와 연구진이 해석상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연구 결과 방향성을 잡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표 Ⅲ-116> 전문가 자문회의 차수별 질문 및 제공자료

구분	세부 내용	제공자료
1차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학 입학전형 설계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 공동연구에서 꼭 다루어야 할 내용, 중요 점검 사항 ▫ 교육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외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 운영 방향 관점에서 SWOT 분석	-
	-전형 유형별 대입제도 개선 방안 ▫ 2028 대입제도 개편 하에서 각 전형 유형별 전형 요소의 적용 필요성과 방안 ·학생부교과전형의 학생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타 전형 요소, 수능 최저기준 적용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생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타 전형 요소, 수능 최저기준 적용 ·논술전형의 학생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타 전형 요소, 수능 최저기준 적용 ·수능전형의 학생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타 전형 요소, 수능 최저기준 적용 ▫ 2028 대입제도 개편에서 제시된 고교의 서·논술형 교육 강화를 반영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	

구분	세부 내용	제공자료
	-모집 시기, 전형 일정, 지원 횟수 등 정책 제언이나 기타 개선 방안	
2차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더 긍정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한 의견 ▫ 수시 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임 ▫ 모든 전형 출결 반영 시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 밖 비교 처리 방안 ▫ 교과 전형이나 수능전형에 면접 도입	연구 결과 요약본, 고교-대학 설문조사 결과, 델파이조사 결과
	-총평 및 시사점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나. 전문가심층면접(FGI) 주제별 논의 사항

1)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설계 기본 방향

1차(2024.9.4) 전문가심층면접(FGI)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에 대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입학전형 설계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충실한 대입전형 자율화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대입전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변화된 내신 체계와 수능과 개정 교육과정이 대입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내신 변별도 확보와 전형별 특수성을 고도화하는 설계와 최대한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전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대부분 공통 의견이었다. 하지만 16개 대학의 40% 정시 수능 비율 강제 규제, 5등급제 변화,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 과목 운영 등의 괴리가 계속된다면 고교는 교육과정 운영이 대학은 선발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 운영 방식, 학생의 성장 등에 맞는 전형 운영이 필요하다. 법에 규정된 대학의 선발 자율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설립 목적, 운영철학, 자원(시설, 인력, 재원 등) 등의 가용 범위 내에서 대학별 선발이 시행되어

야 한다. 결과를 통한 선발보다는 가능성을 고려(교과성적 기반의 가능성 제외)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인재,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전형 운영이 필요하다." (ㅂ 교사)

"내신 5등급 체계는 선진적 평가 체계라고 하지만, 병행되는 성취도 평가의 신뢰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대학에서 선발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사항이다. 다양한 과목 이수가 권장되는 고교학점제 아래에서 수능 범위의 사회·과학 과목의 대폭 축소는 사회과 과학과의 고2, 고3 수업이 파행으로 될 우려가 있다. ... 주요 대학의 정시 40% 유지와 수능 과목의 축소는 고2, 고3 교실의 수업 이탈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ㅅ 입학사정관)

"정시 수능위주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시 수능 최저기준 완화(수능의 영향력 극소화) 그리고 학교 교육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시 40%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은 이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를 이끌어 줄 방안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ㅊ 교사)

나) 타당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입전형 설계

전문가들에게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을 보고 이번 공동연구진이 꼭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나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질문 항목에 대해서 교사 및 대학 관계자 모두 대입전형의 타당성, 신뢰성 강화를 위한 방안 고민을 요청하였다. 다만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전형 설계 관점에서 다양한 전형 요소 설계를 요청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전형, 학기별 이수에 맞는 모집 시기, 전형 운영 등에 대한 타당성 고민이 필요하다. 교과 전형, 수능전형의 운영 가능성 및 대학별 신뢰도, 종합전형의 확대 가능성, 논술전형의 평가 도구 타당성, 기존 전형, 선발 도구 외 타당성 검토 되었으면 좋겠다." (ㅂ 교사)

"정시 수능전형에 정성평가 반영 여부, 검정고시 학생 학생부 반영 방법(특히, 정시 모집)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내신 등급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운영 방법(정성평가 반영 방법)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ㄱ 교사)

교사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는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대학과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발 관점에서 내신 체계 및 수능 과목 변화에 따른 변별도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주었다.

"교과 등급이 5등급 상대평가 체계로 모두 변경됨에 따른 변별력 약화로 교과 전형에서 정량적 평가로 선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성적 평가의 도입과 평가 방법, 재수생 등 N수생들이 2028학년도 대학 입학에 지원하는 경우 9등급제와 성취평가(3단계) 등급을 5등급제와 성취평가(5단계)로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세분화한 진로·융합 선택과목(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 수강)까지 상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융합 선택과목 선택 시 인원이 적거나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 진로와는 관계없이 평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과목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하다. 정시에서 수능성적 일변도가 아닌 고교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시 입시체계를 개편하여 학생들이 고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전형 개선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문 분야별 고교의 핵심 및 권장 이수 과목의 예시 제공이 필요하다." (ㅅ 입학사정관)

"교과 전형에서 교과성적 외 추가 평가 요소의 적절성 연구가 필요하다(학생별 과목 선택의 의미와 맥락 평가, 종합전형 평가와는 구분되는 평가 항목 개발 방향). 종합전형에서 현 학생부 외 추가 평가 요소 도입(교사 추천서와 같이 현행 학생부 미제공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요소)이 필요하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수능 이외 다른 전형 요소 반영의 가능성(쉽게 재수로 넘어갈 수 없는 평가 요소 항목)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ㅇ 대입지원관)

2)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외부 환경 변화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진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외부 환경 변화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SWOT 측면[Strength(장점, 강점), Weakness(단점, 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에서 물었다. 해당 항목에서 전문가들은 공정성 확보와 점수 위주 전형의 준비 부담 완화는 강점이나,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의 불일치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였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 변별력 약화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반영한 모든 전형의 새로운 평가요소 추가 활용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지만, 점수 위주 선발 강화와 고교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가) 공정성 확보와 점수 위주 전형의 준비 부담 완화

Strength(장점, 강점)으로 언급한 사항은 공정성 확보와 점수 위주 전형의 준비 부담 완화였다. 수능 선택과목별 유불리 해소, 수능 과목 수 축소로 학생의 준비 부담 완화, 5등급제로 개편에 따라 학생 부담 완화, 내신 정량평가 가능한 교과목 수 증가 등이 언급되었다.

"전 과목 내신 등급 산출로 학교 교육 충실도 증가, 수능 과목 축소로 인해 수능 준비 부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ㄱ 교사)

"내신은 정량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과목 개수의 증대되고, 수능은 선택과목별 유불리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다." (ㄱ 입학사정관)

나)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의 불일치 문제 야기

Weakness(단점, 약점) 측면에서는 전 과목 내신 등급 산출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교과 상대평가로 교과목의 다양화보다는 획일화 예상, 수능 반영 외 과목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 수능 통사/통과로 고 2, 3학년 탐구 수업의 위축 가능성, 수능 위주 준비 학교 점차 증가, 정시 수능전형 준비 학생의 자퇴 비율 증가, 수능과 학생부, 대학별고사 모두 준비하는 부담 증가 등이 언급되었다.

"상대평가 5등급제로 인한 등급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존재, 수능에서 탐구 영역이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수능 중심 고교에서 2, 3학년 사회, 과학 교과 파행 운영 예상" (ㅈ 교사)

"전 과목 내신 산출로 인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전 과목 내신 산출로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 온라인 스쿨 운영 위축되어 농어촌 지역 또는 소규모 학급은 필수과목 이수가 더욱 어려워짐, 내신이 미세하게 나누어지게 되어 교과 전형 운영시 정성평가 반영이 필요함, 수능의 약화(특히, 수학과 과학영역)로 인해 정시 수능전형에서의 우수학생 선발의 어려움 증가 및 정시 수능전형 준비 학생 자퇴비율 증가" (ㄱ 교사)

다) 수능과 내신 변별력 약화에 따라 학교 교육을 반영한 모든 전형의 새로운 평가 요소 추가 활용 필요성 증가

Opportunity(기회)에서 언급한 사항은 교과는 내신 변별력 약화로 교과 점수만으로 선발 어려움에 따라 새로운 전형 방법 모색, 수능 변별력 약화로 수능 100% 전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형 방법 모색, 종합전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학생의 선택권 강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경험 축적 등이다.

"내신 반영 관련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고착화 된 수능 100% 전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ㄱ 입학사정관)

"정시의 학생부 평가 반영 환경 조성" (ㅂ 교사)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일반고에서 전문교과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ㄱ 교사)

라) 점수 위주 선발 강화, 고교 교육과정 파행 우려

Threat(위기)에서 언급한 사항은 의대 증원 등 지역인재전형 교과 전형 강화, 고교 교육과정 선택권과 다양한 수업 활동의 위축, 전공 자율선택제(무전공) 도입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 위축, 16개 대학 정시 수능 40% 이상 선발 유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고사 강화 시 학생의 준비 부담 및 사교육 증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불일치 문제 심화 등이다.

"학생 수 감소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수능에서 졸업생 응시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오히려 수능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고교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ㅈ 교사)

"학령인구 감소,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고교교육 현장의 변화를 담아내기 어려움" (ㅇ 대입지원관)

3) 전형 유형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본 연구진은 1차(2024.9.4) 전문가심층면접(FGI)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에 대한 입학전형 설계의 방향에 이어서 전문가들에게 2028 대학입시제도 하에서 대학은 각 전형 유형별로 전형 요소의 적용 필요성과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만약 필요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질문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총 4가지 전형 유형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전형별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타 전형 요소,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가) 학생부교과전형

(1) 정량평가

전문가들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시행되더라도 현행과 같은 방식의 정량평가 방법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다수가 의견을 함께했다.

> "반드시 적용 필요(전형유형 고려), 상대평가 산출 등급은 기존 방식을 준용하여 적용할 필요" (ㄱ 입학사정관)

> "학생부교과전형의 기본 평가 방향이므로 여전히 유효, 대학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 국수영사과로 교과 반영 확대" (ㅂ 교사)

(2) 정성평가

다만 5등급제 변화가 있는 만큼 대학 사정에 따라 이수 단위와 등급 활용, 선택과목 이수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여건 및 필요성 고려가 필요하지만 필요시 고교교육에 힘을 싣기 위한 방향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단위, 희망 학과 또는 계열 관련 과목 이수 현황" (ㄱ 교사)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성취 수준을 평가에 반영" (ㅂ 교사)

"교육과정 편제표 해석, 과목 선택의 의미와 맥락을 활용" (ㅇ 대입지원관)

(3) 기타 전형요소

기타 전형 요소로는 출결을 반영하거나 면접 방법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결 반영 미인정 결석/조퇴/결과 감점" (ㅂ 교사)

"제시문 면접, 토론 면접 등 면접이 학생부교과전형에 도입할 수도 있음" (ㅈ 교사)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견은 없었다.

나) 학생부종합전형

(1) 정량평가

전문가들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시행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종합전형의 평가는 정성평가 방식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량평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량을 반영한다면 출결상황 정도의 반영을 언급하였다.

"현행 방식 유지. 학생부종합전형은 정량평가 방식 지양" (ㅇ 대입지원관)

"불필요함, 다만 진로와 융합 선택의 교과 등급 부분은 상대평가 등급이 아닌 교과 성취도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한 방향으로 안내가 되어야 할 듯" (ㅂ 교사)

(2) 정성평가

전문가들은 모두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모두 찬성하였다. 또한 종합전형 고유의 정성평가 방식은 고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더 정교한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편성표나 수행평가 비율과 평가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변별도 향상과 세밀한 평가를 위한 방안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또한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사회, 과학 융합 선택과목 등 모두 등급이 산출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수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런 상황에서 계열(학과)별 권장 이수 과목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함. " (ㅈ 교사)

"대학에 고교 교육과정 편성표 제공하거나, 수행평가 비율과 평가 내용 제공" (ㅊ 교사)

(3) 기타 전형요소

기타 전형 요소로는 출결을 반영하거나 면접 방법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타 의견 중에서는 교육과정의 온전한 이수를 유도할 수 있는 면접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출결 반영 미인정 결석/조퇴/결과 감점" (ㅂ 교사)

"제시문 면접, 토론 면접 등 면접이 학생부교과전형에 도입할 수도 있음" (ㅈ 교사)

"서류의 범위 확대(학생부의 반영 항목 변화, 학생부 외 자소서의 추가 등) 필요, 면접 시행. 단, 교육과정의 온전한 이수를 유도할 수 있는 면접 유형의 변화도 필요" (ㅂ 교사)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의 입장 여건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속에서도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따른 수능과 내신 변별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반영이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

다. 대학 관계자 중 일부는 최소한의 학업 역량 판단을 위해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신의 변별력 약화, 학생부 반영 축소 등으로 인해 적절한 수능 최저학력등급 반영 필요(자격고사화 개념)" (ㄱ 교사)

"가급적 수능최저학력기준 확대 지양하나, 단, 면접 없는 전형의 경우 '높지 않은 수준의 수능 최저 일부 도입' 가능" (ㅂ 교사)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해야 하며, 고른기회전형도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고려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ㅅ 입학사정관)

다) 논술전형

전문가들은 현행처럼 성취도 산출을 정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논술 지원 인원수를 고려하면 학생부 정성평가는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설정 적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다.

라) 수능전형

수능전형 또한 현행처럼 성취도와 출결 정도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의견에 이견이 없었다. 다만 정시의 정성평가는 교과 이수 현황(계열 관련 과목이나 교과 이수 단위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다수 공감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자연 계열은 수학, 과학의 기초과목 이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단위, 희망 학과 또는 계열 관련 과목 이수 현황" (ㄱ 교사)

"자연 계열 학과에서 심화 수학(미적분II, 기하)의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ㅈ 교사)

기타 전형요소로는 면접 등 도입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 앞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시행될 때, 졸업예정자와 졸업자에 대한 유형별 평가 방법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추가 역량 확인이 필요한 의학 계열이나 사범대학은 면접 도입 필요" (ㅂ 교사)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현역과 N수생 분리 방법 고민이 필요. 예를 들면 수능Ⅰ 전형은 모든 학생 지원 가능(대학 선발인원의 10% 수준), 수능 성적만 반영, 수능Ⅱ 전형은 현역만 지원(대학 선발인원의 30% 수준, 16개 대학의 경우), 수능 성적 + 교과 정성평가 반영하여 수능Ⅱ 전형에 교과 정성평가 도입, 정성평가 반영 방법에 따라 실질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 (ㅇ 대입지원관)

4) 고교의 서·논술형 교육 강화 정책에 기반한 대학별 고사 강화 방안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제시된 고교의 서·논술형 교육 강화 정책에 따라서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대학별 고사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다양한 형식의 면접과 논술전형 확대 2가지를 질문하였다.

가) 다양한 형식의 면접 도입(제시문 기반 면접, 에세이 등)

전문가들은 모두 2028 대입제도 개편(안), 교육과정 변화 등에 비추어 다양한 형식의 전형 요소 중 면접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강화 측면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당 전형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고, 정성평가보다는 정량에 기반한 평가가 더 의미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해당 전형요소가 물리적인 제한적 상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교-대학 간 교사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면접 방법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임. 다만, 고등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고려한 범위의 운영 필요" (ㅂ 교사)

"2028 대입제도 개편에서 서·논술형 교육 강화를 표방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형식의 면접 필요. 제시문 기반 면접 도입 필요 (특히 교대/사대/의학 계열 등은 적극적 도입 필요). 자연 계열의 경우 고난도(정답 있는) 문제 풀이 목적의 제시문 기반 면접은 지양" (ㅂ 교사)

"면접고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고려하고, 인문 계열은 제시문 기반 면접 도입 필요하며, 자연 계열은 과탐 기반 제시문 면접 도입 필요함" (ㄱ 교사)

"고교 교육과정(발표수업, 수행평가 등)에서 충분히 연계하여 준비할 수 있으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가능한 면접전형을 도입할 필요성 있음. 대학에서 면접방식에 대한 고교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지원이 있다면 고교에서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임" (ㅅ 입학사정관)

"서·논술형 교육 강화와 제시문 기반 면접은 별개로 보임. 면접 시작 전 에세이 작성 등은 고민해 볼 만함" (ㅇ 대입지원관)

"학생들은 배운 것을 넘어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고교교육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은 채 대학 입시에 적용되는 것은 무리. 배운 것을 활용하여 삶에 적용하는 방식의 학교 교육과 수업이 진행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IB의 수업이나 평가 방식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함" (ㅊ 교사)

"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유형에 도입보다는 정량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유형에 도입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형 요소의 복잡화 및 사교육 유발 등을 고려하면 반영 정도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ㄱ 입학사정관)

나) 논술전형 확대(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전문가들은 사고 신장 측면을 고려할 때 적합한 전형요소라고 생각하나, 고교 및 대학 입장에 따라 고교는 교육적 측면을, 대학은 운영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논술형 교육 강화 정책에 따른 논술전형 확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고력 신장 등 교육과정과 연계 측면에서 찬성하였고, 반대 입장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의 지배력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논술전형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교육에서 서・논술형 교육 강화는 교사 연수 등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였다.

"현재 수준의 논술전형은 고교에서 수업의 내·외에서 준비가 가능하며, 현재 논술전형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확대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단, 향후 자유전공학부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공 자율선택제의 취지에 맞게 무전공, 광역 등 유형에 맞는 논술유형(예: 인문+수리)이 적용되어야 함" (ㅂ 교사)

"인문계열 시험은 서·논술형으로 구성하여 전공 공부에 요구되는 창의력, 논리력,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논술형 중심으로 출제하고 자연계열은 논리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 문제(물리/화학/생명 구분)로 구성된 서·논술형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함(ㄱ 교사)

"학교는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므로, 고교 수업에서 먼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고교 수업에 서・논술형 평가가 정착되지 않은 채 대입에서 적용되면 사교육 시장만 커질 것" (ㅊ 교사)

"논술전형의 확대실시는 현재 논술 준비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ㅈ 교사)

5) 교사와 대학 관계자 간 의견 차이에 대한 해석

본 연구진은 2차(2025.2.11) 전문가심층면접(FGI)에서 8명의 전문가에게 고교-대학 간 설문조사 결과와 델파이조사(1차 및 2차) 결과 그리고 연구 결과 요약본을 사전 제공하고, 각 결과에 대한 총평, 일부 항목에서 고교와 대학의 인식 차이를 보인 이유, 향후 델파이조사에서 추가 심층 질문이나 결론 도출 시 해석상 주의점 등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가) 수시 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1) 평가 변별도 확보

고교-대학 간 인식조사 결과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수시 모든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에서 긍정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내신 성적 변별도가 약화될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또한 고교 및 교사 간 차이로 인해 신뢰도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신 변별도 및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수능 등급 점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되어 변별력이 약화되어 수능 최저등급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 및 학과에서의 내신 변별력의 약화에 따라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독서, 자율 동아리, 수상 등 대입 미반영 학생부 항목이 증가하고 내신 또한 5등급제를 도입함에 따라 현재 제공되는 학생부 항목으로는 변별력 확대가 어려워 자칫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ㄱ 교사)

"내신 평가 5등급제로 인해 내신 정량평가 시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측면은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현장의 교사는 약화된 변별력으로 인해 지원자의 내신 성적이 매우 촘촘한 경우 평가 타당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 (ㅂ 교사)

(2) 진학지도 예측 가능성 향상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을 통해서 3학년 2학기 학교 수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서류평가 100%보다는 최소한의 장치인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해서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별도에 대한 객관적인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최저 적용으로 지원과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여 학생의 진학지도의 수월성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대입제도에서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 수능 성적이 필요한 전형의 비율은 2026 대입에서 실기/실적 위주

전형을 제외하면 57.83%입니다. 전국 소재 대학의 비율 37.04%와 비교하면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변별도, 학생의 선호 대학 경향 등을 고려하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면 전체 전형에 대한 대비 또는 차선 안을 생각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ㅂ 교사)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노력에 의한 대입제도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한 긍정반응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ㅈ 교사)

"내신 역량과 비례하지 않는 학업 역량 수준의 학생들이 제법 많다고 보는 게 교사들의 관점이다. 매해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학생부 기준일이 정해지면서 3학년 2학기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해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끝까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ㅂ 교사)

나) 교과 전형이나 수능전형에 면접 도입에 긍정반응이 높은 이유

고교-대학 간 인식조사 결과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교과 전형이나 수능전형에서 면접 도입에 긍정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또한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내신과 수능 성적 변별도에 문제 제기를 통해, 보완재 역할을 하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평가 변별도 확보

현재 대학은 정량평가만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으며, 교사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등급제의 변화, 수능 출제 범위의 변화 등으로 변별도가 부족하여 보완재가 필요한 점, 대학 입학 후 실제적인 학습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길 바라는 타당도의 보완재로 필요한 점, 재학생의 지원 경향,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ㅂ 교사)

"정량평가만으로는 대학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다." (ㅂ 교사)

(2) 역량 소명 및 사실 확인

자기소개서의 폐지로 학생들은 마지막에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전문가들 중에는 정량평가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원자 개인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학생이 '직접', 학생의 입장·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형 요소이다. 교과 또는 수능 점수가 학생의 가장 본질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점수를 형성하는데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측면을 학생이 스스로 '입증'하는 방식이다." (ㅇ 대입지원관)

"교과성적과 수능에서의 변별력 하락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도 교사 간의 노력의 차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록의 차이가 존재 하는게 당연한 상황이다.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학교 간의 의지에 따라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의 환경이 고교별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다. (ㅈ 교사)

(3) 학교 수업 정상화 기여

또 다른 의견으로는 교과 전형 또는 수능전형에서 학생부 기반 면접을 보게 되면 아무리 정량적 요소만 준비하는 학생이라도 학생부 기록을 의식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교과 전형이나 수능전형에서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 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의 기록이 모든 전형에서 반영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 충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ㅈ 입학사정관)

"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수업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고, 학생의 성실한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ㅊ 교사)

다) 모든 전형 출결 반영 시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 밖 비교 처리 방안

전문가 8명은 모두 정규 고등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지원자에게도 일정 부분 출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따라서 현행 방식을 고수하거나 오히려 더 실질적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수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학교생활에서 출결 관리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출결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그와 상응하는 평가 점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와 반대로 내신의 불리함 등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등을 선택하는 학생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이것은 현재 우리 고교가 처한 출결 관리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학생들의 출결이 매우 안 좋아진 것이 현실이다. 교사는 대학이 이를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 등에 대하여 출결은 물론 성적을 반영할 때도, 고교 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ㅊ 교사)

"최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정시 준비를 위해 자퇴하는 학생들 증가 추세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출결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한다." (ㅈ 교사)

"최근 고교 현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들의 근태가 매우 안 좋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 예전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근태 상황이 비례하는 경향성(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경우 근태 우수,,, 학업성취 수준이 낮으면 근태 미흡)이 있었으나, 최근엔 학업성취 수준과 무관한 근태를 보이고 있다. ...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하지만 재직 고교의 상황을 감안할 때, 내신성적이 좋지 못해 수능 위주로 정시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의 검정고시 행이 빈번하다) " (ㅂ 교사)

가) ~ 다) 까지 내용 중, 연구진이 해석상 주의해야 할 점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입학사정관보다 교과 전형과 수능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에 긍정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2028 대입 전형계획(안) 발표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주요 대학 정시 수능 40% 유지 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모든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면, 고교학점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되면 교사들의 업무 가중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양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블라인드 해제는 단순한 정책 제안보다는 어느 수준의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학생부 기재 방식의 변화를 언급할 때, 간단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블라인드 폐지를 통해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할 경우, 어느 수준의 정보까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추후 과제 제시 언급이 필요하다(현재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학생부 관련 업무 하중이 매우 큰 편임)" (ㅂ 교사)

"'수능 영향력 강화'는 '고교교육 내실화의 약화'를 초래할 것임. 교과와 논술에 적정 수준의 수능 최저를 설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종합까지 수능 최저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대입전형 전반에 수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음. 교육과정 편성, 수업 운영과 같은 고교 교육활동의 모든 곳에서 '수능'이 잠식할 수 있음. 하지만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또는 자격고사화와 같은 변화가 있다면 고려가 가능함" (ㅇ 대입지원관)

다. 전문가심층면접(FGI) 정책 제언 및 개선 방안

2024년 9월 4일과 2025년 2월 11일 총 2차례 실시한 전문가심층면접(FGI)에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정책적 제언과 현행 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 3가지는 ① 수시・정시 통합 및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② 정시 모집인원 축소, ③ 대입 전형자료 내실화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수시・정시 통합문제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간극으로 인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주요 대학이 속한 16개 대학의 정시 40% 규제가 교육과정 정상화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정시 40%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전형 자료 축소에 따른 평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폐지되었던 전형자료 부활 및 학생부 기재 방안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수시・정시 통합 및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시와 정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과 수능을 이원화하여 자격고사 및 지원대학의 유형에 맞는 지원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다수 전문가들이 언급하였다.

"수시 및 정시의 통합을 통하여 입시 일정의 전체적인 축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고3은 입시를 위한 기간이 아닌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 (ㄱ 입학사정관)

"현재처럼 수시, 정시가 존재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제 이수가 되므로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운영 효용성, 3학년 2학기의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성장 등은 현재보다 운영의 의미가 없어질 것임. 확대, 심화 교육의 기회는 사라지고 전략적으로 '학교 밖 교육'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는 빈도가 증가할 것임. 시기에 따른 전형 운영, 선발, 충원 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3회가 적당함. 단, 실기 전형은 실기 고사 시행을 고려하여 학기 중 선발 허용 고려 필요" (ㅂ 교사)

"장기적 과제로 수능 이후 수시정시 통합-수능 이전 전형 일정을 수능 이후로 조정. 3학년 수업 파행 최소화 방안 모색해야 함" (ㅂ 교사)

"3학년 2학기 학사 일정 운영을 위한 고민 필요함. 찾을 수만 있다면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형이 가장 이상적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 통합이 필요함" (ㅇ 대입지원관)

"수시, 정시 통합 등과 같은 대대적인 입시의 개혁 방안은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함.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함." (ㅈ 교사)

"수시와 정시모집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수능도 수능I과 수능II로 나누어 실시하기를 희망함. 수능I은 자격고사화 형태로 운영하고 수능II는 희망 대학과 희망학과 위주로 운영하고 서·논술형 수능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ㄱ 교사)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수업이 지금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학년 2학기 수업이 수능을 위한 자습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결석(가정학습, 체험학습 등)으로 이용되는 현실임. 수시와 정시가 하나로 되고 있는 추세인 듯한데, 현재의 수시보다는 전형 일정이 미뤄져야 함" (ㅊ 교사)

2) 정시 모집인원 축소

학교 교육을 외면하고 정시로 이탈하거나, 성적으로만 대학에 진학하여 중도 포기율이 높은 정시모집이 주요 대학에서 40%로 유지되는 한 앞으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정시 수능 40%가 축소되지 않으면 대학 중도 이탈률, 고교 학업 중단 학생, N수생 증가 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시 40% 제도가 폐지되도록 노력 필요가 있음" (ㄱ 교사)

"특정 대학을 지정해서 적용하는 정시 40%를 폐지하여 기본적인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필요. 대학마다 앞에 놓인 문제 상황이 다름. 자연스럽게 정시 인원을 유지하는 대학과 줄이는 대학 등이 있음. 대학의 '입학생 종단분석연구' 결과의 실효적 반영하여, 필요 이상의 정시 인원 선발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재수생 양산, 학교교육과 상관없는 대학 진학, 지원 모집 단위의 이해·준비와 상관없는 지원 등을 해결해야 함" (ㅇ 대입지원관)

3) 대입 전형자료 내실화

2028 대입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과 기재 방식 개편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학생부위주전형은 대입전형자료 축소로 대학은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또한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와 더불어 교육적 의미가 큰 항목은 재검토를 통해서 대입 전형자료 제공 복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028 대입정책에 적합하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과 기재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생부 기재가 너무 많이 축소되어 학생부종합 등에서 제대로 된 정성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매우 많음. 정상적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와 교사의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학생부 기재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함" (ㄱ 교사)

"'수업'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교내 수상·자율 동아리 등 복원 … 고교의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대학에서도 충실한 대학 생활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함. 교내 수상은 수상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대회 준비 과정에, 자율동아리는 자기주도적 관심 영역을 바탕으로 또래 중심의 상호 작용에, 학생 입장에서 고교 과목 선택의 이유, 대학 진학을 준비한 관점 등을 설명하는 자료임. 전형자료 복원 등이 필요함. 또한 교사의 희생 방식이 아닌 간결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 고민 필요함" (ㅇ 대입지원관)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 전형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수험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의 변화는 대입전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2028학년도에 대학 입시를 진행하게 되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대입전형 연계 방향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국 고등학교 교사,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및 입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동일한 질문항을 통해 인식 차이를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입시 경험이 많은 교사와 교육청 대입지원관,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도 2차례 시행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주·객관식 혼용 질문항을 통해 설문조사의 의미를 해석하고 심층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와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자문회의(FGI)를 통해 연구결과의 함의 및 시사점, 고교와 대학의 인식 차이가 발생한 이유, 해석상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Ⅲ장에서 전형유형별, 전형요소별, 모집시기별 다양한 관점에서 대입전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는 개선 방향을 내용 중심으로 요목화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을 염두에 두고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국 대학으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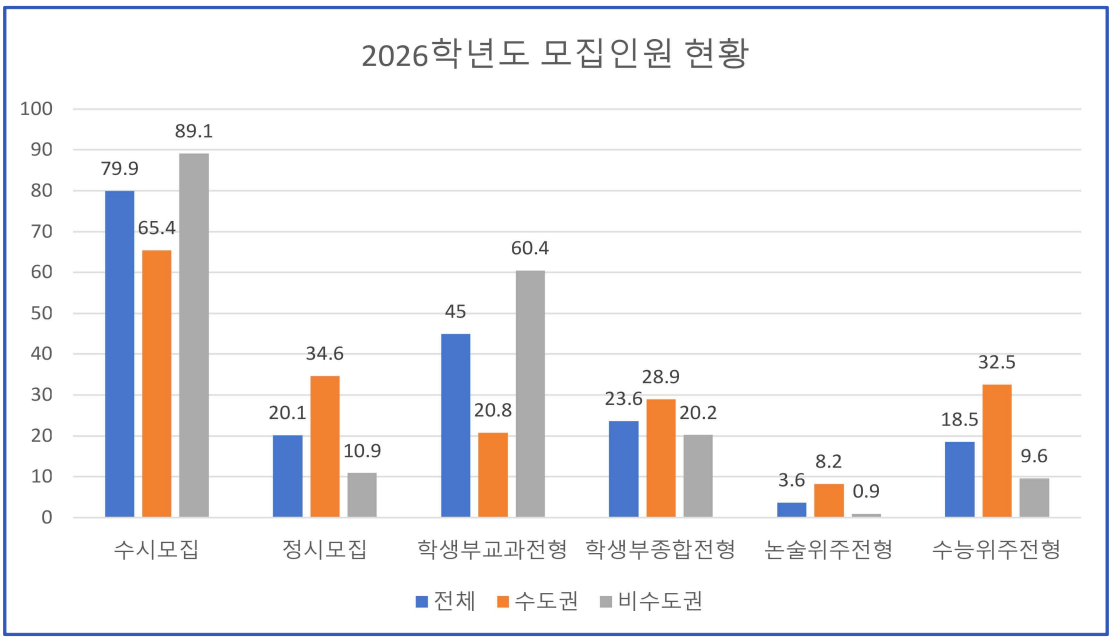
가.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적정 규모

연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 수능과 논술위주전형은 축소 또는 유지, 교과와 실기/실적위주전형은 유지가 방향이었다. 2028 모집인원 적정 규모는 학생부교과전형 20% 내외, 학생부종합전형은 40% 내외, 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은 15% 내외, 수능위주전형은

10) 이 장에서는 Ⅲ장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수와 비율, P값 등은 생략하고 비율 중심으로 표를 재구성한다. 세부사항은 Ⅲ장을 참조하면 된다.

30% 수준을 제시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2026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약 80%였다. 수도권의 수시모집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65.4%이며, 비수도권의 수시모집 비중은 89.1%로 수도권보다 20%p 이상 많았다. 비수도권 정시모집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수시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전형을 40% 이상, 그 외 대학은 30% 이상을 선발하도록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하여 권장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2026학년도의 수능전형 모집인원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18.5%이며, 수도권 대학의 수능전형 비중은 32.5%, 비수도권 대학의 9.6%보다 현저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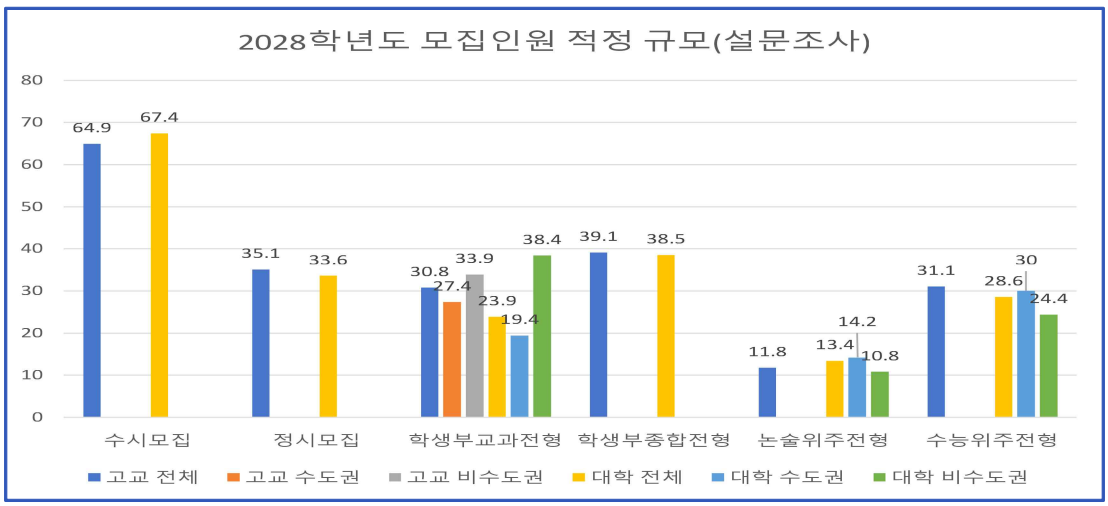
[그림 Ⅳ-1] 2026학년도 전국 대학 모집인원 현황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현황과 다르게 2028 대입전형은 모집시기별로는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모두 수시모집의 적정 규모를 65% 내외, 정시모집의 적정 규모를 35% 내외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 모집인원 적정 규모는 현재 수도권 대학의 모집인원 정도로 보고 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지역이나 학교 규모, 설립유형, 경력 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 모집인원 현황 및 적정 모집인원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고교			대학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수시모집	2026 현황	79.9	65.4	89.1			
	2028 계획	64.9			67.4		
정시모집	2026 현황	20.1	34.6	10.9			
	2028 계획	35.1			33.6		
학생부교과전형	2026 현황	45.0	20.8	60.4			
	2028 계획	30.8	27.4	33.9	23.9	19.4	38.4
학생부종합전형	2026 현황	23.6	28.9	20.2			
	2028 계획	39.1			38.5		
논술위주전형	2026 현황	3.6	8.2				
	2028 계획	11.8			13.4	14.2	10.8
수능위주전형	2026 현황	18.5	32.5	9.6			
	2028 계획	31.1			28.6	30.0	24.4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적정 규모에 대해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은 교사의 경우 30%, 입학사정관은 24% 수준(수도권 19%, 비수도권 38%)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39% 수준이고, 논술전형은 고교 12%와 입학사정관 13%(수도권 14%, 비수도권 10%) 정도로 수도권의 논술전형 적정 비율이 높다. 정시 수능전형의 적정 규모는 교사의 경우 31%로 보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은 약 29%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입학사정관은 30.0%로 답한데 반해, 비수도권 입학사정관은 24%를 적정 규모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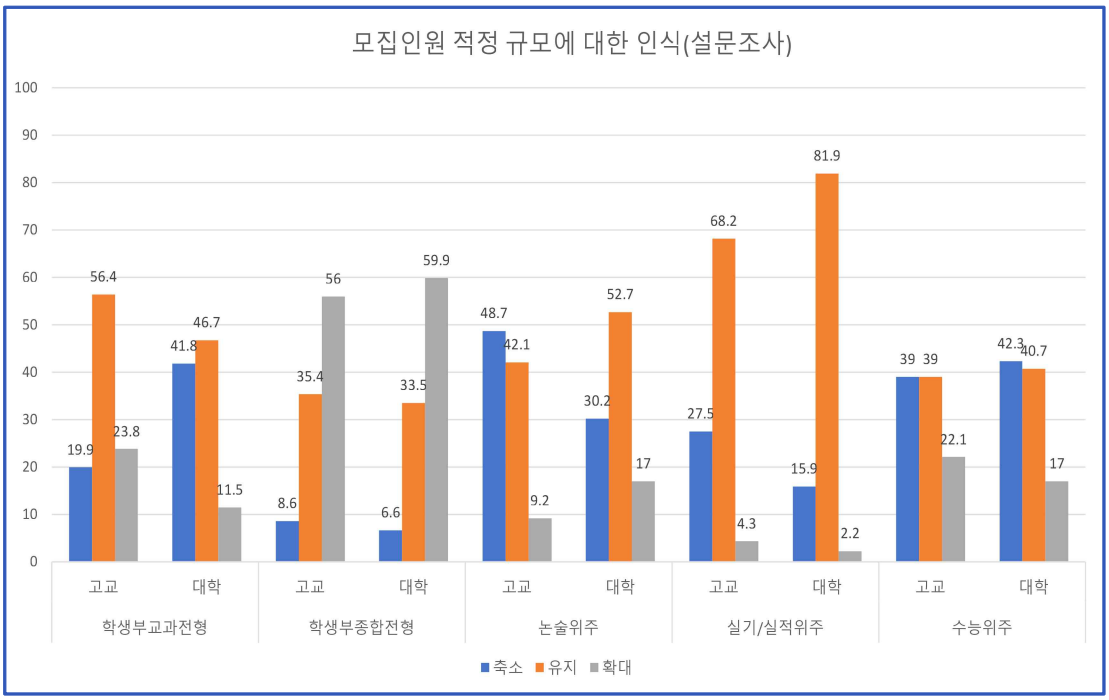


[그림 Ⅳ-2] 2028학년도 모집인원 적정 규모(설문조사)

2028 대입제도 확정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등 변화된 대입 환경에서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변경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확대, 수능/논술위주전형은 축소 또는 유지, 학생부 교과와 실기/실적위주전형은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Ⅳ-2> 2028학년도 적정 모집인원 규모에 대한 인식 (단위: %)

문항		구분	축소	유지	확대	계
학생부 위주	학생부교과전형	고교	19.9	56.4	23.8	100
		대학	41.8	46.7	11.5	100
	학생부종합전형	고교	8.6	35.4	56	100
		대학	6.6	33.5	59.9	100
논술위주		고교	48.7	42.1	9.2	100
		대학	30.2	52.7	17	100
실기/실적위주		고교	27.5	68.2	4.3	100
		대학	15.9	81.9	2.2	100
수능위주		고교	39	39	22.1	100
		대학	42.3	40.7	17	100



[그림 Ⅳ-3] 모집인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유지 의견이 높으나, 입학사정관의 경우 축소 의견이 교사보다 20%p 정도 높았다. 대학이 고교보다 교과성적 정량평가 변별력 약화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술전형의 경우 교사는 축소, 입학사정관은 유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논술전형의 입시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변화된 내신 및 수능 체계에서의 변별력 확보

1) 교과성적 정량평가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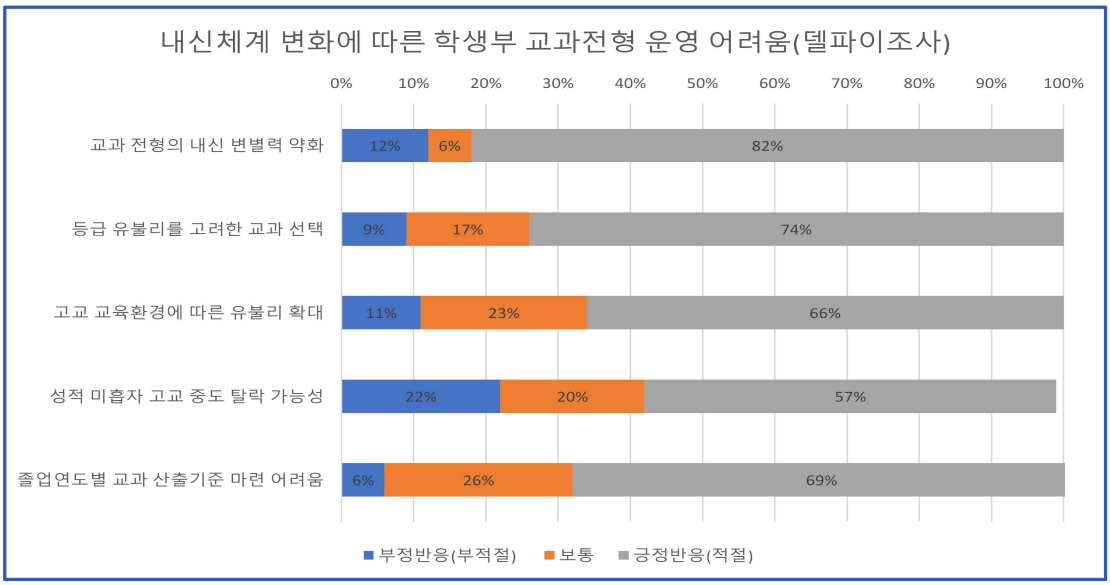
2028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의 내신 체계가 5등급제로 바뀌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 대부분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된다. 다만, 사회와 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성취도만 기재된다. 원점수와 평균,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제공하되, 표준편차는 제외한다.

학년도	구분	상대평가	성취(절대)평가		통계정보					과목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추가 자료
		석차등급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단위수 (학점수)		
~2027 학년도	보통교과 (공통/일반선택과목)	9등급	O	-	O	O	-	O	O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	-	O	A·B·C	O	-	O	O	O	-	-
	전문교과 특목고(전문I)	9등급	O	-	O	O	-	O	O	-	-
	전문교과 특성화고(전문II)	-	O	A·B·C·D·E	O	-	O	O	O	-	-
2028 학년도~	보통교과 (공통/일반/진로/융합선택)	5등급	O	A·B·C·D·E	O	-	O	O	O	O	·교육과정 편성 현황
	사회·과학융합선택	-	O	A·B·C·D·E	O	-	O	O	O	O	
	전문교과	5등급	O	A·B·C·D·E	O	-	O	O	O	O	·과목별 평가 정보
현재~ (계속)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	A·B·C	-	-	-	-	-	O	
	교양	-	-	P	-	-	-	-	-	O	
~2027 학년도	비고	이수단위	5단위±2 (학년제)			소인수 기준 (등급 미산출)	13명이하				
2028 학년도~		이수학점	4학점±1 (학기제)				5명이하			·수행평가지필평가비율 ·수행평가명 ·성취도별분할점수 등	

[그림 Ⅳ-4] 2025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체계 개편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라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운영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교과 전형의 내신 변별력 약화(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등급 유불리를 고려한 교과 선택(74%)’, ‘졸업연도별 교과 산출기준 마련 어려움(69%)’, ‘고교 교육환경에 따른 유불리 확대(66%)’, ‘성적 미흡자 고교 중도 탈락 가능성(57%)’ 순으로 나타났다. 내신 5등급제 전환에 따라 교과전형의 내신 변별력 약화가 교과전형의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차등급, 성취도만 활용(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평균, 수강자수 미활용)하는데 대해 부정반응(46%)이 긍정반응(33%) 보다 높았다.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긍정반응이 ‘교과성적의 변별력 약화(7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부 유형의 고교에 유리한 평가 결과(71%)’, ‘성적위주의 교과목 선택 심화(46%)’, ‘졸업연도에 따른 유불리(9등급제 vs 5등급제)(40%)’ 순으로 나타났다. 석차등급 외에 성취도를 활용하는 경우 학교마다 과목마다 성취도별 분할점수[11]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고교유형별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현재와 다르게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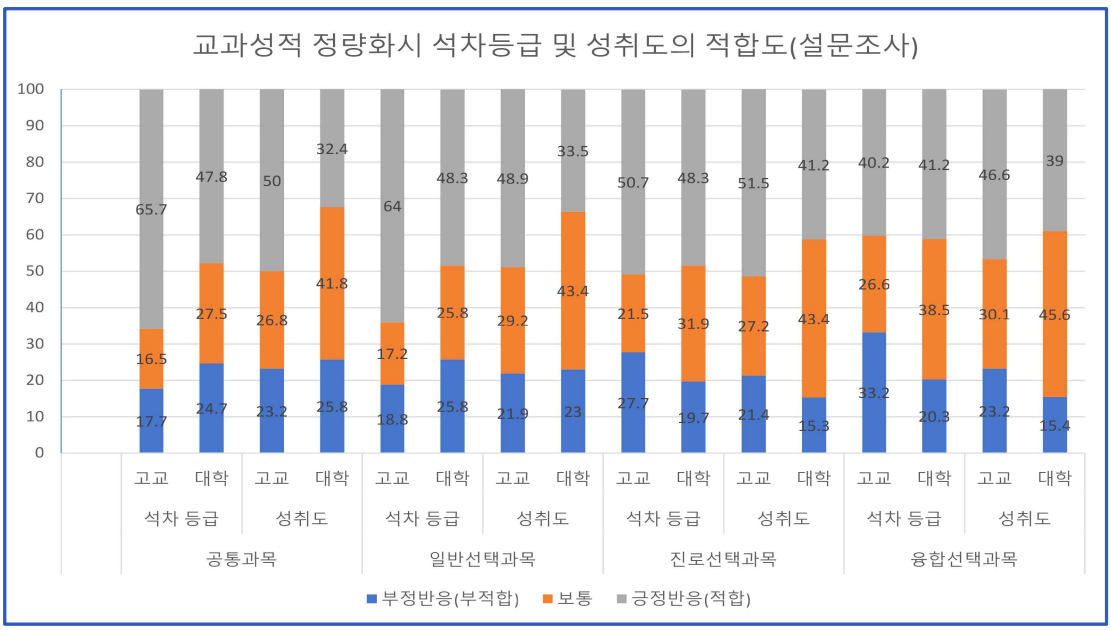
[그림 Ⅳ-5] 내신 체계 변화에 따른 학생부교과전형 운영 어려움(델파이조사)

11) 성취도는 고정분할점수와 추정분할점수로 나눠지는데, 고교가 과목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성취도 A를 기준으로 정할 때, 고정분할점수는 90점 이상 A로, 추정분할점수는 성취도 90%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84점으로 정할 수도 있다. 학교별 과목별로 A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미이수자(F)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취도별 분할점수는 교육부는 2025년 1월 대입전형자료로 학기말 성취도별 분할점수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학은 학생부에 성취도가 병기됨에 따라 석차등급 외에도 성취도를 대부분 과목에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교과성적 정량화 지표인 석차등급과 성취도의 적합성에 대해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에 대한 긍정반응이 60%를 초과한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모두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진로선택과목도 교사는 석차등급과 성취도에 대한 긍정반응에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석차등급이 성취도에 대한 긍정반응보다 높았다. 반면에, 융합선택과목의 경우 입학사정관은 석차등급과 성취도에 대한 긍정반응에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교사는 성취도의 긍정반응(46.6%)이 석차등급 긍정반응(40.2%)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부정반응에서도 석차등급(33.2.%)이 성취도(23.2%) 보다 10%p 가량 높게 나타나, 융합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취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융합선택과목 정량화 반영 시 탐구교과를 제외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 석차등급을 활용할지, 성취도를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교사의 경우 대학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을 석차등급이 아닌 성취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럴 경우 학생의 융합선택과목 과목 선택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수능과목에서 제외된 융합선택과목은 소수가 들을 수밖에 없고 석차등급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학이 석차등급을 반영한다면 소수 이수과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융합선택과목 이수가 제한적이겠지만, 성취도를 활용한다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석차등급이 아니라 성취도를 반영한다면 학생의 과목 선택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와 과학탐구 융합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고 성취도만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와 이수자 수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교과의 융합선택과목에 석차등급 대신에 성취도를 활용한다면, 교과 석차등급 관리를 위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을 회피하고 내신 성적 관리 수단으로 융합과목선택을 이수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학이 융합선택과목의 정량화 반영 시 석차등급과 성취도 중 무엇을 반영하느냐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3〉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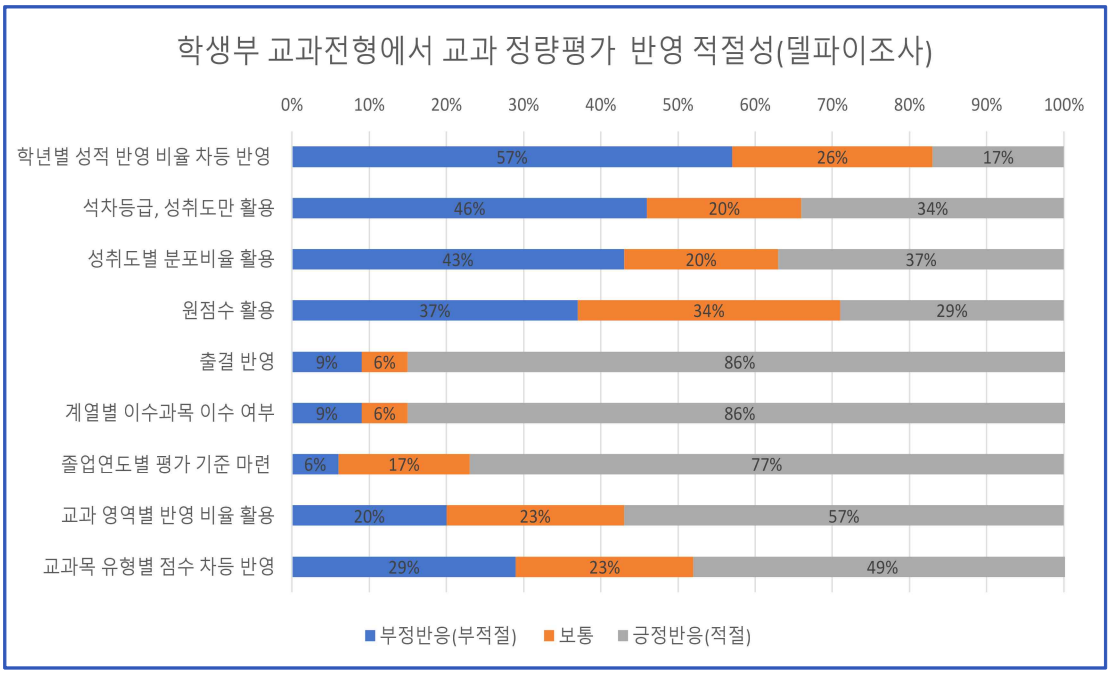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공통 과목	석차 등급	고교	5.2	12.5	16.5	42.1	23.6	100
		대학	4.4	20.3	27.5	36.8	11	100
	성취도	고교	6.2	17	26.8	35.6	14.4	100
		대학	5.5	20.3	41.8	28.6	3.8	100
일반 선택 과목	석차 등급	고교	4.9	13.9	17.2	42.1	21.9	100
		대학	3.8	22	25.8	37.9	10.4	100
	성취도	고교	6.4	15.5	29.2	35.8	13.1	100
		대학	4.9	18.1	43.4	29.1	4.4	100
진로 선택 과목	석차 등급	고교	9.9	17.8	21.5	33.7	17	100
		대학	3.8	15.9	31.9	39	9.3	100
	성취도	고교	7.5	13.9	27.2	36.5	15	100
		대학	3.8	11.5	43.4	33.5	7.7	100
융합 선택 과목	석차 등급	고교	15	18.2	26.6	27.7	12.5	100
		대학	4.4	15.9	38.5	33	8.2	100
	성취도	고교	9.2	14	30.1	31.8	14.8	100
		대학	4.4	11	45.6	32.4	6.6	100



[그림 Ⅳ-6] 교과성적 정량화 시 석차등급 및 성취도의 적합도(설문조사)

교과성적을 정량화하는 경우 공통과목의 반영 비중은 대체로 35% 정도가 적절하고, 선택과목은 65%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의 경우 일반선택과목의 반영 비중은 약 30%, 진로선택과목은 약 20%가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는 융합선택과목의 비중은 대략 15%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업역량 평가에서도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공통과목 약 33%, 일반선택과목 약 30%, 진로선택과목 약 20%, 융합선택과목 15% 내외로 교과전형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성적 정량평가 시 석차등급과 성취도 외 다른 항목 활용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졸업연도별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긍정반응(77%)이 부정반응(6%) 보다 높아 연도별 학생부 등급 산출 기준 차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한편, 부정반응이 높았던 항목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 차등 반영’에 대해서는 부정반응(57%)이 긍정반응(17%) 보다 높았다. 성취평가에 근거한 ‘성취도별 분포비율 활용’의 부정반응(43%)이 긍정반응(37%) 보다 높았고, ‘원점수 활용’의 부정반응(37%)이 긍정반응(2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평가인 석차등급이 아니라 절대평가인 성취도별 분포비율과 원점수는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강해 입시의 객관적 잣대로 활용하는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7]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 정량평가 반영 적절성(델파이조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정성평가 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는 ‘석차등급 외 성취도 지표를 적극 활용(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평균 등)’에 대한 긍정반응(89%)이 부정반응(3%)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취도를 석차등급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학업역량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다.

2) 수능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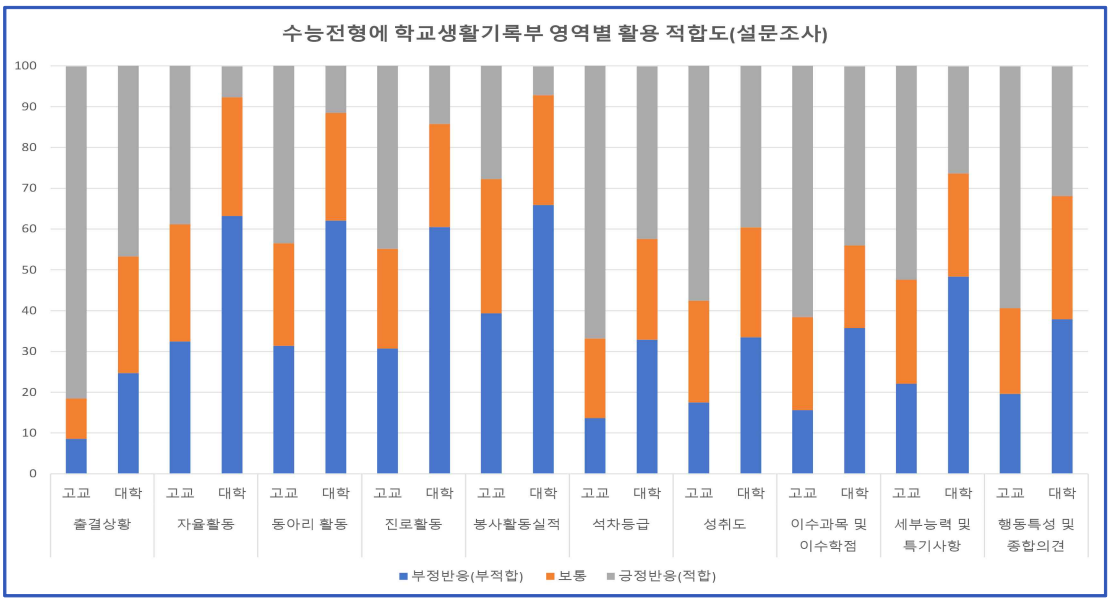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고, 수학과 탐구 출제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수능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요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대입제도와 같이 수능전형 100%를 권장하는 방향에서는 대학이 추가 전형요소를 반영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능전형에 수능 이외에 학생부 각 영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수능전형에서 학생부의 각 항목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 간에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부 영역을 수능전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반응이 50%를 초과하는데 반해,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의 항목들을 수능전형에 반영하는 것에 긍정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부 항목 중 출결상황에 대한 긍정반응이 80%를 초과할 정도로 높으며, 다음으로 석차등급,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등에 대한 긍정반응도 높아, 학생부의 여러 항목 중 이들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긍정반응이 약 40% 내외, 부정반응도 30% 이상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반응이 39.3%로 긍정반응 27.7%보다 높았다. 입학사정관은 출결상황을 수능전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46.7%가 긍정반응을 보여 가장 높았고, 학업역량의 주요 항목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경우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43.9%), 석차등급(42.3%), 성취도(39.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26.3%) 순으로 긍정반응을 보였으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진로활동(14.3%), 동아리활동(11.5%), 자율활동(7.6%), 봉사활동 실적(7.1%)에 대한 긍정반응이 낮고 부정반응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입학사정관은 수능전형에서 학생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긍정반응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달리 입학사정관은 정시모집이 군별 모집으로 전형 기간이 짧고 새로운 전형요소 도입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수능 외에 추가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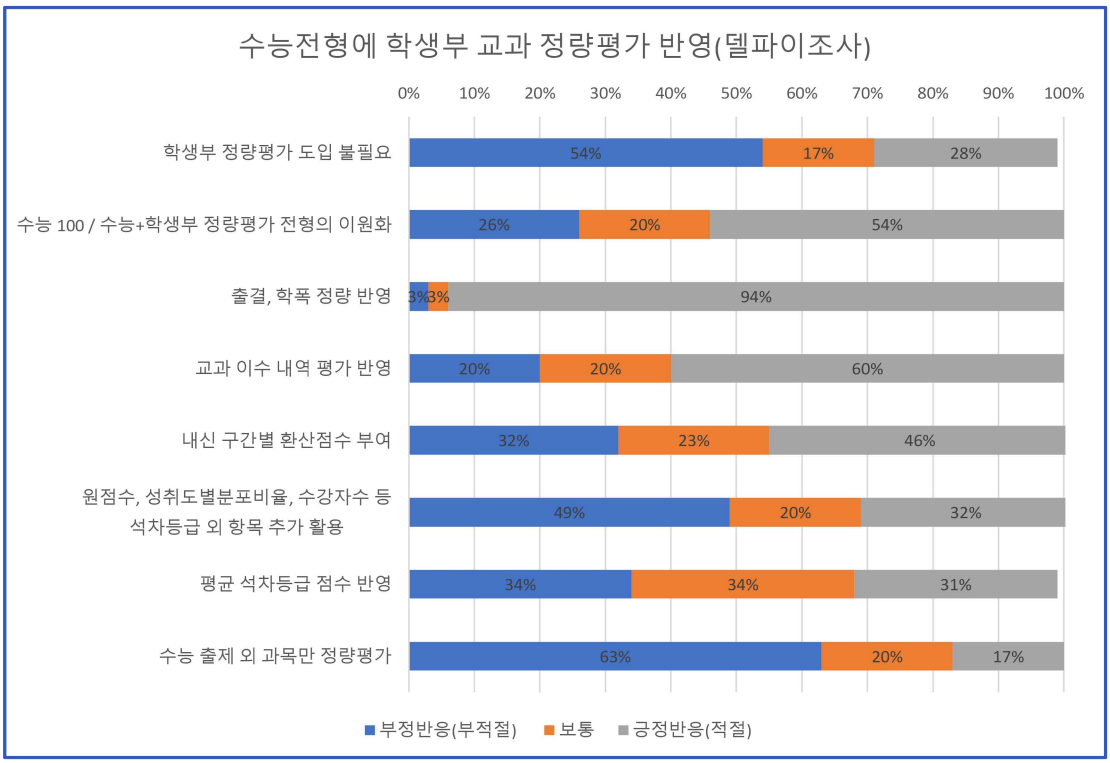
<표 Ⅳ-4> 수능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활용 (단위: %)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출결상황		고교	2.8	5.8	9.9	33.3	48.1	100
		대학	8.2	16.5	28.6	34.1	12.6	100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고교	14.6	17.8	28.8	25.7	13.1	100
		대학	27.5	35.7	29.1	7.1	0.5	100
	동아리 활동	고교	14.4	17	25.1	28.7	14.8	100
		대학	26.4	35.7	26.4	11	0.5	100
	진로활동	고교	14	16.7	24.5	29.4	15.4	100
		대학	26.4	34.1	25.3	11	3.3	100
	봉사활동실적	고교	20.4	18.9	33	17.6	10.1	100
		대학	29.1	36.8	26.9	6.6	0.5	100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석차등급	고교	7.1	6.6	19.5	40.4	26.4	100
		대학	11.5	21.4	24.7	31.3	11	100
	성취도	고교	8.1	9.4	24.9	36.3	21.3	100
		대학	11.5	22	26.9	30.8	8.8	100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고교	7.7	7.9	22.8	37.3	24.3	100
		대학	13.2	22.5	20.3	34.6	9.3	10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고교	10.1	12	25.5	31.1	21.3	100
		대학	19.2	29.1	25.3	22.5	3.8	10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고교	8.6	11	21	33.5	25.8	100
		대학	15.4	22.5	30.2	26.9	4.9	100



[그림 Ⅳ-8] 수능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활용 적합도(설문조사)

수능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반영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학생부 정량평가 도입 불필요’에 대한 부정반응(54%)이 긍정반응(28%) 보다 높았다. 수능 100과 수능과 학생부 정량평가로 이원화해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반응(54%)이 부정반응(26%) 보다 높았다. 낮아진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전형에 어떤 식으로든지 학생부 정량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높았다.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법으로는 긍정반응이 ‘교과 이수 내역 평가 반영(6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신 구간별 환산점 부여(1~2등급: 만점, 3등급 이하: 감점/성취도 B,C감점 등)(46%)’가 부정반응보다 높았다. 한편, 부정반응이 ‘수능 출제 외 과목만 정량평가(63%)’, ‘원점수, 성취도별분포비율, 수강자수 등 석차등급 외 과목성적 추가 활용(49%), ‘평균 석차등급 점수 반영(34%)’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도 교과 이수 현황과 구간별 환산점수 등 학생부 정량평가를 최소화하여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 수능전형에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반영(델파이조사)

대학은 수능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회 제공, 행정 부담과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학생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정시모집에 학생부를 활용한다면 모집단위별이나 모집군별로 전형방법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컨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인문계열은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자연계열은 수능 외에 수학과 과학을 보충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성평가(서류나 면접)나 출결 및 교과성적 정량평가, 권장이수 교과목 가산점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모집군별로 다르게 정시 가군과 나군은 수능과 학생부의 조합, 다군은 수능 100%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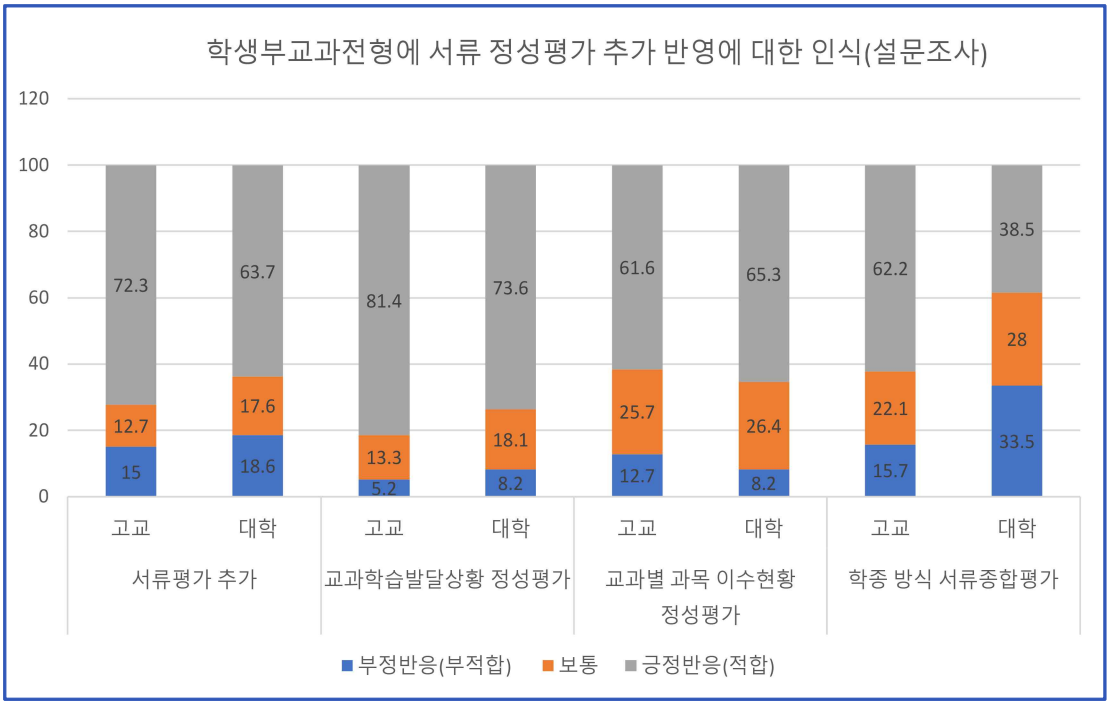
다.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전형의 서류/면접 등 정성평가 추가 활용

낮아진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량평가에 기반한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 수능전형에 정성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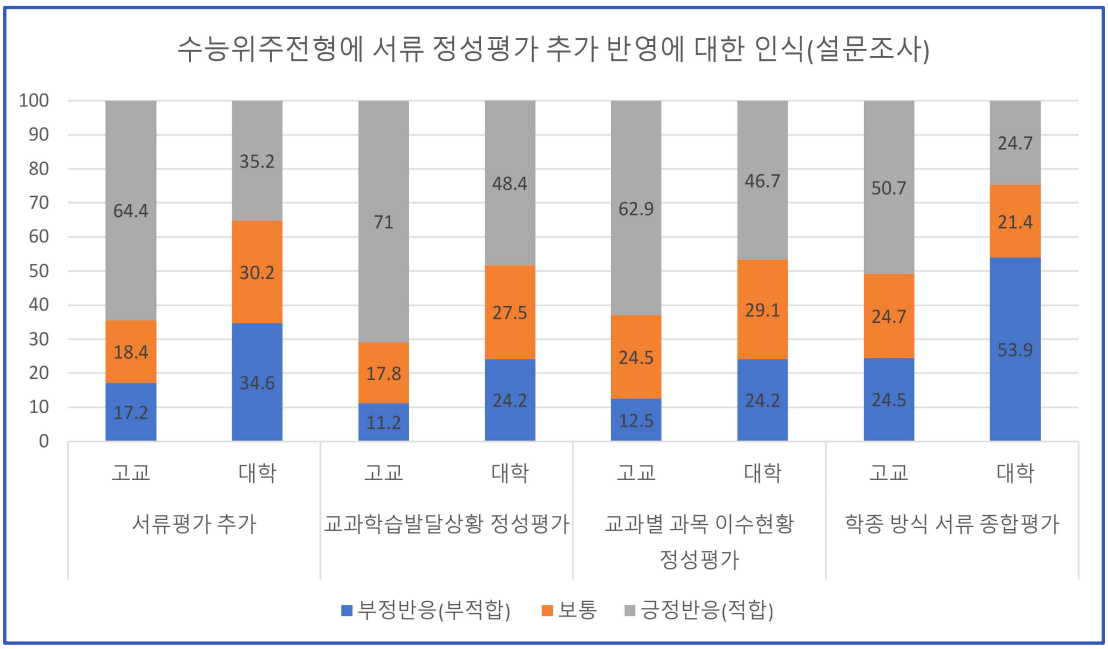
1) 서류평가 추가 반영

정량평가에 기반한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전형에 정성평가인 서류평가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류 정성평가에 대해 교과전형은 높았고 수능전형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과전형에 서류평가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긍정반응이 높아 의견이 일치하나, 수능전형에 서류평가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는 긍정반응이 64.4%로 높으나, 입학사정관은 긍정반응 35.2%와 부정반응 34.2%로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류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에 긍정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교사의 경우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모두 긍정반응이 높으나, 입학사정관의 경우 교과전형은 긍정반응이 높으나 수능전형은 부정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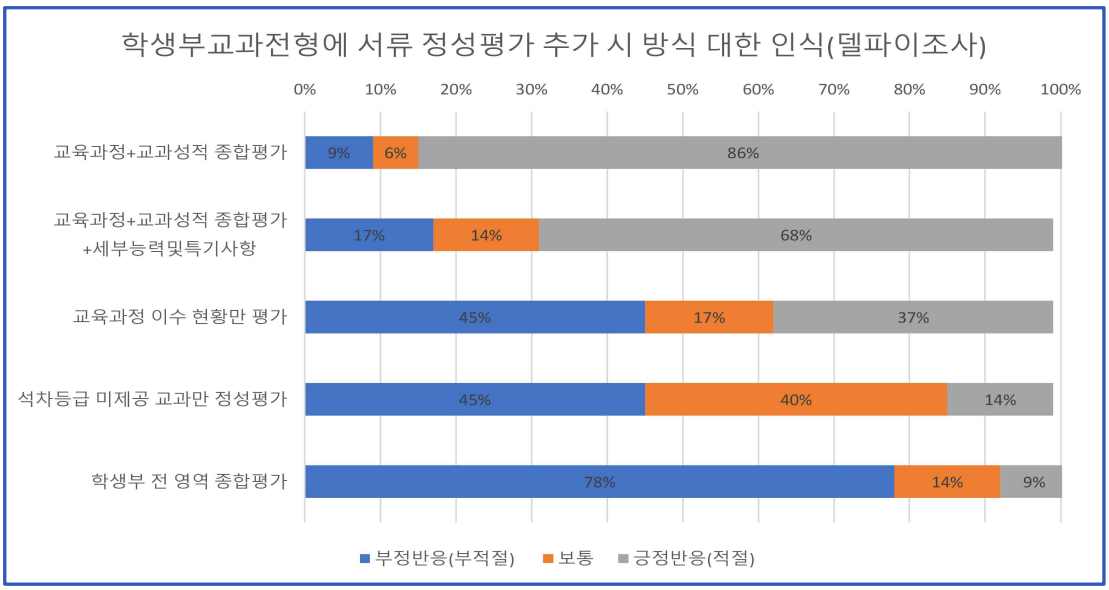
[그림 Ⅳ-10] 학생부교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반영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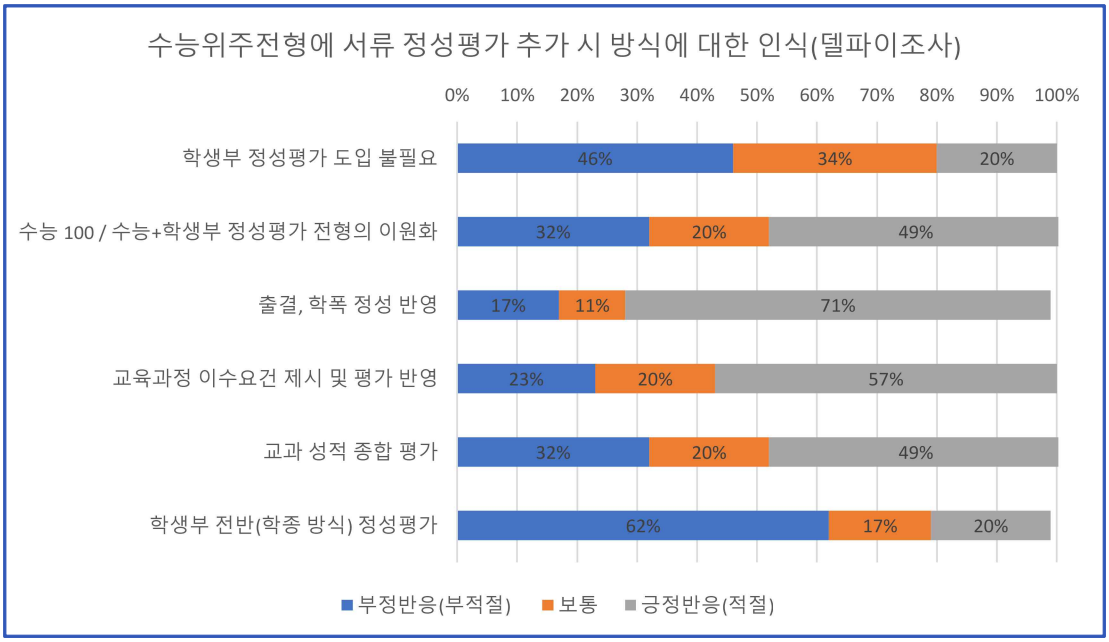
[그림 Ⅳ-11] 수능위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반영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학생부교과전형에 교과 정성평가 추가 도입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방식 내에서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육과정 이수 현황과 교과성적 종합평가'에 대한 긍정반응(86%)이 부정반응(9%)보다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세특을 포함한 교과학습발달상황 종합평가(교육과정 이수현황+교과성적종합평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긍정반응(68%)이 부정반응(17%) 보다 높았으며, '교육과정 이수 현황만 평가'에 대한 부정반응(45%)이 긍정반응(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종 방식의 학생부 전 영역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부정반응(78%)이 긍정반응(9%) 보다 높았다. '석차등급 미제공 교과만 정성평가'에 대한 부정반응(45%)이 긍정반응(1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능전형에 교과 정성평가 추가 도입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 불필요'에 대해 부정반응(46%)이 긍정반응(20%)보다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라는 중립 의견도 34%로 높았다. 수능전형에 교과 정성평가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거나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수능위주전형의 학생부교과 정성평가 방식으로는 '출결, 학폭 정성평가 반영(7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과정 이수요건 제시 및 평가 반영(57%)', '교과성적 종합평가(4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종 방식의 학생부 전 영역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부정반응(66%)이 긍정반응(9%)보다 높았다. 델파이조사에서도 수능전형에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반영은 하되,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12] 학생부교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시 방식에 대한 인식(델파이조사)



[그림 Ⅳ-13] 수능위주전형에 서류 정성평가 추가 시 방식에 대한 인식(델파이조사)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모두 서류평가 추가에 대해 긍정반응이 높으나, 서류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서류 종합평가보다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량평가에 기반한 교과전형과 수능전형까지 학생부 전 영역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중심으로 교과종합평가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학사정관이 교과전형과 수능전형까지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으로 종합평가하는데 부정적이라는 점은 평가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량평가 전형에 반영되는 서류평가의 경우는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서류평가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교과전형과 수능전형에 추가하는 서류 정성평가는 학생부 전체 영역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달리 교과학습발달상황 중심으로 평가하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서류평가’보다는 ‘교과(종합)평가’가 용어적으로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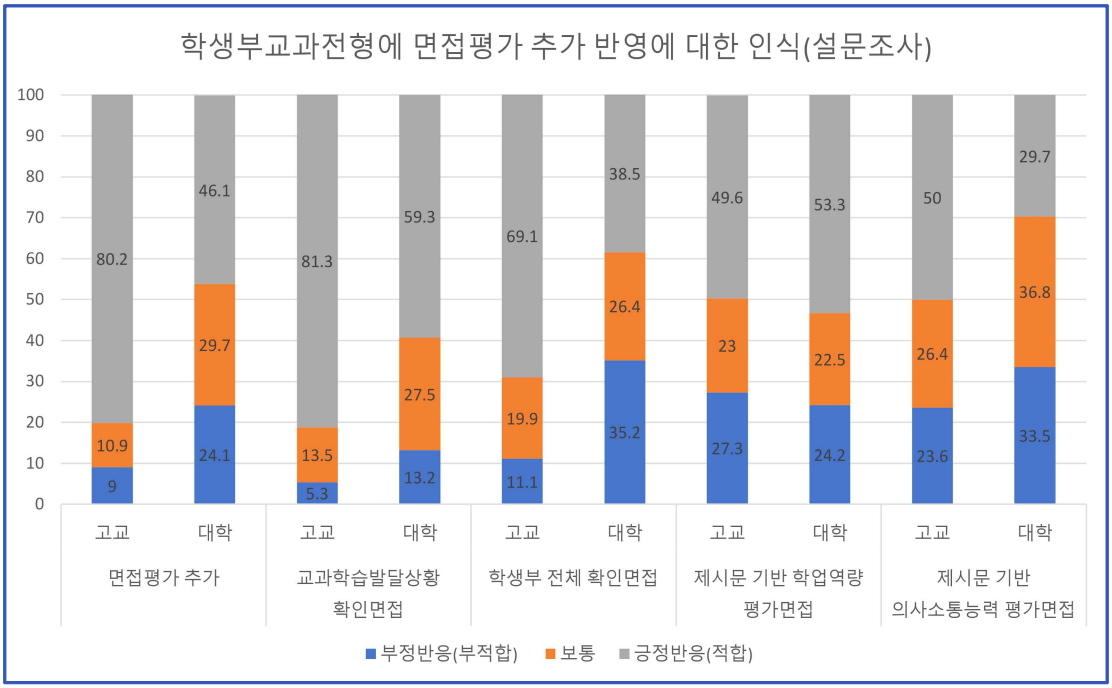
<표 Ⅳ-5>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 서류평가 추가 활용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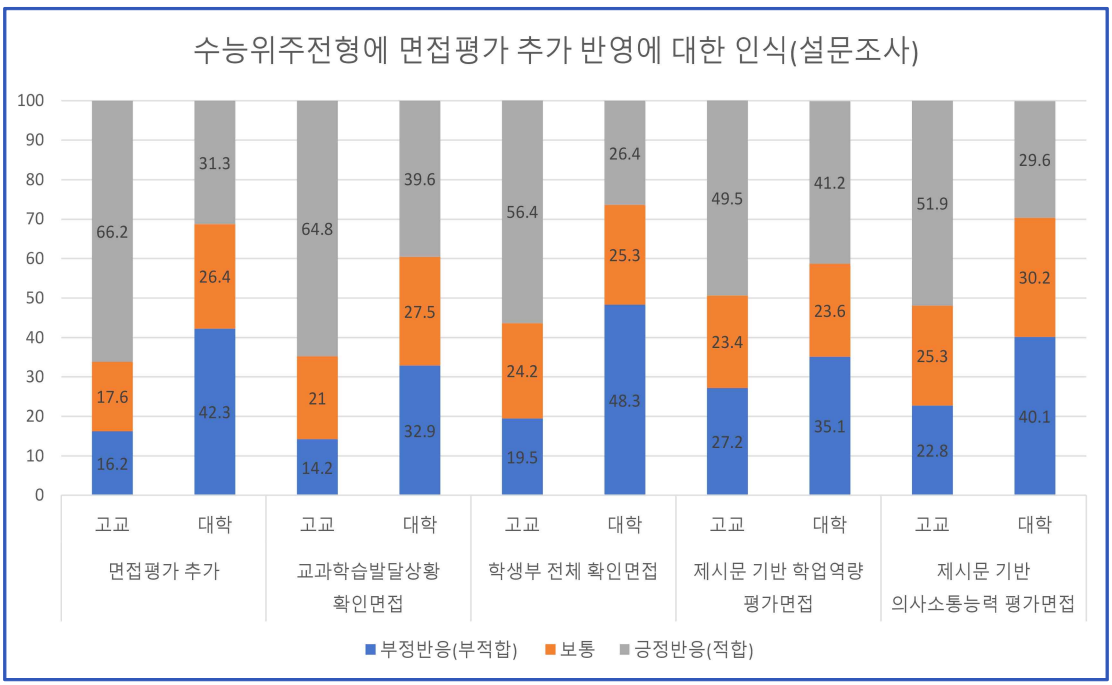
문항	전형	대상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서류평가 추가	학생부 교과	고교	5.4	9.6	12.7	42.7	29.6	100
		대학	4.9	13.7	17.6	47.8	15.9	100
	수능위주	고교	6.9	10.3	18.4	41.2	23.2	100
		대학	12.6	22	30.2	30.8	4.4	100
학종방식 서류종합 평가	학생부 교과	고교	5.4	10.3	22.1	39.5	22.7	100
		대학	7.7	25.8	28	31.9	6.6	100
	수능위주	고교	10.1	14.4	24.7	34.6	16.1	100
		대학	16.5	37.4	21.4	19.8	4.9	100
교과학습 발달상황 정성평가	학생부 교과	고교	2.6	2.6	13.3	48.1	33.3	100
		대학	2.7	5.5	18.1	59.9	13.7	100
	수능위주	고교	5.2	6	17.8	45.9	25.1	100
		대학	9.9	14.3	27.5	42.9	5.5	100
교과별 과목 이수현황 정성평가	학생부 교과	고교	4.5	8.2	25.7	39.5	22.1	100
		대학	2.2	6	26.4	57.1	8.2	100
	수능위주	고교	5.6	6.9	24.5	41.6	21.3	100
		대학	8.8	15.4	29.1	37.9	8.8	100

2) 면접평가 추가 반영

정량평가인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전형에 정성평가인 면접평가를 추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는 긍정반응이 높고, 입학사정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은 면접을 추가요소로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교사는 학생부교과전형에 면접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긍정반응이 8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수능전형은 60% 수준을 보였다. 대학이 면접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전형자료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14] 학생부교과전형에 면접평가 추가 반영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그림 Ⅳ-15] 수능전형에 면접평가 추가 반영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적합도에서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모두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교과성적/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과전형의 경우 학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69.1%)이 높아 대체로 제시문 기반보다는 확인면접 방식에 긍정반응이 높았다.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방식이나 의사소통능력 평가 방식에 대한 긍정반응은 각각 49.6%와 50.0%로 부정반응보다는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확인면접 방식보다는 낮았다. 특히, 입학사정관은 제시문 기반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방식과 학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면접 방식에는 교사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교사는 학생부를 확인하는 면접을 선호하고, 대학은 학업역량을 확인하는 면접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은 수능전형에서 면접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면접평가 방식에 관계없이 부정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정시모집 특성상 짧은 전형 기간 내에 면접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평가 방식도 서류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전 영역에 대한 확인면접 방식보다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을 바탕으로 한 확인면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량평가에 기반한 교과전형과 수능전형까지 학생부 전 영역을 확인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중심으로 교과역량 확인면접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6>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 면접평가 추가 활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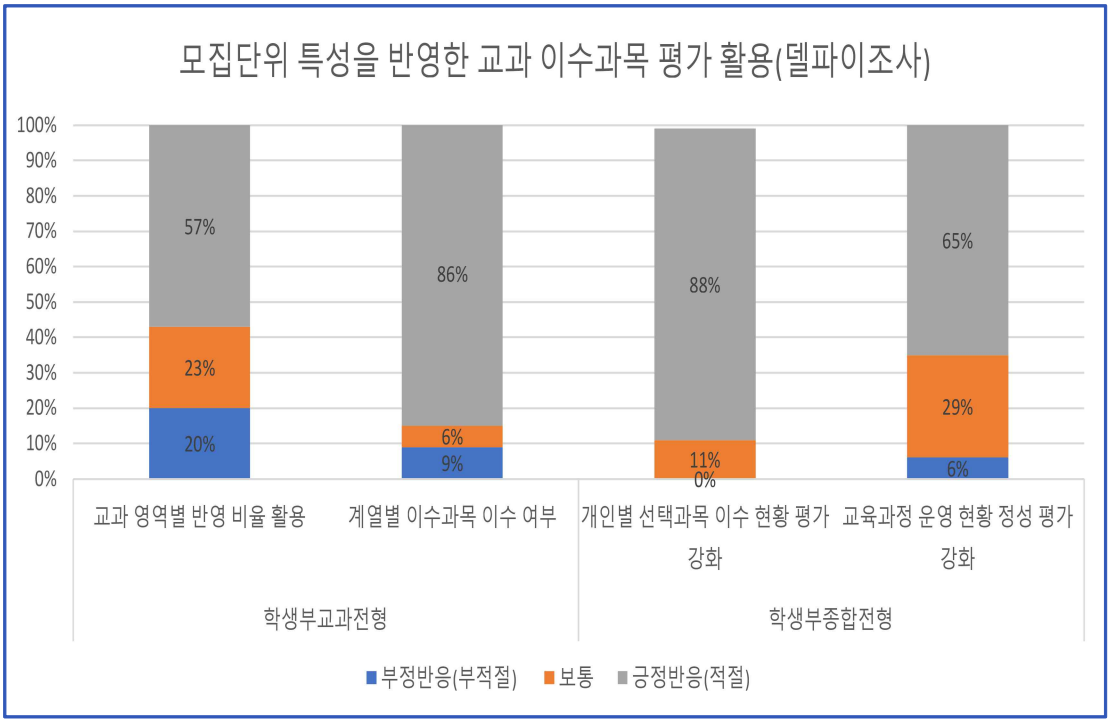
문항	전형	대상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면접평가 추가	학생부 교과	고교	2.6	6.4	10.9	46.1	34.1	100
		대학	7.1	17	29.7	40.1	6	100
	수능위주	고교	6.6	9.6	17.6	43.4	22.8	100
		대학	15.9	26.4	26.4	28	3.3	100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면접	학생부 교과	고교	11	16.3	23	33.5	16.1	100
		대학	7.7	16.5	22.5	44.5	8.8	100
	수능위주	고교	12	15.2	23.4	33	16.5	100
		대학	13.7	21.4	23.6	34.6	6.6	100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 능력 평가면접	학생부 교과	고교	9	14.6	26.4	36.7	13.3	100
		대학	8.2	25.3	36.8	28.6	1.1	100
	수능위주	고교	9.9	12.9	25.3	38	13.9	100
		대학	14.3	25.8	30.2	25.8	3.8	100

문항	전형	대상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학생부 전체 확인면접	학생부 교과	고교	4.5	6.6	19.9	40.8	28.3	100
		대학	7.7	27.5	26.4	31.9	6.6	100
	수능위주	고교	7.9	11.6	24.2	37.5	18.9	100
		대학	17	31.3	25.3	19.8	6.6	100
교과학습 발달상황 확인면접	학생부 교과	고교	1.9	3.4	13.5	45.3	36	100
		대학	4.4	8.8	27.5	48.9	10.4	100
	수능위주	고교	5.8	8.4	21	41.8	23	100
		대학	12.6	20.3	27.5	36.3	3.3	100

라.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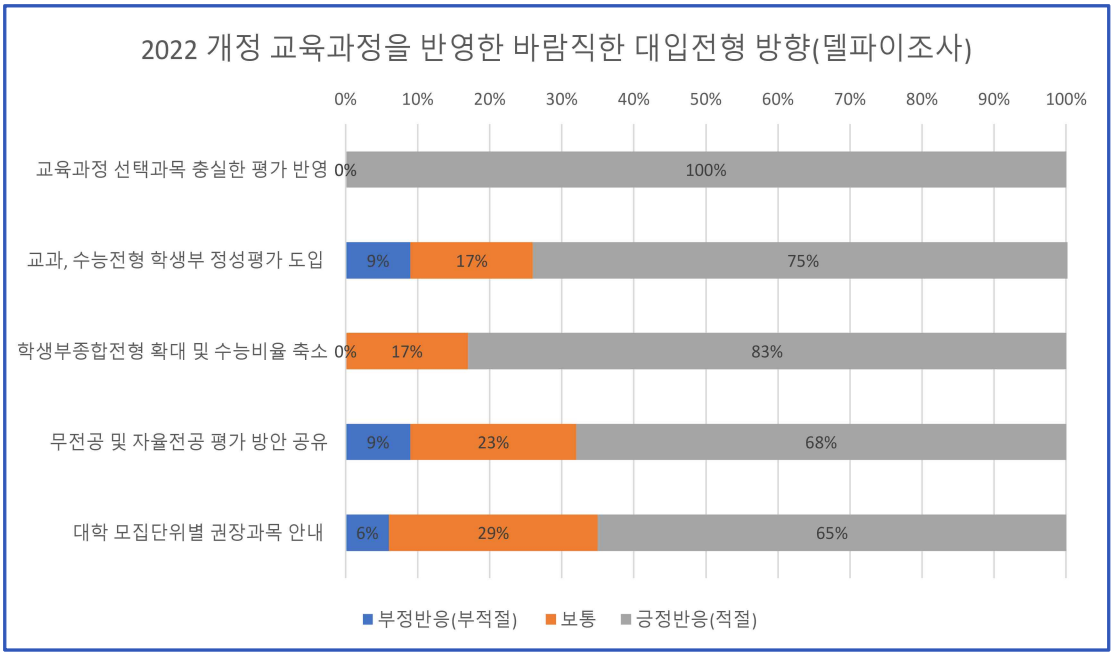
연구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을 대입에 반영하는데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평가에서 권장 이수과목,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정량평가에도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해 교과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주도적인 과목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의 연계를 위해 학생의 선택과목을 대입전형에 활용하느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서류평가에 권장과목 이수 여부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긍정반응(교사 88%, 입학사정관 84%)이 부정반응(교사 12%, 입학사정관 17%)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생부 석차등급과 성취도 외 다른 항목 활용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계열별 이수과목 이수 여부(예: 공대는 미적분, 물리 이수 가산점)’ 긍정반응(86%)이 부정반응(9%) 보다 매우 높고, ‘교과 영역별 반영비율 활용’ 긍정반응(57%)이 부정반응(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정성평가 방향에 대해서도 ‘개인별 선택과목 이수 현황 평가 강화’에 대한 긍정반응(88%)이 부정반응(0%)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정성평가 강화’에 대한 긍정반응(65%)이 부정반응(6%)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교 유형별 차이에서 오는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16]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교과 이수과목 평가 활용(델파이조사)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연계 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에서도,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반응이 높았다. '교육과정 선택과목 충실한 평가 반영(100%)' 에 대한 긍정반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과, 수능전형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75%)',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및 수능비율 축소(73%)', '무전공 및 자율전공 평가 방안 공유(68%)', '대학 모집단위별 권장과목 안내(6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높은 긍정반응을 보여 대체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 이수 현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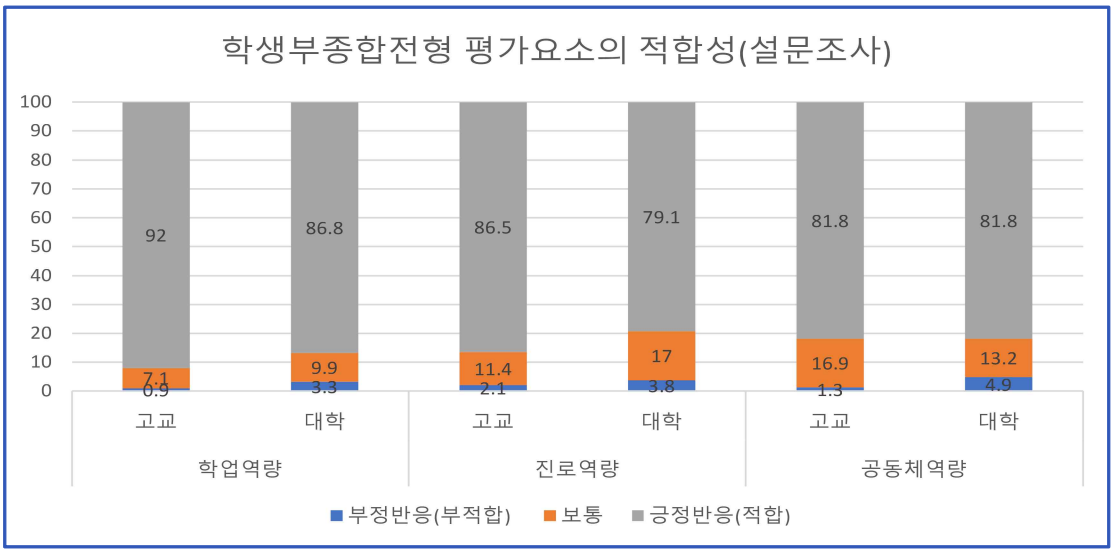


[그림 Ⅳ-17]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바람직한 대입전형 방향(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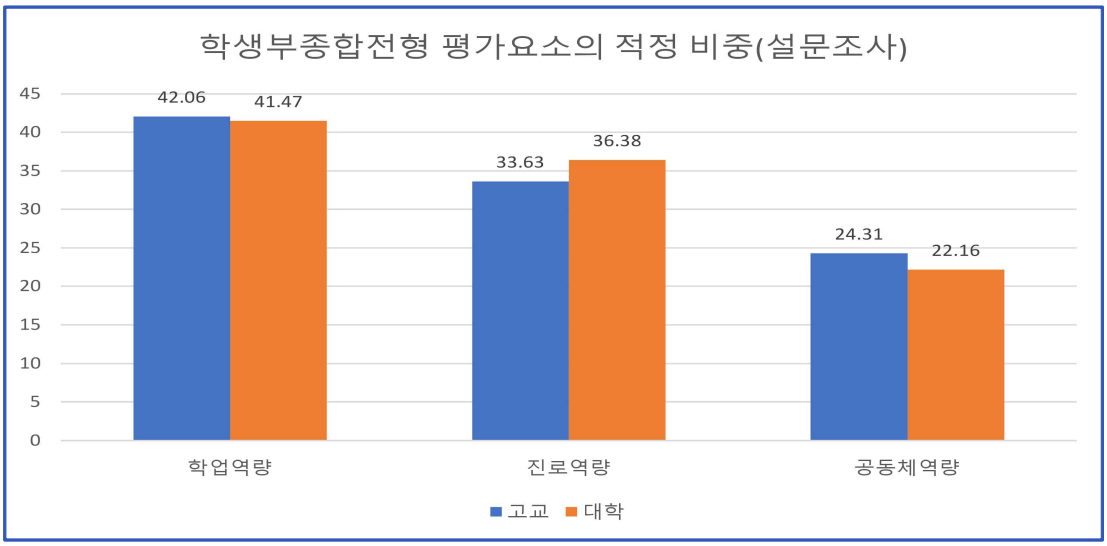
학생의 적절한 과목 선택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시하는 계열별 또는 모집단위별 권장 이수과목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학생의 교과 이수 현황을 대입 평가 요소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장과목 이수 여부를 서류평가에 반영하는데 동의한 이유로, 교사는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44%)'. '학생 선발 시 전공적합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28%)', '파행적 과목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10%)', '학과에 대한 준비 및 학업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9%)', '진로 상담 시 선택과목 지도 및 선택에 도움이 된다(6%)', '고교학점제 및 학종 평가 취지에 부합한다(1%)' 등의 의견이 있다. 한편 교사와 달리, 입학사정관은 '진로 상담 시 선택과목 지도 및 선택에 도움이 된다(27%)'와 '전공적합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26%)',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26%)'는 의견이 비슷하고, 교사들과는 다르게 '학과에 대한 준비 및 학업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18%)'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2021년 경희대 등 5개 대학은 공동연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평가요소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를 반영하는 진로역량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하였다. 진로역량 평가요소 적합성에 대해 긍정반응이 교사가 87%, 입학사정관이 79%로 매우

높았으며, 학업역량(교사 92%, 입학사정관 87%)과 공동체역량(교사/입학사정관 8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진로역량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평가요소별 반영 비율은 학업역량은 대체로 40% 초과, 진로역량은 대략 35% 정도의 비중, 공동체역량은 2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18]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적합성(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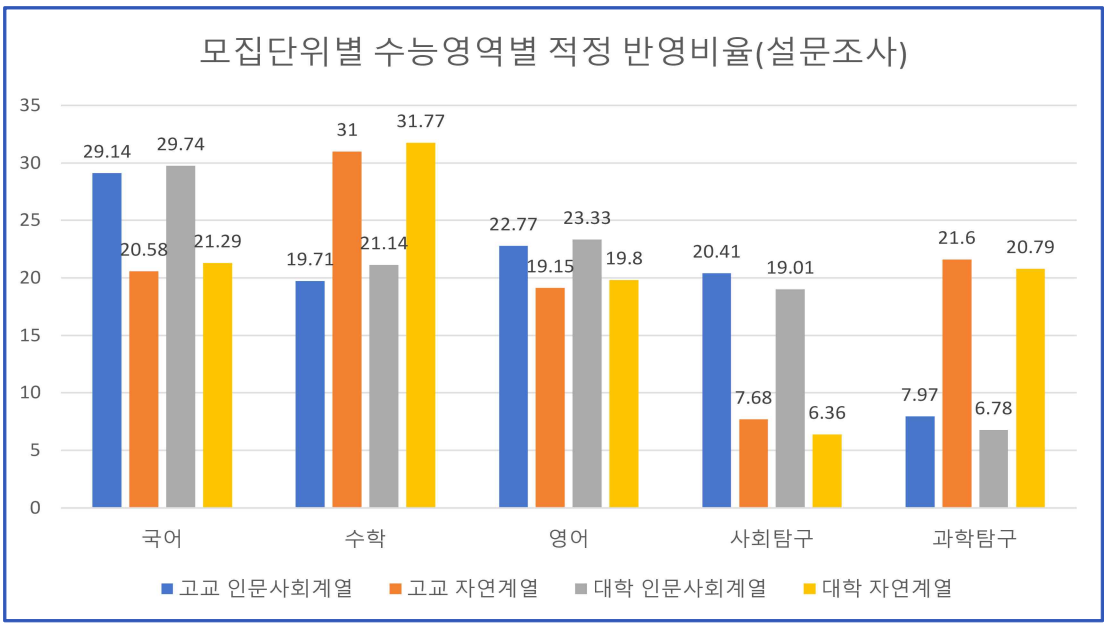


[그림 Ⅳ-19]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적정 비중(설문조사)

교과전형에서 선택과목별 최소 이수 과목 수(학점)를 지정하는 방안에는 긍정반응(교사 69%, 입학사정관 57%)이 부정반응(교사 9%, 입학사정관 15%)보다 3~4배 높다.

논술전형에서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하는 의견에는 긍정반응(교사 64%, 입학사정관 40%)이 부정반응(교사 13%, 입학사정관 21%)보다 2~3배 높다.

수능전형에 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생부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반응(교사 67% 입학사정관 45%)이 부정반응(교사 14% 입학사정관 28%)보다 2~3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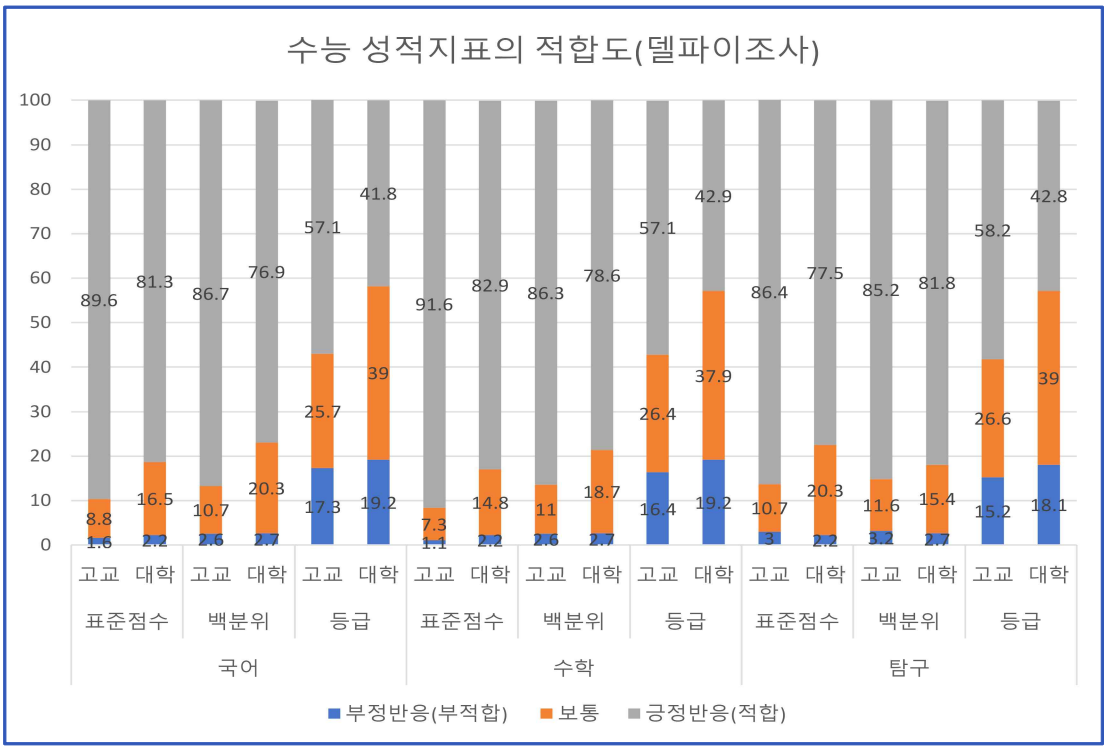


[그림 Ⅳ-20] 모집단위별 수능영역별 적정 반영비율(설문조사)

수능전형에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 영역 성적의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반응(교사 83%, 입학사정관 79%)이 부정반응(교사 6%, 입학사정관 9%)보다 3~4배 높다. 교사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 적합한 각 영역의 비중은 국어(29.1%), 영어(22.8%), 사회(20.4%), 수학(19.7%), 과학(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입학사정관은 국어(29.7%), 영어(23.3%), 수학(21.1%), 사회(19.0%), 과학(6.8%) 순으로 나타나, 교사에 비해 입학사정관은 사회보다 수학의 비중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 자연계열에 적합한 각 영역의 비중은 수학(31.0%), 과학(21.6%), 국어(20.6%), 영어(19.2%), 사회(7.7%)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은 수학(31.8%), 국어(21.3%), 과학(20.8%), 영어(19.8%), 사

회(6.4%)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교사에 비해 과학보다 국어의 비중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수능 탐구영역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통합사회가 20%, 통합과학이 7% 수준, 자연계열은 통합과학이 21%, 통합사회가 7% 수준으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수학도 인문사회계열은 20% 수준, 자연계열은 31% 수준으로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면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20% 사탐 20% 과탐 7% 내외 수준이며,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사탐 7% 과탐 20% 내외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총점 계산 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표준점수, 백분위, 수능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사하였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모두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80% 이상으로 긍정반응이 높았지만, 등급 활용에 대한 긍정반응은 낮은 편이다. 수능 영역과 무관하게 표준점수와 백분위 모두 수능성적 반영방법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교사는 모든 과목에서 표준점수가 백분위보다 약간 높았으나, 입학사정관은 탐구영역의 경우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가 긍정반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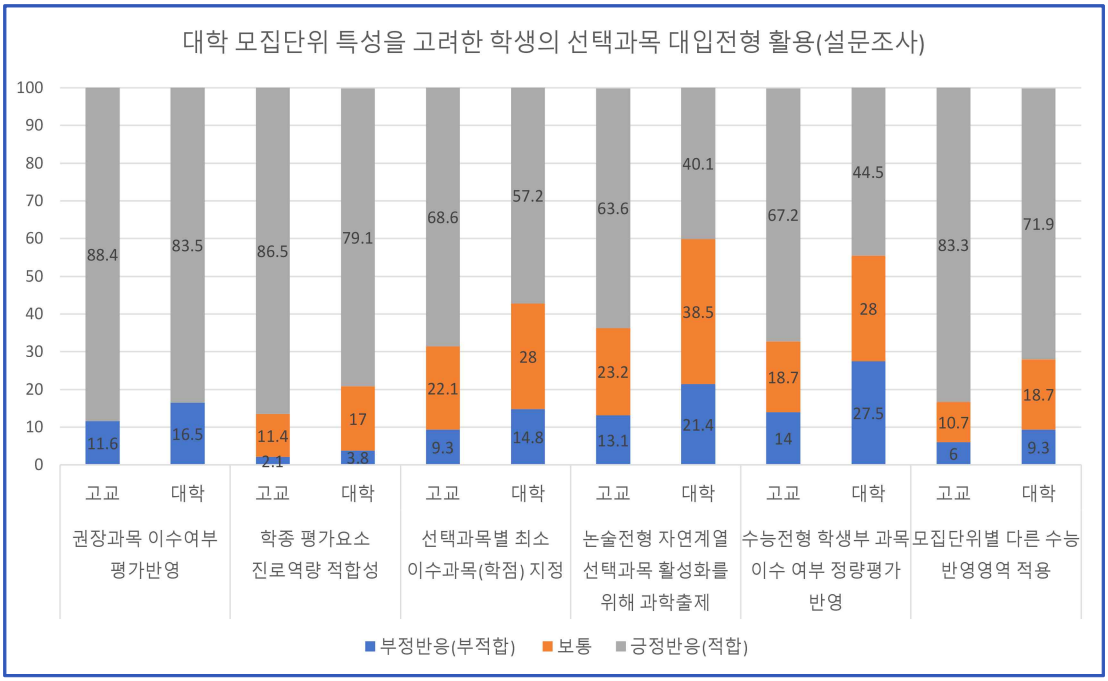


[그림 Ⅳ-21] 수능 성적지표의 적합도(델파이조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과목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고교학점제 등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과 삶과 진로를 연계하는 진로연계형 교육과정을 목표로 한다. 문·이과 구분없는 융합형 교육과정과 통합형 수능 도입과는 별개로, 대학의 모집단위나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과 이수 현황을 대입전형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해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Ⅳ-7>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권장과목 이수여부 평가반영	고교	2.6	9.0	-	50.8	37.6	100
	대학	1.1	15.4	-	65.4	18.1	100
학종 평가요소 진로역량 적합성	고교	0.4	1.7	11.4	39.1	47.4	100
	대학	0.5	3.3	17	50.5	28.6	100
선택과목별 최소 이수과목(학점) 지정	고교	2.6	6.7	22.1	46.3	22.3	100
	대학	1.6	13.2	28	47.3	9.9	100
논술전형 자연계열 선택과목 활성화를 위해 과학출제	고교	5.6	7.5	23.2	42.3	21.3	100
	대학	6.6	14.8	38.5	34.6	5.5	100
수능전형 학생부 과목 이수 여부 정량평가 반영	고교	5.2	8.8	18.7	42.7	24.5	100
	대학	9.9	17.6	28	35.2	9.3	100
모집단위별 다른 수능 반영영역 적용	고교	1.9	4.1	10.7	48.5	34.8	100
	대학	3.3	6	18.7	52.7	19.2	100



[그림 Ⅳ-22] 대학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선택과목 대입전형 활용(설문조사)

마. 출결상황 평가요소 추가 활용

연구 결과, 출결상황을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교사나 입학사정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학생부 출결상황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드물게 미인정 결석 등에 대해 학생부 정량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최근 출결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입에서 출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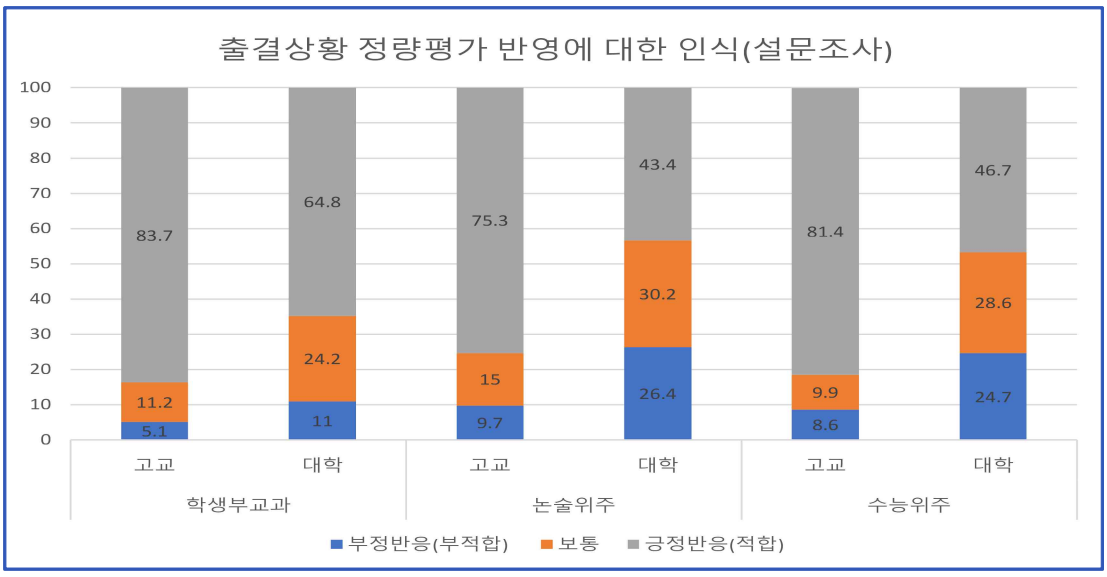
모든 전형에서 출결상황 평가 반영에 대해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긍정반응이 약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출결상황 평가 반영'에 대한 긍정반응(86%)이 부정반응(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출결상황이 나빠진 학교 상황을 교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 외에도 정량평가인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전형에 도입하는 방안과, 2026학년도부터 반영하기로 한 학교폭력 기재상황과 같이 모든 전형에 출결상황을 정량화하여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량평가 시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한 감점 처리 방안 마련과 더불어 개근에 대한 가점 반영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출결 및 학교폭력 정량평가 반영에 대한 델파이조사에서도 긍정반응(94%)이 부정반응(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로 질병의 경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나 교사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 편법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평가요소로 반영하는데 우려하는 시각도 다수 있었다.

다만,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 밖 지원자에 대한 비교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른 전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교내신 처리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전형에 반영되는 다른 요소 성적을 대학의 점수 기준표에 따라 비교 내신 처리하는 방식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Ⅳ-8> 출결상황 정량화 반영에 대한 인식 (단위: %)

조사 대상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학생부교과	고교	1.7	3.4	11.2	32	51.7	100
	대학	0	11	24.2	48.9	15.9	100
논술위주	고교	3.9	5.8	15	31.5	43.8	100
	대학	7.7	18.7	30.2	33	10.4	100
수능위주	고교	2.8	5.8	9.9	33.3	48.1	100
	대학	8.2	16.5	28.6	34.1	12.6	100



[그림 Ⅳ-23] 출결상황 정량평가 반영에 대한 인식(델파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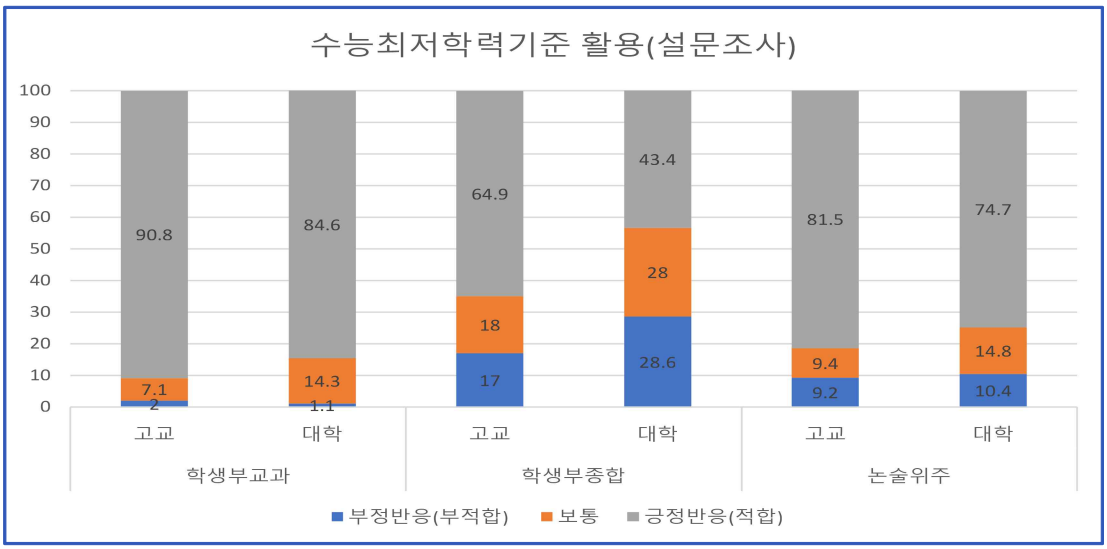
바.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연구 결과, 수시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는데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내신 5등급 체계로의 변경에 따라 약화된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 모든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생부교과, 종합, 논술전형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긍정반응 비율이 높으며,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더 높은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의 긍정반응이 교과전형(교사 90.8%, 입학사정관 84.6%), 논술위주(교사 81.5%, 입학사정관 74.6%), 학생부종합(64.9%, 43.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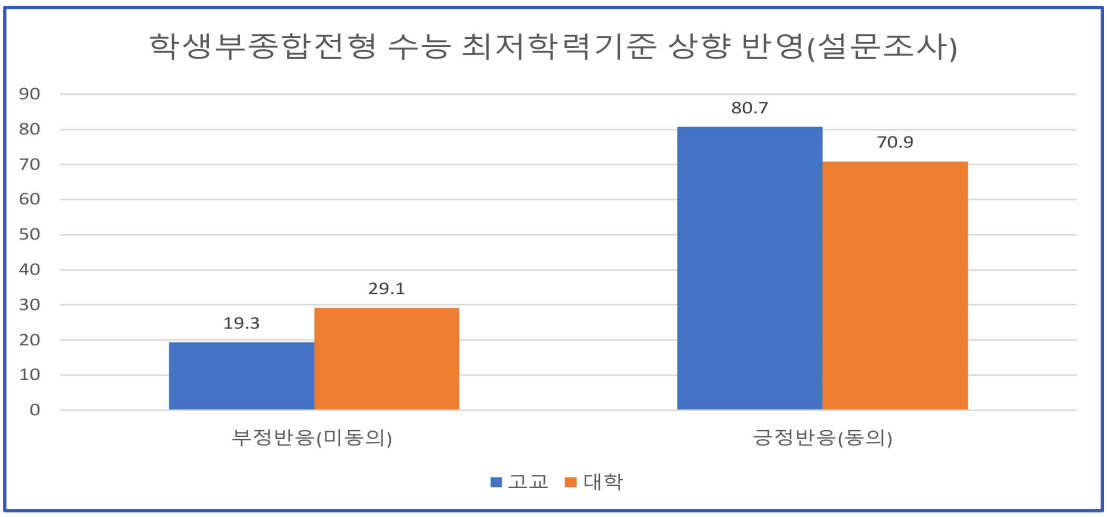
<표 Ⅳ-9>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학생부교과	고교	0.7	1.3	7.1	45.3	45.5	100
	대학	0	1.1	14.3	54.4	30.2	100
학생부종합	고교	3.9	13.1	18	41.9	23	100
	대학	7.7	20.9	28	33.5	9.9	100
논술위주	고교	3.4	5.8	9.4	35.2	46.3	100
	대학	6.6	3.8	14.8	51.1	23.6	100



[그림 Ⅳ-24]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설문조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의 80.7%, 입학사정관의 70.9%가 긍정반응을 보였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 '평가요소(학생부와 수능 범위 축소 등) 감소로 인한 변별력 감소(교사 43%, 입학사정관 4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능이 '최저학력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별 내신의 차이로 인해 수능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과,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학업역량 증진을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교사 38%, 입학사정관 2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생부 평가 등 다른 요소만으로도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 '변화된 수능이 학업역량을 평가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져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학생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 '사교육이 증가되어 공교육 내실화가 저해될 것이라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5]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반영(델파이조사)

현재 수시모집에서 수능등급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동점자 처리를 위해 수능등급 활용에 대해서 긍정반응(교사 72%, 입학사정관 59%)이 부정반응(교사 12%, 입학사정관 1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변화된 내신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능등급을 동점자 처리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국고지원사업에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이 부정적 지표로 활용되었는데,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수시모집에서 수능 등급을 수능최저학력기준 외에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사.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대비한 대입 서·논술형 평가 추가 활용

연구 결과, 고교 서·논술형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전형과 연계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논술전형 모집인원에 대해서 교사는 축소 의견과 유지 의견이 48.7%와 42.1%로 비슷하며, 확대 의견은 9.2%로 낮았다. 입학사정관도 유지 의견이 52.7%와 축소 의견이 30.2%로 높았으며, 확대 의견이 17.0%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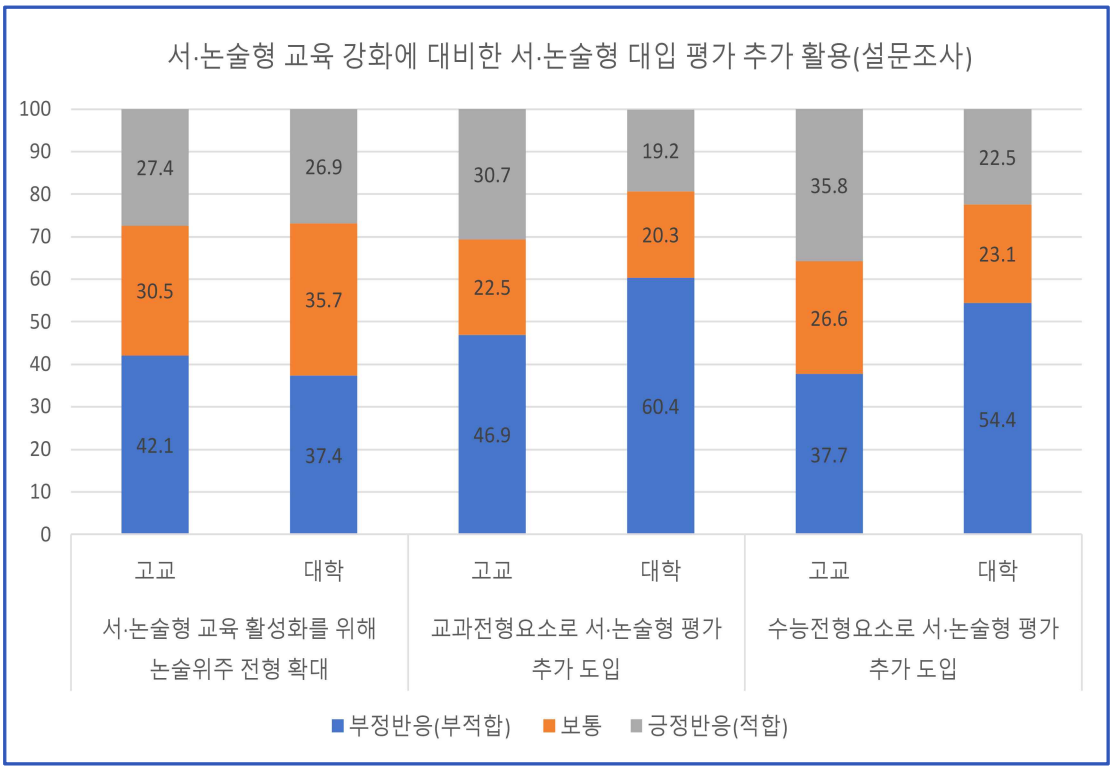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에는 고등학교 서·논술형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내신 서·논술형 평가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대비한 대입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교사는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반응(교사 42%, 입학사정관 37%)이 긍정반응(교사/입학사정관 27%)보다 높았다. 전형유형별로는 교과전형에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 부정반응(교사 47%, 입학사정관 60%)이 긍정반응(교사 31%, 입학사정관 19%)보다 높았다. 수능전형에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반응(교사 38%, 입학사정관 54%)이 긍정반응(교사 36%, 입학사정관 23%)보다 높아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입시에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듯이 고교 현장에서는 문제 및 정답 오류와 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논술전형 전형방법 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는, '약술형 및 서·논술형 문항 개발' 에 대한 긍정반응(65%)이 부정반응(12%)보다 높았고, '자연계열 과학논술 반영' 에 대한 긍정반응(51%)이 부정반응(18%)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에 포함된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입전형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학사정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논술전형과 교과전형, 수능전형 모두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2032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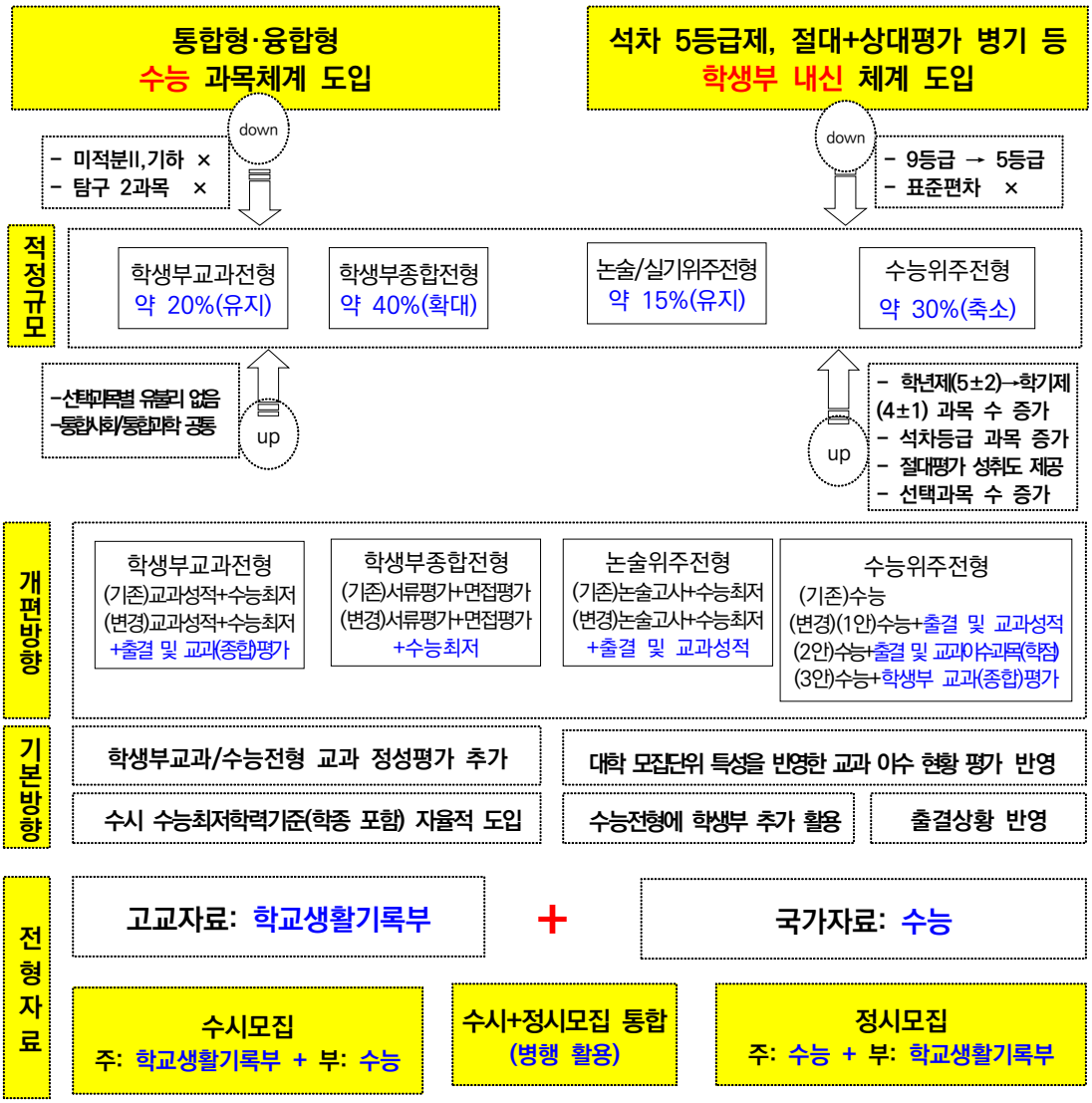
<표 Ⅳ-10>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인식 (단위: %)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 확대	고교	18.7	23.4	30.5	19.5	7.9	100
	대학	11	26.4	35.7	22.5	4.4	100
교과전형요소로 서·논술형 평가 추가 도입	고교	19.7	27.2	22.5	20.8	9.9	100
	대학	20.3	40.1	20.3	18.1	1.1	100
수능전형요소로 서·논술형 평가 추가 도입	고교	13.5	24.2	26.6	26.4	9.4	100
	대학	19.2	35.2	23.1	19.8	2.7	100



[그림 Ⅳ-26]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대비한 서·논술형 대입 평가 추가 활용(설문조사)

이상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Ⅳ-27]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방향(연구 결과 종합)

2. 제언

가. 전형자료와 입시체계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현재 대학 입시는 전형자료의 간소화와 입시체계의 다양화 기조의 엇박자로 인해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이래로 전형자료는 간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입시체계는 여전히 다양화 틀을 지향하고 있다.

입시체계는 2002년 수시모집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구분하여 지원자의 특성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시체계 내에서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실적, 수능 등의 5가지 전형유형을 두고 있으며, 수시는 최대 4가지 전형방법에 6회 지원, 정시는 최대 2가지 전형방법에 가/나/다군 3회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의 수시 정시모집 체계는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 다양한 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전형자료는 2014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이래로 교사 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 폐지,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내역,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 등 항목 축소, 글자수 축소 등 전형자료를 점차 줄여왔다. 전형자료 간소화는 평가자료의 제한을 가져와, 전형요소의 추가로 전형간 특성이 불분명해진다. 예컨대 현재 학생부교과전형에 서류평가를 추가하기도 하고, 수능전형에 학생부 교과역량평가를 추가 반영하기도 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5등급과 통합형 수능 도입에 따라 개별 평가요소의 대입 변별력은 이전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입전형에서 국가자료인 수능과 고교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형자료를 병행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기존의 교과성적과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서류 정성평가인 출결 및 교과(종합)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추가하는 반영이다. 논술전형은 기존의 논술고사와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출결 및 교과성적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정시 수능전형은 기존의 수능성적 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병행 활용하는 안으로 대략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평가인 출결 및 교과성적(1안) 또는 출결 및 교과이수 과목(학점)(2안)을 추가하여 방안과, 정성평가인 교과(종합)평가를 반영하는 안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및 교과성적 처리는 구간 반영 점수표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교과이수 과목(학점) 반영은 권장이수 과목 이수 여부를 가산점으로 활용하거나 계열별 교과별로 최소 이수 학점(과목수)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서류 정성평가는 교과학습발달상황에 한해 교과이수 현황, 교과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종합 평가하는 교과(종합)평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2028학년도 전형유형별 대입전형 변경(안)

▶ 학생부교과전형: (기존) 교과성적 + 수능최저학력기준 →
(변경) 교과성적 + 출결 및 교과(종합)평가 + 수능최저학력기준

▶ 학생부종합전형: (기존) 서류평가+ 면접평가 →
(변경)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수능최저

▶ 논술전형: (기존) 논술+ 수능최저학력기준 →
(변경) 논술 + 출결 및 교과성적 + 수능최저학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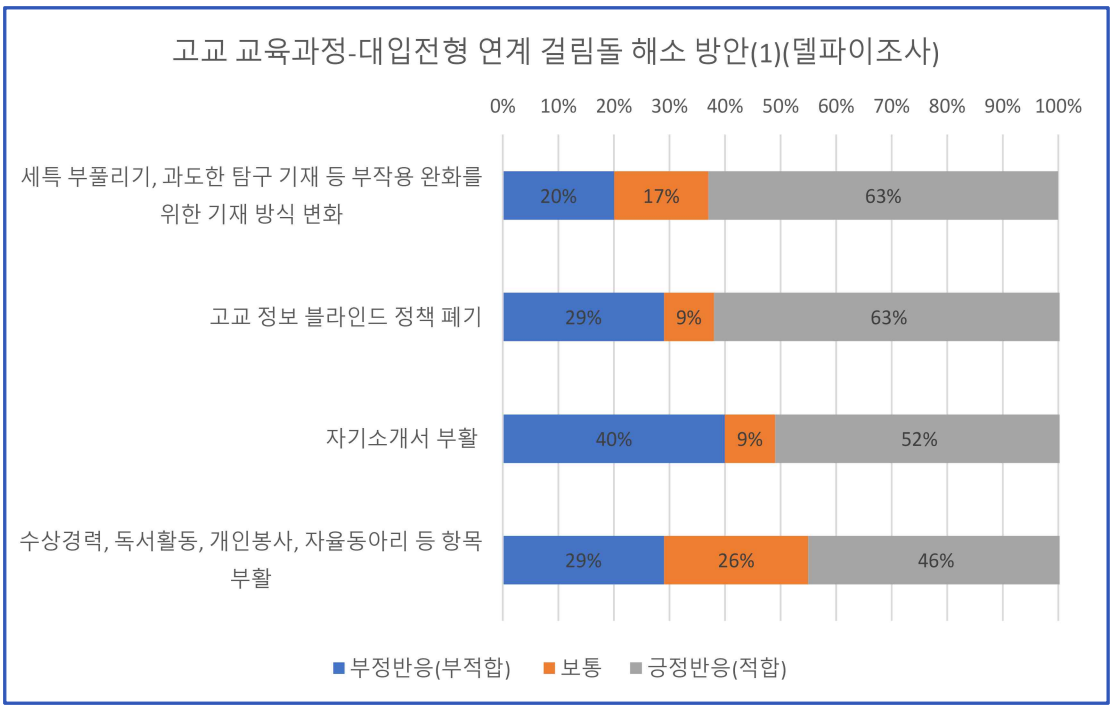
▶ 수능전형: (기존) 수능 →
(변경) 수능 + (1안) 학생부 출결 및 교과성적,
(2안) 학생부 출결 및 교과 이수 과목(학점)
(3안) 학생부 교과(종합)평가

전형자료와 입시체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낮아진 변별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시모집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대학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학생부종합전형에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는 데에 부정적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고교와 대학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고 기초학력 검증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이 높았다. 소수이긴 하지만 현재도 학생부종합전형에 일부 대학이나 일부 모집단위에 한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다. 한편,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은 양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까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전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여전히 높다. 대학에게 전형요소의 선택은 입시 수요, 지원자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내신 5등급 체계로 변경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수시에 수능등급을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신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 블라인드 평가를 전면 도입하기 이전인 블라인드 면접 수준으로 돌리고, 서류평가 단계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학생부 실명제 도입이 학교가 처한 교육환경을 평가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학생부를 기록할 때 학생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부풀리기, 과도한 탐구활동 기재, AI 활용(챗 GPT) 세특

기재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양식 변경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챗 GPT와 같은 AI프로그램이 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을 이런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면, 평가 기록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AI 프로그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과 수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양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챗 GPT와 같은 프로그램의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전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학생 활동의 객관적 사실 중심 기록이 가능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양식(안)에 대해 고교와 대학, 그리고 정책당국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림 Ⅳ-28]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걸림돌 해소 방안(1)(델파이조사)

나. 수능과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에 따르면 융합형·통합형 수능은 '공통 수능'을 지향하는데 반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공통을 지향하는 수능과 선택권 확대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인문·자연 구분 없이 누구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다양한 선택과목은 수능시험 출제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2028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능시험에서 제외된 부분을 평가하는 보충적 관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수능 수학 출제범위에서 미적분과 기하가 제외되었고 과학탐구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선택과목도 제외됨에 따라 대학 전공 수학을 위한 기초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시가 교육을 앞서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입은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반영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이 연계할 때 학생의 입시 준비 부담도 줄어든다. 입시가 교육과정을 앞서가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입시제도는 필연적으로 학교와 학생의 준비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인 학생의 교과 이수 선택과목을 대입전형 평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입에서 수능 외에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추가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의 행정 운영 부담과 학생의 입시 준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소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모집단위별(인문/자연계열) 모집군별(정시 가/나/다군) 특성을 반영해 인문계는 수능만으로 선발하고 자연계는 수능과 학생부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정시 다군은 수능만으로 선발하고 정시 가/나군은 수능과 학생부를 병행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수능과 교육과정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정부는 정시 수능 외 다른 평가요소를 추가 활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정시 수능전형에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오히려 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수능 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일부 활용하는 것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의 전형 반영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등 학교 밖 지원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둘째, 대학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대학의 계열별·모집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을 제시하거나 계열별 교과 선택과목 최소 이수학점(과목 수)을 지정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연계열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학과 과학 교과의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을 일정 학점[예) 각각 20학점]을 지정하여 권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입시 수요와 모집인원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현재 대학 입시는 입시 수요와 모집인원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시는 지원자가 많고 정시는 지원자가 적다. 최근 서울 소재 9개 사립대학의 조사[12]를 보면 재학생 중도포기율은 평균 3.4% 수준이며 신입생은 10%를 넘었고,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와 종합) 전형의 지원자는 졸업예정자가 약 70% 이상이지만, 수시 논술과 정시 수능전형은 졸업자가 60%를 넘어선다. 또한 신입생 중도포기율에서 수능전형 입학생이 약 20%로 매우 높다. 이런 현상들의 바탕에는 수도권 일부 대학에 적용되고 있는 정시 수능 40% 이상 선발이 있다고 본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르며, 대학 내에서도 전형유형 간 차이가 크다. 모집시기별 지원을 보면 학생부전형 내에서는 수시는 높고 정시는 낮고, 학생부전형에서도 종합전형은 높고 교과전형은 낮으며, 일반전형은 높고 기회균형전형은 낮다. 대학 입시 수요자를 고려하여 처한 상황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모집인원 자율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대학 자체적으로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 학교장 추천에서 추천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자까지 추천을 허용하여 입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교사와 입학사정관은 대체로 학생부종합전형은 40% 수준으로 확대, 학생부교과 20%와 실기/실적위주전형은 유지, 논술위주전형은 15%, 수능위주전형은 30% 수준으로 유지 또는 축소를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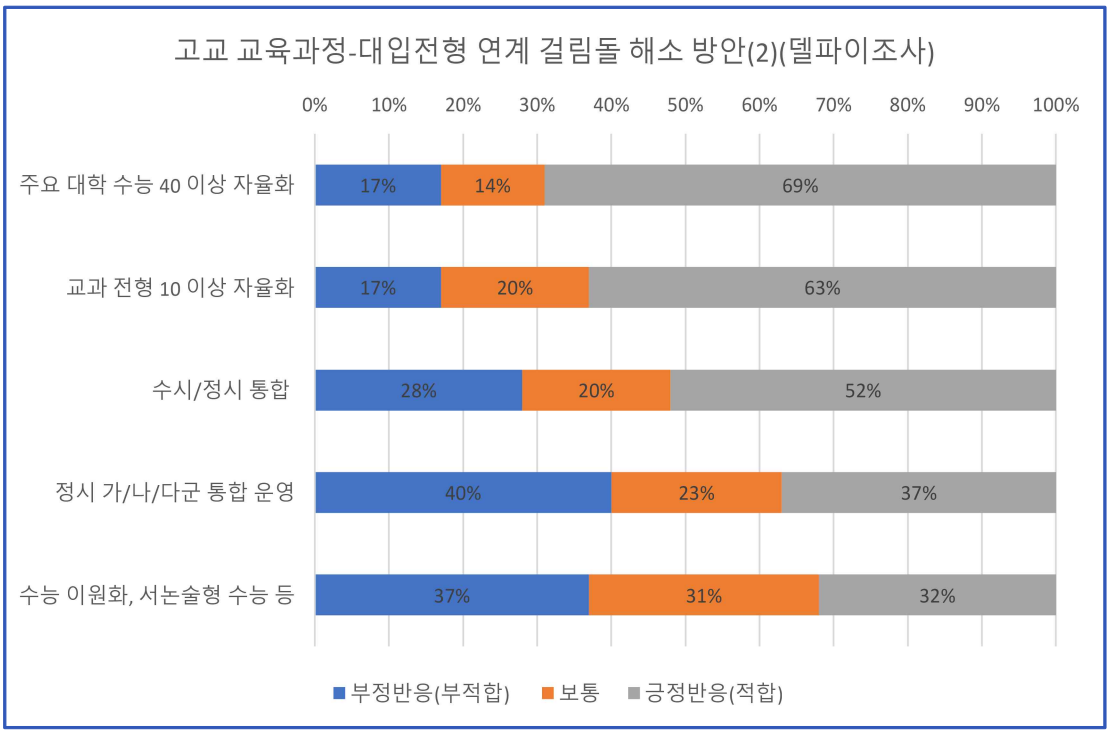
입시 수요와 모집인원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는 첫째, 정시 수능전형의 모집인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이다. 1단계에서는 수도권 대학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능 30%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많은 수도권 16개 대학은 40% 이상, 나머지 수도권 대학은 30% 이상, 비수도권 대학은 수능전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학의 모집인원은 매년 대입전형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있는데,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 제시된 과거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모집인원 기준을 통해 현재도 계속 수도권 16개 대학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고교 교사와 대학 모두 수능전형의 적정 규모를 30% 내외로 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 수도권 모든 대학은 정시 수능 30%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모집인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령인

12) 경희대학교(2025), 전형별 입학생의 성과분석 결과-서울 주요 9개 대학-. KHU-Alliance 진로진학 교사 워크숍 자료(2025.1.24.)

구가 급감하고 중도포기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사업과 연계 없이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단계: 수도권 모든 대학 정시 수능 30% 수준으로 통일 조정
> 2단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모집인원 비율 자율화

둘째, 2028 대입제도 확정안에 제시된 고교의 서·논술형 교육 강화에 맞춰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논술형 평가는 논술고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제시문 기반 면접 등에도 도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고지원사업에서 대학별고사 중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부정적 평가지표로 점진적 축소가 방향이었다. 논술전형은 지원자가 가장 많아 입시 수요가 많은 점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정착되면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면서 학교 내 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율화가 필요하다.



[그림 Ⅳ-29]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걸림돌 해소 방안(2)(델파이조사)

셋째,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현재와 같이 설문조사에서는 학생의 선택권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수시와 정시 분리 운영하

자는 의견이, 델파이조사에서는 고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해 통합 운영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수시와 정시 모두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병행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수시모집은 9월에서 12월까지, 정시모집은 1~2월 모집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고교는 9월 원서접수 후 3학년 2학기 교실 정상화를 위해 수시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입전형의 간소화는 기회의 획일화 문제를 낳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는 입시 준비의 복잡화 문제를 낳는다. 대입전형 단순화를 지향하는 수시와 정시의 통합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을 함께 활용하는 입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회를 몇 회 부여하느냐, 충원 방식과 기간을 얼마나 주느냐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시와 정시 통합은 장·단점이 명확한 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또 다른 대안으로 현재와 같이 수시와 정시모집의 틀은 유지하되, 전형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전형 시작일을 9월에서 11월로 늦추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수능을 현재보다 앞당겨 11월 첫째 주에 실시하고, 수능 직후 곧바로 원서접수를 시작해서, 수시는 1월 첫째 주까지로 하고 등록 기간을 충분히 둔다. 이렇게 하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은 원서접수 시에 대략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알고 지원하므로 경쟁률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형 기간은 줄지만 수시 경쟁률도 낮아져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들어 전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모집은 1월 첫째 주부터 2월초 1개월 정도로 현재와 비슷하게 진행한다. 수시에 합격한 지원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점이 현재와 같아, 미등록 충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학령인구감소 환경에 대응한 수시 정시 통합은 ‘입시는 단순하게! 교육은 다양하게!’ 를 실천하는 대입전형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_고등학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별책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별책9]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보도자료(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보도자료(2023a).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교육부 보도자료(2023b).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2024).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교육부(2025).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자료 변경사항 안내.

경희대학교(2025), 전형별 입학생의 성과분석 결과-서울 주요 9개 대학-. KHU-Alliance 진로진학교사 워크숍 자료.

박민규, 정환, 김삼열, 천명선, 조상훈, 정석오(2024). 대학 입시 및 고교교육 체제 변화를 반영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과제.

부록 1. 설문조사 통계조사 요약표

다음은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생부위주 학생부교과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표_도수분표]

교과 선발 규모	고교		대학	
	N	%	N	%
90% - 100%	0	0	1	0.5
80% - 90%	3	0.6	3	1.6
70% - 80%	16	3	2	1.1
60% - 70%	15	2.8	3	1.6
50% - 60%	61	11.4	5	2.7
40% - 50%	67	12.5	11	6
30% - 40%	170	31.8	51	28
20% - 30%	111	20.8	32	17.6
10% - 20%	81	15.2	67	36.8
0% - 10%	10	1.9	7	3.8
전체	**534**	**100**	**182**	**99.7**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교과전형 선발 규모	534	30.82	15.22	182	23.87	16.05

2. 교과성적 정량화 시 각 과목별 반영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표_도수분표]

공통과목	고교		대학	
	N	%	N	%
80% - 90%	1	0.2	0	0
70% - 80%	7	1.4	3	1.8
60% - 70%	17	3.4	5	3
50% - 60%	82	16.3	23	13.6
40% - 50%	129	25.7	47	27.8
30% - 40%	190	37.8	65	38.5
20% - 30%	71	14.1	24	14.2
10% - 20%	5	1	2	1.2

공통과목	고교		대학	
	N	%	N	%
전체	502	99.9	169	100.1

[요약표_도수분표]

일반선택	고교		대학	
	N	%	N	%
60% - 70%	1	0.2	0	0
50% - 60%	13	2.6	2	1.2
40% - 50%	83	16.5	28	16.6
30% - 40%	275	54.8	97	57.4
20% - 30%	119	23.7	37	21.9
10% - 20%	11	2.2	5	3
전체	502	100	169	100.1

[요약표_도수분표]

진로선택	고교		대학	
	N	%	N	%
50% - 60%	1	0.2	0	0
40% - 50%	9	1.8	4	2.4
30% - 40%	107	21.3	28	16.6
20% - 30%	262	52.2	100	59.2
10% - 20%	115	22.9	34	20.1
0% - 10%	8	1.6	3	1.8
전체	502	100	169	100.1

[요약표_도수분표]

융합선택	고교		대학	
	N	%	N	%
30% - 40%	5	1	0	0
20% - 30%	147	29.3	53	31.4
10% - 20%	297	59.2	95	56.2
0% - 10%	53	10.6	21	12.4
전체	502	100.1	169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공통과목	502	36.31	11.17	169	36.09	10.88
일반선택	502	30.05	7.43	169	30.06	7.07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진로선택	502	20.85	7.3	169	21.01	7.06
융합선택	502	12.79	6.31	169	12.84	6.29

3. 학생부교과전형의 교과성적을 정량화하는데 각 과목의 석차등급과 성취도는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표]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공통과목: 석차등급	N	28	67	88	225	126	534
	%	5.2	12.5	16.5	42.1	23.6	100
공통과목: 성취도	N	33	91	143	190	77	534
	%	6.2	17	26.8	35.6	14.4	100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N	26	74	92	225	117	534
	%	4.9	13.9	17.2	42.1	21.9	100
일반선택과목: 성취도	N	34	83	156	191	70	534
	%	6.4	15.5	29.2	35.8	13.1	100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N	53	95	115	180	91	534
	%	9.9	17.8	21.5	33.7	17	100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N	40	74	145	195	80	534
	%	7.5	13.9	27.2	36.5	15	100
융합선택과목: 석차등급	N	80	97	142	148	67	534
	%	15	18.2	26.6	27.7	12.5	100
융합선택과목: 성취도	N	49	75	161	170	79	534
	%	9.2	14	30.1	31.8	14.8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공통과목: 석차등급	534	3.66	1.12
공통과목: 성취도	534	3.35	1.11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534	3.62	1.12
일반선택과목: 성취도	534	3.34	1.09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534	3.3	1.23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534	3.38	1.12
융합선택과목: 석차등급	534	3.05	1.25
융합선택과목: 성취도	534	3.29	1.16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표]

문항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공통과목: 석차등급	N	8	37	50	67	20	182
	%	4.4	20.3	27.5	36.8	11	100
공통과목: 성취도	N	10	37	76	52	7	182
	%	5.5	20.3	41.8	28.6	3.8	100
일반선택과목 : 석차등급	N	7	40	47	69	19	182
	%	3.8	22	25.8	37.9	10.4	100
일반선택과목 : 성취도	N	9	33	79	53	8	182
	%	4.9	18.1	43.4	29.1	4.4	100
진로선택과목 : 석차등급	N	7	29	58	71	17	182
	%	3.8	15.9	31.9	39	9.3	100
진로선택과목 : 성취도	N	7	21	79	61	14	182
	%	3.8	11.5	43.4	33.5	7.7	100
융합선택과목 : 석차등급	N	8	29	70	60	15	182
	%	4.4	15.9	38.5	33	8.2	100
융합선택과목 : 성취도	N	8	20	83	59	12	182
	%	4.4	11	45.6	32.4	6.6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공통과목: 석차등급	182	3.3	1.05
공통과목: 성취도	182	3.05	0.93
일반선택과목: 석차등급	182	3.29	1.04
일반선택과목: 성취도	182	3.1	0.92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182	3.34	0.98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182	3.3	0.91
융합선택과목: 석차등급	182	3.25	0.97
융합선택과목: 성취도	182	3.26	0.9

4. 교과점수 동점자 해결 방안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전형요소로 서류평가 추가 도입	N	29	51	68	228	158	534
	%	5.4	9.6	12.7	42.7	29.6	100
2) 전형요소로	N	14	34	58	246	182	534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면접평가 추가 도입	%	2.6	6.4	10.9	46.1	34.1	100
3) 전형요소로서 논술형 평가 추가 도입	N	105	145	120	111	53	534
	%	19.7	27.2	22.5	20.8	9.9	100
4) 동점자 처리를 위해 원점수(평균 포함)를 활용한 정량화 도입	N	67	111	137	152	67	534
	%	12.5	20.8	25.7	28.5	12.5	100
5) 동점자 처리를 위해 수능 등급을 활용	N	25	39	87	212	171	534
	%	4.7	7.3	16.3	39.7	32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전형요소로 서류평가 추가 도입	534	3.81	1.12
2) 전형요소로 면접평가 추가 도입	534	4.03	0.97
3) 전형요소로 서□논술형 평가 추가 도입	534	2.74	1.26
4) 동점자 처리를 위해 원점수(평균 포함)를 활용한 정량화 도입	534	3.08	1.22
5) 동점자 처리를 위해 수능 등급을 활용	534	3.87	1.09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전형요소로 서류평가 추가 도입	N	9	25	32	87	29	182
	%	4.9	13.7	17.6	47.8	15.9	100
2) 전형요소로 면접평가 추가 도입	N	13	31	54	73	11	182
	%	7.1	17	29.7	40.1	6	100
3) 전형요소로 서□논술형 평가 추가 도입	N	37	73	37	33	2	182
	%	20.3	40.1	20.3	18.1	1.1	100
4) 동점자 처리를 위해 원점수(평균 포함)를 활용한 정량화 도입	N	8	24	47	81	22	182
	%	4.4	13.2	25.8	44.5	12.1	100
5) 동점자 처리를 위해 수능 등급을 활용	N	11	16	47	88	20	182
	%	6	8.8	25.8	48.4	11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전형요소로 서류평가 추가 도입	182	3.56	1.07
2) 전형요소로 면접평가 추가 도입	182	3.21	1.03

	N	평균	표준편차
3) 전형요소로 서·논술형 평가 추가 도입	182	2.4	1.04
4) 동점자 처리를 위해 원점수(평균 포함)를 활용한 정량화 도입	182	3.47	1.01
5) 동점자 처리를 위해 수능 등급을 활용	182	3.49	1.01

5. 교과전형의 서류평가 방안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N	29	55	118	211	121	534
	%	5.4	10.3	22.1	39.5	22.7	100
2)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N	14	14	71	257	178	534
	%	2.6	2.6	13.3	48.1	33.3	100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N	24	44	137	211	118	534
	%	4.5	8.2	25.7	39.5	22.1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534	3.64	1.1
2)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534	4.07	0.9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534	3.66	1.05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N	14	47	51	58	12	182
	%	7.7	25.8	28	31.9	6.6	100
2)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N	5	10	33	109	25	182
	%	2.7	5.5	18.1	59.9	13.7	100
3) 학교 교육과정을	N	4	11	48	104	15	182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	2.2	6	26.4	57.1	8.2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182	3.04	1.07
2)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182	3.76	0.86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182	3.63	0.81

6. 교과전형의 면접평가 방안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N	59	87	123	179	86	534
	%	11	16.3	23	33.5	16.1	100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N	48	78	141	196	71	534
	%	9	14.6	26.4	36.7	13.3	100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N	24	35	106	218	151	534
	%	4.5	6.6	19.9	40.8	28.3	100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N	10	18	72	242	192	534
	%	1.9	3.4	13.5	45.3	36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534	3.27	1.23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534	3.31	1.15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534	3.82	1.06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534	4.1	0.89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N	14	30	41	81	16	182
	%	7.7	16.5	22.5	44.5	8.8	100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N	15	46	67	52	2	182
	%	8.2	25.3	36.8	28.6	1.1	100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N	14	50	48	58	12	182
	%	7.7	27.5	26.4	31.9	6.6	100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N	8	16	50	89	19	182
	%	4.4	8.8	27.5	48.9	10.4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182	3.3	1.09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182	2.89	0.95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182	3.02	1.08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182	3.52	0.95

7. 정성적 평가요소를 도입한다면, 교과성적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표_도수분포]

교과성적 비중	고교		대학	
	N	%	N	%
90% - 100%	12	2.2	2	1.1
80% - 90%	67	12.5	28	15.4
70% - 80%	96	18	42	23.1
60% - 70%	57	10.7	12	6.6
50% - 60%	81	15.2	8	4.4
40% - 50%	25	4.7	7	3.8
30% - 40%	120	22.5	32	17.6
20% - 30%	57	10.7	38	20.9
10% - 20%	17	3.2	11	6
0% - 10%	2	0.4	2	1.1
전체	534	100.1	182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교과성적 비중	534	49.82	21.94	182	47.23	25.23

8. 학생부교과전형에 출결상황을 정량화하여 반영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출결상황 반영 적합성	N	9	18	60	171	276	534
	%	1.7	3.4	11.2	32	51.7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출결상황 반영 적합성	534	4.29	0.91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출결상황 반영 적합성	N	0	20	44	89	29	182
	%	0	11	24.2	48.9	15.9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출결상황 반영 적합성	182	3.7	0.87

8-1. 학생부교과전형에 출결성적 반영 비중

[요약표_도수분포]

출결성적 반영 비중	고교		대학	
	N	%	N	%
90% - 100%	3	0.7	0	0
80% - 90%	1	0.2	0	0
70% - 80%	1	0.2	0	0
50% - 60%	11	2.5	0	0
40% - 50%	5	1.1	0	0
30% - 40%	43	9.6	0	0
20% - 30%	81	18.1	18	15.3

출결성적 반영 비중	고교		대학	
	N	%	N	%
10% - 20%	238	53.2	68	57.6
0% - 10%	64	14.3	32	27.1
전체	447	99.9	118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출결성적 반영 비중	447	15.33	12.35	118	10.14	4.76

9. 학생부교과 전형에 대한 인식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N	4	7	38	242	243	534
	%	0.7	1.3	7.1	45.3	45.5	100
2) 학교장 추천제 적용	N	48	64	157	191	74	534
	%	9	12	29.4	35.8	13.9	100
3) 학교별 지원 인원 제한	N	58	100	151	174	51	534
	%	10.9	18.7	28.3	32.6	9.6	100
4) 교과성적 체계 변화에 따른 졸업생 지원 제한	N	23	88	121	185	117	534
	%	4.3	16.5	22.7	34.6	21.9	100
5)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별 최소 이수과목 수(또는 이수단위) 지정	N	14	36	118	247	119	534
	%	2.6	6.7	22.1	46.3	22.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534	4.34	0.73
2) 학교장 추천제 적용	534	3.34	1.13
3) 학교별 지원 인원 제한	534	3.11	1.15
4) 교과성적 체계 변화에 따른 졸업생 지원 제한	534	3.53	1.13
5)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별 최소 이수과목 수(또는 이수단위) 지정	534	3.79	0.95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N	0	2	26	99	55	182
	%	0	1.1	14.3	54.4	30.2	100
2) 학교장 추천제 적용	N	8	38	55	70	11	182
	%	4.4	20.9	30.2	38.5	6	100
3) 학교별 지원 인원 제한	N	24	51	50	49	8	182
	%	13.2	28	27.5	26.9	4.4	100
4) 교과성적 체계 변화에 따른 졸업생 지원 제한	N	8	41	43	64	26	182
	%	4.4	22.5	23.6	35.2	14.3	100
5)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별 최소 이수과목 수(또는 이수단위) 지정	N	3	24	51	86	18	182
	%	1.6	13.2	28	47.3	9.9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182	4.14	0.69
2) 학교장 추천제 적용	182	3.21	0.99
3) 학교별 지원 인원 제한	182	2.81	1.11
4) 교과성적 체계 변화에 따른 졸업생 지원 제한	182	3.32	1.11
5)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별 최소 이수과목 수(또는 이수단위) 지정	182	3.51	0.9

다음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생부위주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

[요약표_도수분표]

교과 선발 규모	고교		대학	
	N	%	N	%
90% - 100%	2	0.4	1	0.5
80% - 90%	6	1.1	2	1.1
70% - 80%	17	3.2	6	3.3
60% - 70%	24	4.5	9	4.9
50% - 60%	105	19.7	27	14.8
40% - 50%	136	25.5	49	26.9
30% - 40%	183	34.3	66	36.3
20% - 30%	55	10.3	19	10.4
10% - 20%	6	1.1	3	1.6
전체	**534**	**100.1**	**182**	**99.8**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종합전형 선발 규모	534	39.05	13.16	182	38.42	13.67

2.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표]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N	21	70	96	224	123	534
	%	3.9	13.1	18	41.9	2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534	3.67	1.09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표]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N	14	38	51	61	18	182
	%	7.7	20.9	28	33.5	9.9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182	3.17	1.11

3. 서류평가의 평가요소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표]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학업역량	N	1	4	38	222	269	534
	%	0.2	0.7	7.1	41.6	50.4	100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진로역량	N	2	9	61	209	253	534
	%	0.4	1.7	11.4	39.1	47.4	100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공동체역량	N	1	6	90	219	218	534
	%	0.2	1.1	16.9	41	40.8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학업역량	534	4.41	0.67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진로역량	534	4.31	0.77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공동체역량	534	4.21	0.77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표]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학업역량	N	0	6	18	102	56	182
	%	0	3.3	9.9	56	30.8	100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진로역량	N	1	6	31	92	52	182
	%	0.5	3.3	17	50.5	28.6	100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공동체역량	N	1	8	24	108	41	182
	%	0.5	4.4	13.2	59.3	22.5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학업역량	182	4.14	0.72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진로역량	182	4.03	0.8
서류평가 요소 적합성: 공동체역량	182	3.99	0.77

4. 서류평가 시 평가요소별 반영비중

[요약표_도수분표]

학업역량	고교		대학	
	N	%	N	%
80% - 90%	6	1.1	2	1.1
70% - 80%	9	1.7	7	4
60% - 70%	31	5.9	9	5.2
50% - 60%	136	26	28	16.1
40% - 50%	202	38.5	80	46
30% - 40%	124	23.7	38	21.8
20% - 30%	16	3.1	10	5.7
전체	**524**	**100**	**174**	**99.9**

[요약표_도수분포]

진로역량	고교		대학	
	N	%	N	%
60% - 70%	2	0.4	0	0
50% - 60%	41	7.8	22	12.6

진로역량	고교		대학	
	N	%	N	%
40% - 50%	193	36.8	80	46
30% - 40%	196	37.4	52	29.9
20% - 30%	74	14.1	15	8.6
10% - 20%	16	3.1	5	2.9
0% - 10%	2	0.4	0	0
전체	**524**	**100**	**174**	**100**

[요약표_도수분포]

공동체역량	고교		대학	
	N	%	N	%
50% - 60%	3	0.6	0	0
40% - 50%	25	4.8	6	3.4
30% - 40%	181	34.5	43	24.7
20% - 30%	279	53.2	104	59.8
10% - 20%	35	6.7	19	10.9
0% - 10%	1	0.2	2	1.1
전체	**524**	**100**	**174**	**99.9**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학업역량	524	42.06	10.49	174	41.47	11.34
진로역량	524	33.63	9.29	174	36.38	8.94
공동체역량	524	24.31	7.17	174	22.16	6.91

5. 학업역량 평가 시 과목별 중요도

[요약표_도수분포]

공통과목	고교		대학	
	N	%	N	%
80% - 90%	1	0.2	0	0
70% - 80%	4	0.8	3	1.7
60% - 70%	10	2	3	1.7
50% - 60%	61	12.2	15	8.6
40% - 50%	104	20.9	42	24.1
30% - 40%	172	34.5	73	42
20% - 30%	130	26.1	35	20.1
10% - 20%	16	3.2	3	1.7
전체	**498**	**99.9**	**174**	**99.9**

[요약표_도수분포]

일반선택	고교		대학	
	N	%	N	%
60% - 70%	1	0.2	0	0
50% - 60%	6	1.2	2	1.1
40% - 50%	69	13.9	24	13.8
30% - 40%	270	54.2	107	61.5
20% - 30%	145	29.1	34	19.5
10% - 20%	7	1.4	7	4
전체	**498**	**100**	**174**	**99.9**

[요약표_도수분포]

진로선택	고교		대학	
	N	%	N	%
50% - 60%	2	0.4	1	0.6
40% - 50%	23	4.6	5	2.9
30% - 40%	143	28.7	45	25.9
20% - 30%	240	48.2	101	58
10% - 20%	83	16.7	22	12.6
0% - 10%	7	1.4	0	0
전체	**498**	**100**	**174**	**100**

[요약표_도수분포]

융합선택	고교		대학	
	N	%	N	%
30% - 40%	22	4.4	2	1.1
20% - 30%	170	34.1	60	34.5
10% - 20%	270	54.2	102	58.6
0% - 10%	36	7.2	10	5.7
전체	**498**	**99.9**	**174**	**99.9**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공통과목	498	33	11.3	174	33.65	10.55
일반선택	498	29.4	6.86	174	29.63	6.95
진로선택	498	23.08	8	174	22.87	7.04
융합선택	498	14.52	6.82	174	13.85	5.92

6. 서류평가 시 권장과목 이수 여부 반영에 대한 적합성

대학의 권장과목 이수 여부에 대한 서류평가 적절성	고교		대학	
	N	%	N	%
매우부적합	14	2.6	2	1.1
부적합	48	9	28	15.4
적합	271	50.7	119	65.4
매우적합	201	37.6	33	18.1
전체	**534**	**99.9**	**182**	**100**

7.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평가 방법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N	47	86	130	191	80	534
	%	8.8	16.1	24.3	35.8	15	100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N	34	67	141	207	85	534
	%	6.4	12.5	26.4	38.8	15.9	100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N	5	3	35	210	281	534
	%	0.9	0.6	6.6	39.3	52.6	100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N	5	10	48	256	215	534
	%	0.9	1.9	9	47.9	40.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534	3.32	1.17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534	3.45	1.1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534	4.42	0.72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534	4.25	0.77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N	16	33	53	68	12	182
	%	8.8	18.1	29.1	37.4	6.6	100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N	14	32	70	60	6	182
	%	7.7	17.6	38.5	33	3.3	100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N	3	5	28	76	70	182
	%	1.6	2.7	15.4	41.8	38.5	100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N	2	14	52	81	33	182
	%	1.1	7.7	28.6	44.5	18.1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182	3.15	1.07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182	3.07	0.97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182	4.13	0.89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182	3.71	0.89

8. 2028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필요성

수능최적학력기준 적용 필요성 증대에 대한 동의 정도	고교		대학	
	N	%	N	%
매우부동의	18	3.4	7	3.8
부동의	85	15.9	46	25.3
동의	225	42.1	78	42.9
매우동의	206	38.6	51	28
전체	**534**	**100**	**182**	**100**

다음은 논술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논술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

[요약표_도수분포]

논술 선발 규모	고교		대학	
	N	%	N	%
60% - 70%	2	0.4	0	0
50% - 60%	5	0.9	0	0
40% - 50%	1	0.2	1	0.5
30% - 40%	19	3.6	12	6.6
20% - 30%	95	17.8	49	26.9
10% - 20%	279	52.2	89	48.9
0% - 10%	133	24.9	31	17
전체	**534**	**100**	**182**	**99.9**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논술전형 선발 규모	534	11.78	8.17	182	13.37	7.77

2.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N	18	31	50	188	247	534
	%	3.4	5.8	9.4	35.2	46.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534	4.15	1.03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N	12	7	27	93	43	182
	%	6.6	3.8	14.8	51.1	23.6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적합성	182	3.81	1.05

3. 논술전형에 교과성적 반영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교과성적 정량적 반영에 대한 적합성	N	46	75	147	170	96	534
	%	8.6	14	27.5	31.8	18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교과성적 정량적 반영에 대한 적합성	534	3.37	1.18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교과성적 정량적 반영에 대한 적합성	N	17	38	66	48	13	182
	%	9.3	20.9	36.3	26.4	7.1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교과성적 정량적 반영에 대한 적합성	182	3.01	1.07

[요약표_도수분포]

교과성적 반영 비중	고교		대학	
	N	%	N	%
80% - 90%	2	0.8	1	1.6
70% - 80%	3	1.1	0	0
60% - 70%	4	1.5	3	4.9
50% - 60%	39	14.7	1	1.6
40% - 50%	20	7.5	1	1.6
30% - 40%	102	38.5	18	29.5
20% - 30%	71	26.8	22	36.1
10% - 20%	24	9.1	15	24.6
전체	265	100	61	99.9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교과성적 반영 비중	265	30.53	13.4	61	24.26	14.08

4. 논술전형에 출결성적 반영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출결상황 반영에 대한 적합성	N	21	31	80	168	234	534
	%	3.9	5.8	15	31.5	43.8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출결상황 반영에 대한 적합성	534	4.05	1.08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출결상황 반영에 대한 적합성	N	14	34	55	60	19	182
	%	7.7	18.7	30.2	33	10.4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출결상황 반영에 대한 적합성	182	3.2	1.1

4-1. 논술전형에 출결성적 반영 비중

[요약표_도수분포]

출결성적 반영 비중	고교		대학	
	N	%	N	%
90% - 100%	2	0.5	0	0
80% - 90%	1	0.3	0	0
70% - 80%	1	0.3	0	0
50% - 60%	8	2	0	0
40% - 50%	9	2.3	0	0
30% - 40%	54	13.5	0	0
20% - 30%	106	26.5	16	20.3
10% - 20%	185	46.3	45	57
0% - 10%	34	8.5	18	22.8
전체	400	100.2	79	100.1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출결성적 반영 비중	400	17.28	12.07	79	10.92	5.1

5. 논술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N	100	125	163	104	42	534
	%	18.7	23.4	30.5	19.5	7.9	100
2)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에 기반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	N	52	62	161	207	52	534
	%	9.7	11.6	30.1	38.8	9.7	100
3) 수능에서 수학과 탐구의 출제 범위가 축소되었듯이 논술의 출제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	N	48	93	132	195	66	534
	%	9	17.4	24.7	36.5	12.4	100
4)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N	30	40	124	226	114	534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	5.6	7.5	23.2	42.3	21.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534	2.74	1.2
2)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에 기반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	534	3.27	1.1
3) 수능에서 수학과 탐구의 출제 범위가 축소되었듯이 논술의 출제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	534	3.26	1.15
4)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534	3.66	1.07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N	20	48	65	41	8	182
	%	11	26.4	35.7	22.5	4.4	100
2)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에 기반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	N	13	31	69	63	6	182
	%	7.1	17	37.9	34.6	3.3	100
3) 수능에서 수학과 탐구의 출제 범위가 축소되었듯이 논술의 출제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	N	20	42	64	48	8	182
	%	11	23.1	35.2	26.4	4.4	100
4)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N	12	27	70	63	10	182
	%	6.6	14.8	38.5	34.6	5.5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182	2.83	1.04
2)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에 기반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	182	3.1	0.96
3) 수능에서 수학과 탐구의 출제 범위가 축소되었듯이 논술의 출제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	182	2.9	1.05

	N	평균	표준편차
4)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182	3.18	0.98

다음은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

[요약표_도수분포]

정시 선발 규모	고교		대학	
	N	%	N	%
90% - 100%	1	0.2	0	0
80% - 90%	1	0.2	0	0
70% - 80%	2	0.4	1	0.5
60% - 70%	8	1.5	2	1.1
50% - 60%	45	8.4	5	2.7
40% - 50%	102	19.1	26	14.3
30% - 40%	220	41.2	81	44.5
20% - 30%	117	21.9	55	30.2
10% - 20%	29	5.4	11	6
0% - 10%	9	1.7	1	0.5
전체	534	100	182	99.8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정시 선발 규모	534	31.09	11.68	182	28.64	9.94

2. 수능위주전형에 교과성적 정량 반영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교과성적 정량적 반영에 대한 적합성	N	31	68	114	208	113	534
	%	5.8	12.7	21.3	39	21.2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교과성적 정량적 반영에 대한 적합성	534	3.57	1.13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교과성적 정량적 반영에 대한 적합성	N	20	45	59	50	8	182
	%	11	24.7	32.4	27.5	4.4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교과성적 정량적 반영에 대한 적합성	182	2.9	1.06

2-1. 수능위주전형에 교과성적 반영 비중

[요약표_도수분포]

교과성적 반영 비중	고교		대학	
	N	%	N	%
90% - 100%	1	0.3	0	0
80% - 90%	2	0.6	0	0
70% - 80%	2	0.6	0	0
60% - 70%	2	0.6	0	0
50% - 60%	25	7.8	0	0
40% - 50%	25	7.8	1	1.8
30% - 40%	128	40.1	15	26.3
20% - 30%	105	32.9	31	54.4
10% - 20%	27	8.5	9	15.8
0% - 10%	2	0.6	1	1.8
전체	**319**	**99.8**	**57**	**100.1**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교과성적 반영 비중	319	28.3	12.32	57	21.23	7.15

3. 수능위주전형에 학생부 영역별 반영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출결상황	N	15	31	53	178	257	534
	%	2.8	5.8	9.9	33.3	48.1	100
창체: 자율활동	N	78	95	154	137	70	534
	%	14.6	17.8	28.8	25.7	13.1	100
창체: 동아리활동	N	77	91	134	153	79	534
	%	14.4	17	25.1	28.7	14.8	100
창체: 진로활동	N	75	89	131	157	82	534
	%	14	16.7	24.5	29.4	15.4	100
창체: 봉사활동 실적	N	109	101	176	94	54	534
	%	20.4	18.9	33	17.6	10.1	100
석차등급(5등급)	N	38	35	104	216	141	534
	%	7.1	6.6	19.5	40.4	26.4	100
성취도(분포비율 포함)	N	43	50	133	194	114	534
	%	8.1	9.4	24.9	36.3	21.3	100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N	41	42	122	199	130	534
	%	7.7	7.9	22.8	37.3	24.3	10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N	54	64	136	166	114	534
	%	10.1	12	25.5	31.1	21.3	10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N	46	59	112	179	138	534
	%	8.6	11	21	33.5	25.8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출결상황	534	4.18	1.02
창체: 자율활동	534	3.05	1.24
창체: 동아리활동	534	3.12	1.27
창체: 진로활동	534	3.15	1.27
창체: 봉사활동 실적	534	2.78	1.24
석차등급(5등급)	534	3.72	1.13
성취도(분포비율 포함)	534	3.54	1.16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534	3.63	1.1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34	3.42	1.2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34	3.57	1.23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출결상황	N	15	30	52	62	23	182
	%	8.2	16.5	28.6	34.1	12.6	100
창체: 자율활동	N	50	65	53	13	1	182
	%	27.5	35.7	29.1	7.1	0.5	100
창체: 동아리활동	N	48	65	48	20	1	182
	%	26.4	35.7	26.4	11	0.5	100
창체: 진로활동	N	48	62	46	20	6	182
	%	26.4	34.1	25.3	11	3.3	100
창체: 봉사활동 실적	N	53	67	49	12	1	182
	%	29.1	36.8	26.9	6.6	0.5	100
석차등급(5등급)	N	21	39	45	57	20	182
	%	11.5	21.4	24.7	31.3	11	100
성취도(분포비율 포함)	N	21	40	49	56	16	182
	%	11.5	22	26.9	30.8	8.8	100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N	24	41	37	63	17	182
	%	13.2	22.5	20.3	34.6	9.3	10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N	35	53	46	41	7	182
	%	19.2	29.1	25.3	22.5	3.8	10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N	28	41	55	49	9	182
	%	15.4	22.5	30.2	26.9	4.9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출결상황	182	3.26	1.13
창체: 자율활동	182	2.18	0.94
창체: 동아리활동	182	2.24	0.98
창체: 진로활동	182	2.31	1.08
창체: 봉사활동 실적	182	2.13	0.93
석차등급(5등급)	182	3.09	1.2
성취도(분포비율 포함)	182	3.03	1.16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182	3.04	1.2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82	2.63	1.1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82	2.84	1.13

4. 수능 반영 영역을 모집단위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의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N	10	22	57	259	186	534
	%	1.9	4.1	10.7	48.5	34.8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의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534	4.1	0.88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의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N	6	11	34	96	35	182
	%	3.3	6	18.7	52.7	19.2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의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182	3.79	0.94

5. 수능 과목별 반영 비중: 인문 사회 계열

[요약표_도수분포]

국어	고교		대학	
	N	%	N	%
50% - 60%	3	0.6	0	0
40% - 50%	28	5.8	17	9.9
30% - 40%	319	66.5	115	67.3
20% - 30%	130	27.1	39	22.8
전체	**480**	**100**	**171**	**100**

[요약표_도수분포]

수학	고교		대학	
	N	%	N	%
40% - 50%	2	0.4	2	1.2
30% - 40%	50	10.4	26	15.2
20% - 30%	320	66.7	120	70.2
10% - 20%	104	21.7	21	12.3
0% - 10%	4	0.8	2	1.2
전체	480	100	171	100.1

[요약표_도수분포]

영어	고교		대학	
	N	%	N	%
40% - 50%	2	0.4	0	0
30% - 40%	130	27.1	56	32.7
20% - 30%	300	62.5	97	56.7
10% - 20%	47	9.8	16	9.4
0% - 10%	1	0.2	2	1.2
전체	480	100	171	100

[요약표_도수분포]

사회	고교		대학	
	N	%	N	%
40% - 50%	3	0.6	0	0
30% - 40%	81	16.9	24	14
20% - 30%	267	55.6	89	52
10% - 20%	123	25.6	57	33.3
0% - 10%	6	1.3	1	0.6
전체	480	100	171	99.9

[요약표_도수분포]

과학	고교		대학	
	N	%	N	%
20% - 30%	25	5.2	7	4.1
10% - 20%	283	59	88	51.5
0% - 10%	172	35.8	76	44.4
전체	480	100	171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국어	480	29.14	4.65	171	29.74	4.83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수학	480	19.71	5.83	171	21.14	5.94
영어	480	22.77	5.82	171	23.33	6.11
사회	480	20.41	6.28	171	19.01	6.43
과학	480	7.97	5.61	171	6.78	5.65

6. 수능 과목별 반영 비중: 자연계열

[요약표_도수분포]

국어	고교		대학	
	N	%	N	%
30% - 40%	44	9.1	34	19.4
20% - 30%	384	79	115	65.7
10% - 20%	57	11.7	24	13.7
0% - 10%	1	0.2	2	1.1
전체	**486**	**100**	**175**	**99.9**

[요약표_도수분포]

수학	고교		대학	
	N	%	N	%
50% - 60%	8	1.6	0	0
40% - 50%	66	13.6	37	21.1
30% - 40%	336	69.1	113	64.6
20% - 30%	75	15.4	25	14.3
10% - 20%	1	0.2	0	0
전체	**486**	**99.9**	**175**	**100**

[요약표_도수분포]

영어	고교		대학	
	N	%	N	%
30% - 40%	37	7.6	22	12.6
20% - 30%	337	69.3	116	66.3
10% - 20%	108	22.2	35	20
0% - 10%	4	0.8	2	1.1
전체	**486**	**99.9**	**175**	**100**

[요약표_도수분포]

사회	고교		대학	
	N	%	N	%
30% - 40%	1	0.2	0	0
20% - 30%	24	4.9	7	4
10% - 20%	277	57	80	45.7

사회	고교		대학	
	N	%	N	%
0% - 10%	184	37.9	88	50.3
전체	**486**	**100**	**175**	**100**

[요약표_도수분포]

과학	고교		대학	
	N	%	N	%
40% - 50%	6	1.2	2	1.1
30% - 40%	109	22.4	41	23.4
20% - 30%	273	56.2	81	46.3
10% - 20%	91	18.7	50	28.6
0% - 10%	7	1.4	1	0.6
전체	486	99.9	175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국어	486	20.58	4.47	175	21.29	5.74
수학	486	31	5.43	175	31.77	5.31
영어	486	19.15	5.38	175	19.8	5.76
사회	486	7.68	5.54	175	6.36	5.64
과학	486	21.6	6.53	175	20.79	7.3

7. 수능 총점 계산 시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점수 활용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국어(표준점수)	N	4	5	47	239	239	534
국어(표준점수)	%	0.7	0.9	8.8	44.8	44.8	100
국어(백분위)	N	6	8	57	253	210	534
국어(백분위)	%	1.1	1.5	10.7	47.4	39.3	100
국어(등급)	N	34	58	137	196	109	534
국어(등급)	%	6.4	10.9	25.7	36.7	20.4	100
수학(표준점수)	N	4	2	39	239	250	534
수학(표준점수)	%	0.7	0.4	7.3	44.8	46.8	100
수학(백분위)	N	5	9	59	250	211	534
수학(백분위)	%	0.9	1.7	11	46.8	39.5	100
수학(등급)	N	36	52	141	190	115	534
수학(등급)	%	6.7	9.7	26.4	35.6	21.5	100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탐구(표준점수)	N	6	10	57	231	230	534
탐구(표준점수)	%	1.1	1.9	10.7	43.3	43.1	100
탐구(백분위)	N	7	10	62	246	209	534
탐구(백분위)	%	1.3	1.9	11.6	46.1	39.1	100
탐구(등급)	N	33	48	142	193	118	534
탐구(등급)	%	6.2	9	26.6	36.1	22.1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국어(표준점수)	534	4.32	0.73
국어(백분위)	534	4.22	0.78
국어(등급)	534	3.54	1.12
수학(표준점수)	534	4.37	0.7
수학(백분위)	534	4.22	0.78
수학(등급)	534	3.55	1.13
탐구(표준점수)	534	4.25	0.81
탐구(백분위)	534	4.2	0.81
탐구(등급)	534	3.59	1.11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국어(표준점수)	N	0	4	30	99	49	182
국어(표준점수)	%	0	2.2	16.5	54.4	26.9	100
국어(백분위)	N	0	5	37	111	29	182
국어(백분위)	%	0	2.7	20.3	61	15.9	100
국어(등급)	N	9	26	71	64	12	182
국어(등급)	%	4.9	14.3	39	35.2	6.6	100
수학(표준점수)	N	0	4	27	98	53	182
수학(표준점수)	%	0	2.2	14.8	53.8	29.1	100
수학(백분위)	N	0	5	34	111	32	182
수학(백분위)	%	0	2.7	18.7	61	17.6	100
수학(등급)	N	9	26	69	64	14	182
수학(등급)	%	4.9	14.3	37.9	35.2	7.7	100
탐구(표준점수)	N	0	4	37	99	42	182
탐구(표준점수)	%	0	2.2	20.3	54.4	23.1	100
탐구(백분위)	N	0	5	28	114	35	182
탐구(백분위)	%	0	2.7	15.4	62.6	19.2	100
탐구(등급)	N	8	25	71	65	13	182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탐구(등급)	%	4.4	13.7	39	35.7	7.1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국어(표준점수)	182	4.06	0.72
국어(백분위)	182	3.9	0.68
국어(등급)	182	3.24	0.95
수학(표준점수)	182	4.1	0.72
수학(백분위)	182	3.93	0.69
수학(등급)	182	3.26	0.97
탐구(표준점수)	182	3.98	0.72
탐구(백분위)	182	3.98	0.68
탐구(등급)	182	3.27	0.94

8. 수능성적 외 추가적 전형요소 활용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서류평가 도입	N	37	55	98	220	124	534
	%	6.9	10.3	18.4	41.2	23.2	100
2) 면접평가 도입	N	35	51	94	232	122	534
	%	6.6	9.6	17.6	43.4	22.8	100
3) 서□논술형 평가 도입	N	72	129	142	141	50	534
	%	13.5	24.2	26.6	26.4	9.4	100
4)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 도입	N	28	47	100	228	131	534
	%	5.2	8.8	18.7	42.7	24.5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서류평가 도입	534	3.63	1.15
2) 면접평가 도입	534	3.66	1.13
3) 서□논술형 평가 도입	534	2.94	1.19
4)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 도입	534	3.72	1.09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서류평가 도입	N	23	40	55	56	8	182
	%	12.6	22	30.2	30.8	4.4	100
2) 면접평가 도입	N	29	48	48	51	6	182
	%	15.9	26.4	26.4	28	3.3	100
3) 서□논술형 평가 도입	N	35	64	42	36	5	182
	%	19.2	35.2	23.1	19.8	2.7	100
4)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 도입	N	18	32	51	64	17	182
	%	9.9	17.6	28	35.2	9.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서류평가 도입	182	2.92	1.1
2) 면접평가 도입	182	2.76	1.12
3) 서□논술형 평가 도입	182	2.52	1.1
4)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 도입	182	3.16	1.13

9. 수능위주전형에 서류평가 도입 시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N	54	77	132	185	86	534
	%	10.1	14.4	24.7	34.6	16.1	100
2)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N	28	32	95	245	134	534
	%	5.2	6	17.8	45.9	25.1	100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N	30	37	131	222	114	534
	%	5.6	6.9	24.5	41.6	21.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534	3.32	1.2
2)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534	3.8	1.05

	N	평균	표준편차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534	3.66	1.06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N	30	68	39	36	9	182
	%	16.5	37.4	21.4	19.8	4.9	100
2)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N	18	26	50	78	10	182
	%	9.9	14.3	27.5	42.9	5.5	100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N	16	28	53	69	16	182
	%	8.8	15.4	29.1	37.9	8.8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182	2.59	1.13
2)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182	3.2	1.07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182	3.23	1.09

10. 수능위주전형에 면접평가 도입 시 적합성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N	64	81	125	176	88	534
	%	12	15.2	23.4	33	16.5	100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N	53	69	135	203	74	534
	%	9.9	12.9	25.3	38	13.9	100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N	42	62	129	200	101	534
	%	7.9	11.6	24.2	37.5	18.9	100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N	31	45	112	223	123	534
	%	5.8	8.4	21	41.8	2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534	3.27	1.25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534	3.33	1.16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534	3.48	1.16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534	3.68	1.09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N	25	39	43	63	12	182
	%	13.7	21.4	23.6	34.6	6.6	100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N	26	47	55	47	7	182
	%	14.3	25.8	30.2	25.8	3.8	100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N	31	57	46	36	12	182
	%	17	31.3	25.3	19.8	6.6	100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N	23	37	50	66	6	182
	%	12.6	20.3	27.5	36.3	3.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182	2.99	1.18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182	2.79	1.1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182	2.68	1.17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182	2.97	1.1

11.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일반 인식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수능 범위 축소에 따른 수능 타당성 저하로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전형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N	27	28	98	263	118	534
	%	5.1	5.2	18.4	49.3	22.1	100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2) 수능위주전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능 100%로 선발해야 한다.	N	61	106	186	120	61	534
	%	11.4	19.9	34.8	22.5	11.4	100
3) 사교육 증가, N수생 양산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N	35	56	134	174	135	534
	%	6.6	10.5	25.1	32.6	25.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수능 범위 축소에 따른 수능 타당성 저하로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전형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534	3.78	1.01
2) 수능위주전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능 100%로 선발해야 한다.	534	3.03	1.16
3) 사교육 증가, N수생 양산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534	3.6	1.16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수능 범위 축소에 따른 수능 타당성 저하로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전형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N	10	25	53	75	19	182
	%	5.5	13.7	29.1	41.2	10.4	100
2) 수능위주전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능 100%로 선발해야 한다.	N	11	36	64	52	19	182
	%	6	19.8	35.2	28.6	10.4	100
3) 사교육 증가, N수생 양산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N	8	40	62	43	29	182
	%	4.4	22	34.1	23.6	15.9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수능 범위 축소에 따른 수능 타당성 저하로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전형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182	3.37	1.03
2) 수능위주전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능 100%로 선발해야 한다.	182	3.18	1.06

	N	평균	표준편차
3) 사교육 증가, N수생 양산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182	3.25	1.1

다음은 전형전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적정 모집 비중: 수시모집 대 정시모집

[요약표_도수분포]

수시모집	고교		대학	
	N	%	N	%
90% - 100%	6	1.1	3	1.7
80% - 90%	74	13.9	35	19.3
70% - 80%	221	41.5	88	48.6
60% - 70%	143	26.8	32	17.7
50% - 60%	55	10.3	11	6.1
40% - 50%	18	3.4	5	2.8
30% - 40%	12	2.3	6	3.3
20% - 30%	2	0.4	1	0.6
10% - 20%	1	0.2	0	0
0% - 10%	1	0.2	0	0
전체	**533**	**100.1**	**181**	**100.1**

[요약표_도수분포]

정시모집	고교		대학	
	N	%	N	%
90% - 100%	1	0.2	0	0
80% - 90%	2	0.4	1	0.6
70% - 80%	12	2.3	5	2.8
60% - 70%	18	3.4	6	3.3
50% - 60%	52	9.8	9	5
40% - 50%	132	24.8	26	14.4
30% - 40%	222	41.7	90	49.7
20% - 30%	87	16.3	40	22.1
10% - 20%	5	0.9	4	2.2
0% - 10%	2	0.4	0	0
전체	**533**	**100.2**	**181**	**100.1**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고교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수시모집	533	64.92	12.19	181	67.36	12.15
정시모집	533	35.08	12.19	181	32.64	12.15

2. 전형 유형별 규모 증감에 대한 인식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축소	유지	확대	계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전형)	N	106	301	127	534
	%	19.9	56.4	23.8	100
학생부위주(학생부종합전형)	N	46	189	299	534
	%	8.6	35.4	56	100
논술위주	N	260	225	49	534
	%	48.7	42.1	9.2	100
실기/실적위주	N	147	364	23	534
	%	27.5	68.2	4.3	100
수능위주	N	208	208	118	534
	%	39	39	22.1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전형)	534	2.04	0.66
학생부위주(학생부종합전형)	534	2.47	0.65
논술위주	534	1.6	0.65
실기/실적위주	534	1.77	0.51
수능위주	534	1.83	0.76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축소	유지	확대	계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전형)	N	76	85	21	182
	%	41.8	46.7	11.5	100
학생부위주(학생부종합전형)	N	12	61	109	182
	%	6.6	33.5	59.9	100
논술위주	N	55	96	31	182
	%	30.2	52.7	17	100
실기/실적위주	N	29	149	4	182

	구분	축소	유지	확대	계
	%	15.9	81.9	2.2	100
수능위주	N	77	74	31	182
	%	42.3	40.7	17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전형)	182	1.7	0.67
학생부위주(학생부종합전형)	182	2.53	0.62
논술위주	182	1.87	0.68
실기/실적위주	182	1.86	0.4
수능위주	182	1.75	0.73

3. 대입제도에 대한 적합도

■ 고등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수능위주전형 40% 등 정시모집 최소 선발비율 유지	N	99	106	113	155	61	534
	%	18.5	19.9	21.2	29	11.4	100
2)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	N	24	38	117	227	128	534
	%	4.5	7.1	21.9	42.5	24	100
3) 학생부 항목 제한(수상, 독서, 봉사, 자율동아리 등 미제공) 유지	N	32	95	103	179	125	534
	%	6	17.8	19.3	33.5	23.4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수능위주전형 40% 등 정시모집 최소 선발비율 유지	534	2.95	1.3
2)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	534	3.74	1.04
3) 학생부 항목 제한(수상, 독서, 봉사, 자율동아리 등 미제공) 유지	534	3.51	1.2

■ 대학교

[요약표_도수분포]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음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계
1) 수능위주전형 40% 등 정시모집 최소 선발비율 유지	N	43	65	34	34	6	182
	%	23.6	35.7	18.7	18.7	3.3	100
2)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	N	13	28	75	56	10	182
	%	7.1	15.4	41.2	30.8	5.5	100
3) 학생부 항목 제한(수상, 독서, 봉사, 자율동아리 등 미제공) 유지	N	45	55	41	35	6	182
	%	24.7	30.2	22.5	19.2	3.3	100

[요약표_평균/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1) 수능위주전형 40% 등 정시모집 최소 선발비율 유지	182	2.42	1.14
2)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	182	3.12	0.98
3) 학생부 항목 제한(수상, 독서, 봉사, 자율동아리 등 미제공) 유지	182	2.46	1.15

4. 2028 대입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분리 적합성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분리 모집 적합성	고교		대학	
	N	%	N	%
매우부적합	53	9.9	12	6.6
부적합	133	24.9	63	34.6
적합	275	51.5	100	54.9
매우적합	73	13.7	7	3.8
전체	**534**	**100**	**182**	**99.9**

부록 2. 설문조사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연구」

※ 고교와 대학 설문조사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 특성만 다르게 하여 설문조사 함

안녕하십니까?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하나로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재 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발표에 따라 변경된 내신 체계 및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도입을 대입제도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입 평가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따라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 응답기간 : 2024. 12. 6.(금)까지

2024년 11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진 드림

※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2-2123-2234 | Email: dajeonglee@yonsei.ac.kr

☞ 이 설문조사는 **2025학년도(대학 입시 기준 202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부터 적용될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을 기본으로 합니다.

☞ 다음에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읽고, **두 상황을 전제로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1]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발표: 고교 내신 체계 개편

- 5등급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로 대표되는 고교 내신 체계 개편 예정임
-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할 예정임(표준편차는 미제공)
-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함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상황 2]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발표: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 과목·점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여 융합형 학습을 유도하고자 함
-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 폐지.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
- 사회, 과학 2개 모두 응시. 단 대입전형 활용 등을 고려한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과학 관련 선택과목 수능에 미포함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영역	현행(~2027 수능)	변경안(2028 수능~)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1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1 -공통: 수학Ⅰ, 수학Ⅱ -선택: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영어Ⅰ, 영어Ⅱ)	공통(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한국사)	공통(한국사)
탐구	17과목 중 최대 택2	공통(통합사회, 통합과학)

Ⅰ. 학생부위주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생부위주 학생부교과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모집인원의 ( ) %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는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으로 구분됩니다. 교과성적 정량화 시 각 과목별 반영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합이 100%가 되게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	합계
반영비율(%)					100

3. 2028대학입시제도 확정안에 따르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함께 제공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교과성적을 정량화하는데 각 과목의 석차등급과 성취도는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 공통과목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석차등급(5등급)					
2) 성취도(A/B/C/D/E)					

3-2. 일반선택과목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석차등급(5등급)					
2) 성취도(A/B/C/D/E)					

3-3. 진로선택과목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석차등급(5등급)					
2) 성취도(A/B/C/D/E)					

3-4. 융합선택과목(사회/과학 관련 과목 제외)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석차등급(5등급)					
2) 성취도(A/B/C/D/E)					

4.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일부 대학이나 모집단위에서는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에 제시된 방안을 학생부교과전형에 도입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전형요소로 서류평가 추가 도입					
2) 전형요소로 면접평가 추가 도입					
3) 전형요소로 서·논술형 평가 추가 도입					
4) 동점자 처리를 위해 원점수(평균 포함)를 활용한 정량화 도입					
5) 동점자 처리를 위해 수능 등급을 활용					

5. 학생부교과전형에 서류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면 다음에 제시된 각 방법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2)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6. 학생부교과전형에 면접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면 다음에 제시된 각 방법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7. 학생부교과전형에 정량화된 교과성적 외에 서류평가나 면접평가 등과 같은 정성적 평가요소를 도입한다면, 교과성적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성적: 학생부교과전형 총점의 ( ) %

8. 학생부교과전형에 출결상황을 정량화하여 반영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8-1. (☞ ④ ⑤에 응답한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에 출결성적을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결성적: 학생부교과전형 총점의 (　　)%

9. 다음의 각 방안은 학생부교과전형 운영과 관련하여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2) 학교장 추천제 적용					
3) 학교별 지원 인원 제한					
4) 교과성적 체계 변화에 따른 졸업생 지원 제한					
5)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별 최소 이수과목 수(또는 이수단위) 지정					

Ⅱ. 학생부위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생부위주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모집인원의 ( ) %

2.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3. 2021년 건국대 등 5개 대학은 공동연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평가요소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확정안을 고려할 때, 각 평가요소는 새로운 환경에서 서류평가 요소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학업역량					
2) 진로역량					
3) 공동체역량					

4.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 각 평가요소의 반영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평가요소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합계
반영비율(%)				100

5.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요소 중 학업역량 정성평가 시 과목별 중요도는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	합계
반영비율(%)					100

6. 최근 여러 대학에서 전공 이수에 필요한 권장과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 권장과목의 이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적합함 ④ 매우 적합함

6-1. (☞ ① ②에 응답한 경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2. (☞ ③ ④에 응답한 경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학생부종합전형에 면접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 다음에 제시된 각 방법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8. 2028 대입제도확정안은 내신 5등급제와 통합 수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의 경우 수학과 탐구의 출제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8-1. (☞ ① ②에 응답한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2. (☞ ③ ④에 응답한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데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논술위주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논술위주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모집인원의 ( ) %

2. 논술위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3. 논술위주전형에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3-1. (☞ ④ ⑤에 응답한 경우) 논술위주전형에 교과성적을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성적: 논술위주전형 총점의 ( ) %

4. 논술위주전형에 출결상황을 정량화하여 반영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4-1. (☞ ④ ⑤에 응답한 경우) 논술위주전형에 출결성적을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결성적: 논술위주전형 총점의 ( )%

5. 2028 대입제도 확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논술위주전형에 대한 다음의 각 질문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서·논술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논술위주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에 기반한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					
3) 수능에서 수학과 탐구의 출제 범위가 축소되었듯이 논술의 출제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					
4)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의 선택과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도 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Ⅳ.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선발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모집인원의 ( ) %

2. 수능위주전형에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2-1. (☞ ④ ⑤에 응답한 경우) 수능위주전형에 교과성적을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성적: 수능위주전형 총점의 ( ) %

3. 수능위주전형에 다음에 제시된 학생부의 각 영역을 반영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출결상황						
2)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실적					
3) 교과학습 발달상황	석차등급(5등급)					
	성취도(분포비율 포함)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의 과목별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5. 인문 사회계열 학생 선발 시 영역별 수능 반영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합계
				사회	과학	
반영비율(%)						100

6. 자연계열 학생 선발 시 영역별 수능 반영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합계
				사회	과학	
반영비율(%)						100

7. 수능의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성적이 표준점수/백분위/등급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능위주전형의 수능 총점 계산 시 각각의 성적 지표는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국어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수학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탐구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8. 통합형 수능 실시에 따라 수능의 평가 타당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능위주전형에 수능성적 외에 추가적인 전형요소가 필요하다면, 다음에 제시된 방법들은 추가 평가요소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서류평가 도입					
2) 면접평가 도입					
3) 서·논술형 평가 도입					
4) 전공 이수에 필요한 과목 이수 여부를 활용한 정량평가 도입					

9. 수능위주전형에 서류평가(또는 정성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면 다음에 제시된 각 방법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의 종합평가					
2)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3)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 과목 이수 현황에 대한 정성평가					

10. 수능위주전형에 면접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면 다음에 제시된 각 방법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제시문 기반 학업역량 평가 면접					
2) 제시문 기반 의사소통능력 평가 면접					
3)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활용한 확인 면접					
4)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이수현황 + 교과성적 + 세특)을 활용한 확인 면접					

11. 2028 대입제도 확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수능위주전형에 대한 다음의 질문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수능 범위 축소에 따른 수능 타당성 저하로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전형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2) 수능위주전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능 100%로 선발해야 한다.					
3) 사교육 증가, N수생 양산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의 모집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V. 대학 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8대입전형확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바람직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모집비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합이 100%가 되게 작성해 주십시오.

모집시기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모집비율(%)			100

2. 현재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하면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 실기/실적위주, 논술위주, 수능위주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와 2028 대입제도 확정안에 비춰볼 때, 각 전형유형의 규모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축소	② 유지	③ 확대
1) 학생부위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2) 논술위주				
3) 실기/실적위주				
4) 수능위주				

3.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확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에 제시된 대입제도와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합함	⑤ 매우 적합함
1) 수능위주전형 40% 등 정시모집 최소 선발비율 유지					
2) 지역균형전형 10% 선발 유지					
3) 학생부 항목 제한(수상, 독서, 봉사, 자율동아리 등 미제공) 유지					

4.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와 2028 대입제도 확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현재와 같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합하지 않음 ② 적합하지 않음 ③ 적합함 ④ 매우 적합함

4-1. (☞ ① ②에 응답한 경우) 수시와 정시의 분리 모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2. (☞ ③ ④에 응답한 경우) 수시와 정시의 분리 모집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 특성: 고등학교 대상 조사 항목]

재직 중인 고교 소재지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전 ☐ 세종 ☐ 충청 ☐ 광주 ☐ 전라 ☐ 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 ☐ 제주
재직 중인 고교 유형	☐ 일반고 ☐ 자율형 공립고 ☐ 자율형사립고 ☐ 특목고 ☐ 영재학교 ☐ 기타 학교
재직 중인 고교 설립 유형	☐ 국/공립 ☐ 사립
경력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년 이상
담당 직무	☐ 교육과정 담당 ☐ 진로·진학 담당 ☐ 3학년부 담당 ☐ 기타

[응답자 특성: 대학교 대상 조사 항목]

재직 중인 대학 소재지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전 ☐ 세종 ☐ 충청 ☐ 광주 ☐ 전라 ☐ 부산 ☐ 대구 ☐ 울산 ☐ 경상 ☐ 제주
재직 중인 대학 학년당 모집 규모	☐ 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3,000명 이상
재직 중인 대학 설립 유형	☐ 국/공립 ☐ 사립
경력	☐ 2년 미만 ☐ 2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부록 3. 델파이조사 문항지

델파이 문항(1차)

안녕하십니까?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하나로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현재 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교육청 장학사 및 대학의 입학관계자 등 경험이 많은 입학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발표에 따라 변경된 내신 체계 및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도입을 대입제도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항은 개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입 평가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따라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 응답기간 : 2024. 9. 23. (월)까지

2024년 9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진 드림

※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2-820-6710 | Email: jhshin65@cau.ac.kr

☞ 이 설문조사는 **2025학년도(대학 입시 기준 202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부터 적용될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을 기본으로 합니다.

☞ 다음에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읽고, **두 상황을 전제로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1]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발표: 고교 내신 체계 개편

- 5등급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로 대표되는 고교 내신 체계 개편 예정임
-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할 예정임(표준편차는 미제공)
-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함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상황 2]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발표: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 과목·점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여 융합형 학습을 유도하고자 함
-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 폐지.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
- 사회, 과학 2개 모두 응시. 단 대입전형 활용 등을 고려한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과학 관련 선택과목 수능에 미포함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영역	현행(~2027 수능)	변경안(2028 수능~)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1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1 -공통: 수학Ⅰ, 수학Ⅱ -선택: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영어Ⅰ, 영어Ⅱ)	공통(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한국사)	공통(한국사)
탐구	17과목 중 최대 택2	공통(통합사회, 통합과학)

1. 2028학년도 고교 내신 체계 및 수능 체계 도입 이후 현재의 대입전형을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와 바람직한 전형방법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각 전형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부교과전형

예상되는 문제점	고교 내신 체계 변화	
	수능 체계 개편	
전형방법 제안	학생부 정량평가	
	학생부 정성평가	
	수능최저 학력기준 및 기타 전형요소	

나. 학생부종합전형

예상되는 문제점	고교 내신 체계 변화	
	수능 체계 개편	
전형방법 제안	학생부 정량평가	
	학생부 정성평가	
	수능최저 학력기준 및 기타 전형요소	

다. 논술위주전형

예상되는 문제점	
전형방법 제안	

라. 실기/실적위주전형

예상되는 문제점	
전형방법 제안	

마. 수능위주전형

예상되는 문제점	고교 내신 체계 변화	
	수능 체계 개편	
전형방법 제안	학생부 정량평가	
	학생부 정성평가	
	기타 전형요소	

2.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방향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체계로 개편 -수능 출제과목 축소 -과목명 및 교과 내용 개편 등

3. 202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별개로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의 연계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대입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ex 대입전형 시기, 전형별 모집비율, 전형 방법 제한, 학생부 기재 등)

※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		직위	
대입 및 진학.진로 경력		( )년 ( )개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델파이 문항(2차)

안녕하십니까?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교사, 교육청 장학사 및 대학의 입학관계자 등 경험이 많은 입학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조사지는 1차 델파이조사의 주요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적절성 및 판단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이 향후 대입 평가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따라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 응답기간 : 2025. 1. 20. (월)까지

2025년 1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진 드림

※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2-820-6710 | Email: jhshin65@cau.ac.kr

※ 인적사항

소속기관		성명	

☞ 이 설문조사는 **2025학년도(대학 입시 기준 202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부터 적용될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을 기본으로 합니다.

☞ 다음에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읽고, **두 상황을 전제로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1]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발표: 고교 내신 체계 개편

- 5등급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로 대표되는 고교 내신 체계 개편 예정임
-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할 예정임(표준편차는 미제공)
-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과목,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함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상황 2] 2028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발표: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 과목·점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여 융합형 학습을 유도하고자 함
-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 폐지.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
- 사회, 과학 2개 모두 응시. 단 대입전형 활용 등을 고려한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과학 관련 선택과목 수능에 미포함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영역	현행(~2027 수능)	변경안(2028 수능~)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1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1 -공통: 수학Ⅰ, 수학Ⅱ -선택: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영어Ⅰ, 영어Ⅱ)	공통(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한국사)	공통(한국사)
탐구	17과목 중 최대 택2	공통(통합사회, 통합과학)

☞ 다음은 2028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적용에 있어 1차 델파이를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고교 내신 체계 변화’에 따라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운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교과 전형의 내신 변별력 약화					
② 등급 유불리를 고려한 교과 선택					
③ 고교 교육환경에 따른 유불리 확대					
④ 성적 미흡자 고교 중도 탈락 가능성					
⑤ 졸업연도별 교과 산출기준 마련 어려움					

번호	판단 이유 기재

2.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석차등급, 성취도만 활용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평균, 수강자수 미활용)					
② 성취도별 분포비율 활용 (예: A 20%와 30% 교과목 점수 차등)					
③ 교과 영역별 반영 비율 활용 (예: 국어 30%, 수학 30% 등)					
④ 교과목 유형별 점수 차등 반영 (예: 보통교과 80%, 융합선택교과 20%)					
⑤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 차등 반영 (예: 학년별 50%, 30%, 20% 등)					
⑥ 계열별 이수과목 이수 여부 (예: 공대는 미적분, 물리 이수 가산점)					
⑦ 원점수 활용 (예: 원점수/석차등급 중 유리한 점수 반영)					
⑧ 출결 반영 (예: 미인정 결석/조퇴 감점 등)					
⑨ 졸업연도별 평가 기준 마련 (예: 5등급제 1등급 vs 9등급제 1등급)					

번호	판단 이유 기재

3.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교육과정 이수 현황만 평가					
② 교육과정 및 교과 성적 종합 평가					
③ 세부능력및특기사항 포함(①,②에 추가)					
④ 석차등급 미제공 교과만 정성평가					
⑤ 학생부 전 영역 종합 평가					

번호	판단 이유 기재

☞ 다음은 2028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적용에 있어 1차 델파이를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4.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교과성적 변별력 약화					
② 성적 위주의 교과목 선택 심화					
③ 일부 유형의 고교에 유리한 평가 결과					
④ 졸업연도에 따른 유불리 (9등급제 vs 5등급제)					

번호	판단 이유 기재

5.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정성평가 방향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낮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① 개인별 선택과목 이수 현황 평가 강화					
② 석차등급 외 성취도 지표 적극 활용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평균 등)					
③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정성 평가 강화					

번호	판단 이유 기재

☞ 다음은 2028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2028학년도 논술전형 및 실기/실적전형 적용에 있어 1차 델파이를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6. 2028학년도 '논술전형'의 전형방법 제안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수능 과목 및 학생부 공통과목 내 문제 출제(선택과목 출제 금지)					
② 학생부 교육과정 이수현황 평가 반영					
③ 학생부 정량평가 및 출결 반영					
④ 자연계열 과학교과도 반영					
⑤ 약술형 및 서·논술형 문항 개발					

번호	판단 이유 기재

7. 2028학년도 ‘실기/실적전형’의 전형방법 제안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교과성적 비중 확대					
② 출결상황 비중 확대					
③ 고교 교육과정 내 실기 과제 반영					
④ 비실기 전형 확대					

번호	판단 이유 기재

☞ 다음은 2028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 적용에 있어 1차 델파이를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8.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의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 방법 제안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학생부 정량평가 도입 불필요					
② 수능 100 / 수능+학생부 정량평가 전형의 이원화					
③ 평균 석차등급 점수 반영					
④ 내신 구간별 환산점수 부여 (1~2등급: 만점, 3등급 이하: 감점/ 성취도 B,C: 감점 등)					
⑤ 원점수, 성취도별분포비율, 수강자수 등 석차등급 외 항목 추가 활용					
⑥ 수능 출제 외 과목만 정량평가					
⑦ 교과 이수 내역 평가 반영					
⑧ 출결, 학폭 정량 반영					

번호	판단 이유 기재

9. 2028학년도 ‘수능위주전형’의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방법 제안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 불필요					
② 수능 100 / 수능+학생부 정성평가 전형의 이원화					
③ 교육과정 이수요건 제시 및 평가 반영					
④ 교과 성적 종합 평가					
⑤ 학생부 전반 정성평가					
⑥ 출결, 학폭 정성 반영					

번호	판단 이유 기재

☞ **다음은 2028 수능전형 체제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1차 델파이를 통해 제시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2028학년도 수능 체계 변화가 고교 및 대입전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수학, 탐구영역 범위 축소로 대학에서 필요한 깊이 있는 학습 확인이 어려움					
② 수능 과목 축소로 고교 교육과정 이수의 중요성 확대					
③ 수능출제 이외 교과목 수업 운영 파행 우려					
④ 사회, 과학탐구 공통 응시로 자연계 우수 학생의 높은 점수 독식 심화 우려					

번호	판단 이유 기재

☞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고교 교육과정-대입 전형 연계방향에 대한 1차 델파이조사 의견에 대한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및 수능비율 축소					
② 교육과정 선택과목 충실한 평가 반영					
③ 교과, 수능전형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					
④ 대학 모집단위별 권장과목 안내					
⑤ 무전공 및 자율전공 평가 방안 공유					

번호	판단 이유 기재

12. 고교 교육과정-대입전형 연계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대입제도나 정책에 대한 델파이 1차 조사 의견의 적절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 항목 중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해 주세요.

구분	적절성 (V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수시/정시 구분 → 수시/정시 통합					
② 정시 가/나/다군 구분 운영 → 가/나/다군 통합 운영					
③ 현행 수능 시험 방식 → 수능 이원화, 서·논술형 평가 등					
④ 주요 대학 수능 40% 이상 선발 → 전형별 모집인원 자율화					
⑤ 교과 전형 10% 이상 선발 → 전형별 모집인원 자율화					
⑥ 학생부 제공 항목 제한 → 수상경력, 독서활동, 개인봉사, 자율 동아리 등 항목 부활					
⑦ 학생부 학업자료 제한적 제공 → 지필/수행평가 비율 등 추가 제공					
⑧ 학생부 세특 기재 방식 → 세특 부풀리기, 과도한 탐구 기재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한 기재 방식 변화					
⑨ 고교 정보 블라인드 → 블라인드 정책 폐기					
⑩ 자기소개서 폐지 정책 → 자기소개서 부활					

번호	판단 이유 기재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전문가심층면접(FGI) 질문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연구」 집단심층면접(FGI) 질문지(1차)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는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연구'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2028 대학입학전형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에는 고교 교사 및 대입지원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제출해 주신 FGI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질문지 및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료 분석에 사용될 예정이며, 귀하의 개인정보와 녹음 자료는 연구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전 질문지는 ①학생부교과전형 교과 정성평가 운영 및 평가 실제, ②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방향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전 질문지 제출 : 2024. 9. 2(월) 17:00까지, 이메일 제출(mgcho@khu.ac.kr)
- FGI 일시 / 장소 : 2024. 9. 4(수) 18:00 용산역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내용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항별로 소속 대학 또는 개인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9일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진 일동

[참고] 교육부 2028 대입제도 확정

1. 내신 9등급제 → 5등급제로 개편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10	24	32	24	10
누적%	10	34	66	90	100

2. 全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 제공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	○	A·B·C·D·E	5등급	○	○	○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	A·B·C·D·E	5등급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 융합선택은 절대평가, 예체능, 과학탐구실험, 교양과목은 석차등급 미산출

3. 수능 개편안

영역	현행	개편안(2028 수능~)
국어	공통+2과목 중 택1 (공통: 독서, 문학/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3과목 중 택1 (공통: 수학Ⅰ, 수학Ⅱ/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 (영어Ⅰ, 영어Ⅱ)	공통 (영어Ⅰ, 영어Ⅱ)
사회·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2	공통(통합사회)/공통(통합과학)
직업	1과목: 5과목 중 택1/2과목: 공통+1과목	공통(성공적인 직업생활)

※ 한국사, 제2외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영역은 절대평가 적용

※ 대면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Ⅰ.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학 입학전형 설계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1-1. 이번 공동연구에서 **꼭 다루어야 할 내용, 중요 점검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이번 교육부 **2028 대입제도 확정(안), 외부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고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 운영 방향 관점에서** SWOT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답변 가능한 부분만 기재)

Strength 장점/강점	- -
Weakness (단점/약점)	- -
Opportunity (기회)	- -
Threat (위기)	- -

Ⅱ. 전형유형별 대입제도 개선방안

1. 2028 대입제도 개편 하에서 각 전형유형별 전형요소의 적용 필요성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필요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학생부교과전형

구분		평가 방안
학생부	정량평가	- -
	정성평가	- -
기타 전형요소		- -
수능 최저기준 적용		-

1-2. 학생부종합전형

구분		평가 방안
학생부	정량평가	- -
	정성평가	- -
기타 전형요소		- -
수능 최저기준 적용		-

1-3. 논술전형

구분		평가 방안
학생부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타 전형요소		
수능 최저기준 적용		-

1-4. 수능전형

구분		평가 방안
학생부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타 전형요소		

2. 2028 대입제도 개편에서 제시된 고교의 서.논술형 교육 강화를 반영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방안
다양한 형식의 면접 도입 (제시문 기반 면접, 에세이 등)	- -
논술전형 확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 -
기타	-

Ⅲ. 모집 시기, 전형 일정, 지원 횟수 등 정책 제언이나 기타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 바랍니다.

※ 인적사항

성명		**소속**	
대입 및 진학·진로 지도 경력		( )년 ( )개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연구」 집단심층면접(FGI) 질문지(2차)

작성자:

과제명: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공동연구, 연구책임자 임진택 입학사정관, 2024.8~2025.2)

※ 설문조사와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3가지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조식으로 1 ~ 2 페이지 작성)

Ⅰ. 교사가 입학사정관보다 더 긍정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시 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 모든 전형 출결 반영 시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 밖 비교 처리방안

■ 교과전형이나 수능전형에 면접 도입에 긍정반응이 높은 이유

Ⅱ. 총평 및 시사점

Ⅲ.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해석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

- 감사합니다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

2025년 2월 24일 인쇄
2025년 2월 24일 발행

발행처 경희대학교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네오르네상스관 202호 입학처

(TEL) 02-961-0028~9

※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